

석사학위논문

현대 중국 학문의 위기 극복 방법으로서  
감정과학의 「안자호학론」

YanYuan's Theory of Science of Feeling as a Method to Overcome  
the Crisis of the Modern Chinese Learning

국민대학교 일반대학원  
문화교차학협동과정 문화예술학전공

부    홍    리

2022

현대 중국 학문의 위기 극복 방법으로서  
감정과학의 「안자호학론」

YanYuan's Theory of Science of Feeling as a  
Method to Overcome the Crisis of the Modern  
Chinese Learning

지도교수 성 동 권

이 논문을 문화학석사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함

2022년 10월

국 민 대 학 교 일 반 대 학 원  
문화교차학협동과정 문화예술학전공

부 홍 리

2022

부흥리의

문화학석사학위 청구논문을 인준함

2023년 1월

심사위원장 안 현 상 ①인

심사위원 유 영 관 ①인

심사위원 성 동 권 ①인

국민대학교 일반대학원

## 차 례

국문 요약 .....	iii
제1장 현대 중국 학문의 위기 .....	1
제1절 서론 .....	1
제2절 원인 분석 및 문제제기 .....	2
1. 현대 중국 학계의 진단 .....	2
2. 위기의 분석 및 문제제기 .....	4
제3절 연구방법 및 연구범위 .....	9
1. 연구방법: 감정과학 .....	9
2. 연구범위 .....	10
제2장 공자와 안연의 학문론 .....	13
제1절 공자와 안연의 생애 .....	13
1. 공자의 생애 .....	13
2. 안연의 생애 .....	19
제2절 공자의 감정과학 .....	21
1. 天子로 생겨난 ‘나’ .....	21
2. 天子의 욕망 고유한 본성으로 놀이하는 ‘나’ .....	26
제3절 안연의 감정과학 .....	29
1. 다 좋은 감정 .....	29
2. 다 좋은 세상 .....	35
제3장 정이의 안자호학론 .....	42
제1절 정이의 생애와 안자호학론 .....	42
1. 정이의 생애와 「안자호학론」 .....	42
2. 안자호학론 번역 .....	48
제2절 안자호학론 번역에 대한 주석 .....	55
1. 몸의 변용으로서 감정 .....	55
2. 감정을 이해하는 마음 .....	60
제3절 「안자호학론」의 감정과학 .....	70
1. 감정의 자기이해 .....	70
2. 감정을 믿고 배우는 과학 .....	73
제4장 현대 중국학문의 위기극복 방법 .....	80
제1절 연구자 자신의 행복 확인 .....	80

1. 학문의 본질 회복 .....	80
2. 자기 몸을 배우는 행복 .....	84
제2절 필연성을 향한 명석판명의 이해 확립 .....	88
1. 진리의 필연성을 향한 이성의 필연성 .....	88
2. 믿음으로 배우는 학이시습의 즐거움 .....	93
제5장 결론 .....	99
참고 문헌 .....	102
논문 초록 .....	104

## 국문 요약

중학교 때부터 나는 독서에 폭 빠져 다양한 책을 읽었다. 당시 나는 내가 왜 독서를 좋아하는지 모르겠다. 이 문제는 대학까지 계속되었다. 대학 시절, 나는 공부와 여러 가지 지식을 배우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결국 자신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 대학을 졸업한 해에 중국 학술계에 학술 위조 사건이 발생했고, 당시 나에게 큰 영향을 끼쳤고, 처음으로 학문을 자신과 연결시켰다. 학문을 배우는 것은 자신이 도대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이다. 대학을 졸업한 후, 나는 잠시 책을 읽는 습관을 멈추었다. 나는 내가 왜 책을 읽어야 하는지 생각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여전히 진정한 나를 이해하지 못했다.

형과 누나의 건의로 나는 석사 과정을 시작했다. 석사 연구의 중점은 나의 진실이 무엇인지, 이것은 자신을 찾는 여정이다. 나는 나의 참된 지식과 학문을 재결합하여 「안자호학론(顔子好學論)」을 위주로 진정한 학문이 우리 몸의 진실이라는 것을 증명했다. 연구의 범위는 유교 사상 중의 ‘학문’이며, 주요 연구 대상은 공자(孔子)의 ‘위기지학(爲己之學)’, 안연(顔淵)의 ‘호학(好學)’, 정이(程頤)의 「안자호학론(顔子好學論)」이다.

제일 먼저 배운 것은 공자이다. 『논어(論語)』는 공자 학문의 대표로서 공자의 ‘학문’에 대한 견해를 찾고 싶다. 공자는 유가 사상의 창시자이며, ‘학문’에 대한 그의 이해는 반드시 정확해야 한다. 『논어』를 배우면서 학문의 진상을 확인하다. 다음 『논어』에서 공자의 제자 안연의 ‘학문’을 찾았고, 『논어』는 ‘불친노(不遷怒), 불이과(不貳過)’로 안연의 학문을 정의한다. 이는 감정과학에서 ‘다 좋은 감정, 다 좋은 세상’과 일치한다. 안연은 공자의 사상을 계승하여 자신의 감정을 학문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북송(北宋) 성리학자 정이의 「안자호학론」을 연구해 안연의 학문이 자신의 감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자신의 몸의 진실을 알고 있음을 증명하려 했다.

진일보한 연구는 세 가지 시기의 유학 ‘학문론’을 연결시켜 자신의 감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몸의 진실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불가분의 일이라는 것을 확인한다. 이것은 배워야 할 학문이고, 진정한 학문이다. 내가 책에서 찾는 것은 바로 신체의 진상이다. 이 진상을 생활과 학습과 결합시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설명하고, 자신의 몸의 진상을 알게 되면 진정한 학문을 추구하고 학문 위기를 순조롭게 해결할 수 있다.

이 논문의 주요 내용은 유교 ‘학문론’을 위주로 아래와 같이 서술한다.

첫째, 감정과학으로 공자를 이해하는 ‘위기지학’은 자신의 몸과 감정을 정확히 인

식하고 감정과학으로 학문을 연구하는 것이 올바른 학습 방법임을 확인하는 것이다. 몸과 감정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것이 이 논문의 기초이다.

둘째, 감정과학으로 북송성리학자 정이의 「안자호학론」을 번역하고 이해함으로써 정이의 학론이 공자, 안자의 학론과 일치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진정한 학문을 이해하는 것은 자신이 영원무한한 생명과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셋째, 정이시대 학문위기와 현대중국 학문위기의 유사성을 탐구함으로써 감정과학이 현대중국 학문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확인한다.

연구 성과는 세 가지가 있는데, 서술은 아래와 같이 서술한다.

첫째, 학문의 진리는 영원무한한 생명과 사랑이다.

둘째, 몸과 감정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것은 신체의 진상을 탐구하고 진정한 학문을 배우는 기초이다.

셋째, 학술 연구자들은 자신의 본성에 따라 연구에서 진정한 행복을 느낀다. 학과 필연성에서 학문을 연구하면 영원히 무한한 진보를 이룰 수 있다.

주제어: 몸, 감정, 논어, 안자호학론

## 제1장 현대 중국 학문의 위기

### 제1절 서론

우리 모두는 ‘몸’(身體)으로 생겨나서 ‘몸’으로 살아간다. 이 사실을 국민대학교 문화교차학은 ‘몸-생김으로 몸-놀이한다.’는 명제로 요약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몸으로 시간과 공간에서 생활한다. 생겨난 몸을 ‘몸-생김’이라 부른다. 우리의 몸은 부모로부터 생겨난 것이므로 몸은 생겨난 것이 분명하다. 생겨난 우리의 몸은 자신만의 공간과 시간을 살아간다. 이것을 ‘몸-놀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것은 구체적으로 ‘감정’으로 드러난다. 우리가 몸으로 생겨나 몸으로 놀이하는 한에서 이 사실은 영원불변이다.

이 사실로부터 인간이 연마하는 학문의 기초는 당연히 ‘몸’에 대한 올바른 이해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몸으로 생활하고 감정을 느낀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학문의 기초는 우리 자신의 ‘몸-생김’과 그것의 놀이로서 ‘감정’을 배우고 이해하는 것이다. 이 이해를 위한 학문이 국민대학교의 ‘문화교차학’이다. 우리 모두는 자기 몸으로 생겨나서 자기 몸으로 놀이하며 감정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보편적으로 반드시 배워서 알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몸에 대한 참다운 이해에 있다. 본 논문은 이 학문론을 21세기 학문으로서 제시하고자 한다.

몸에 대한 참다운 이해를 몸-생김과 몸-놀이로 구분하고 나면, 이해의 올바른 순서는 몸-생김으로부터 몸-놀이이다. 이것은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전제한 선후(先後)가 아니라 몸에 고유한 ‘인식의 순서’이다. 이와 같이 몸에 대한 이해를 생김과 놀이로 나누어 말하고 나면, 몸-놀이는 엄밀히 말해서 공간과 시간이 아니라 생겨난 몸이 자신의 놀이에서 자기 스스로 느끼는 ‘감정’이다. 이 이유로 문화교차학이 이해하는 몸-놀이는 공간과 시간이 아니라 ‘감정’이다. 이 이유로 문화교차학은 감정에 대한 타당한 인식으로서 ‘감정과학’이다.

문화교차학의 논리에 근거하여 학문의 핵심을 감정에 대한 타당한 인식에 둘 때, 이 인식을 위한 학문이 문화교차학의 감정과학이다. 이 사실에 기초하여 감정과학의 요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몸-생김의 진실을 우리가 이해하면, 그 진실에 근거하여 몸-놀이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으며, 따라서 무한한 방식으로 무한히 새로운 감정을 현상이 아닌 감정 그 자체의 진실에 근거하여 타당하게 이해할 수 있다. 감정에 대한 타당한 인식은 현상에 대한 해석이 아니라 그 자체의 진실에 있다.



이상, 문화교차학파에 입학하여 내가 깨달은 학문의 진실이다. 그러므로 나는 내가 깨달은 학문의 진실에 근거하여 현대 중국의 학문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현대 중국의 학문이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우선, 현대 중국의 학문이 처한 위기를 정리하고 그에 대한 원인을 분석한다. 다음으로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안연의 학문에 대한 공자와 정이의 평가를 감정과학으로 분석하고, 그에 근거하여 학문의 본질과 기능을 정리하겠다. 끝으로 안연의 감정과학에 입각하여 현대 중국 학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 제2절 위기분석과 문제제기

### 1. 현대 중국 학계의 진단

최근 몇 년 동안 중국 학계(學界)는 학문의 본질과 방향에 대해서 근본적인 성찰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학문연구 환경과 학자 자신의 창의적인 연구 및 도덕적 소양 모두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된 논의들을 중국에서 발표된 연구 논문과 신문 기사를 중심으로 정리하겠다.

#### 1) 연구 보고서

##### (1) 길림대학 연구보고서

본 보고서에 의하면, 중국 학문에는 ‘삼대’(三大) 위기가 있다고 한다.

학문의 권리와 지위가 불공평하고, 학과 발전이 불균형하며, 학문 연구의 혁신성이 부족하다.<sup>1)</sup>

이 보고서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야 할 것은 ‘학문의 불공평’과 ‘연구 혁신성의 부족’이다. 학문에 참여한 연구자들 사이의 연대의식의 결여와 창의적인 연구

---

1) 張福貴(장부귀), “現代中國學問危機的三大主要症狀(현재 중국 학문 위기의 세 가지 주요 증상),” 『學術界(학술계)』 제11기(安徽省社會科學界聯合會(안휘성 사회과학계 연합회), 2011), p. 51. ※ 인용문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中國學術三大問題是：學問的權力與地位的不公平、學科發展不均衡、學問研究創新性不足。”

가 부족하다는 것이 현대 중국의 학문이 처한 위기임을 알 수 있다. 이 위기에 관하여 아래에서 살펴보는 중국 「사회과학보」(社會科學報)는 중국 학문의 위기가 학자 자신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 (2) 중국 사회과학보

중국 사회과학보는 길림대학 연구보고서와 같은 맥락에서 현대 중국 학문의 위기를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

중국 학문 문제가 외부 환경에 있지 않고 학자 스스로 열심히 연구하지 않는다.<sup>2)</sup>

연구의 혁신성이 부족한 이유는 근본적으로 학자 스스로 자신의 연구를 열심히 않은 데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위 보고서는 중국 학문의 위기를 학자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연구자가 자신의 감정을 느낄 수 있을수록 연구의 혁신과 창의성이 높아진다. 연구를 하고 싶은 감정은 연구를 추진하는 중요한 원동력이다. 연구자들은 자신의 감정에 나아가 감정을 이해함으로써 자기 연구의 방향 및 창의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연구자들이 자신의 감정을 자각(自覺)하지 못하면 연구자는 근본적으로 자기가 무엇을 연구하고 싶어 하는지 알 수 없게 된다. 그 결과 연구의 창의성과 혁신성은 그 즉시 상실하게 된다.

## 2) 신문 기사

### (1) 두정망(豆丁网) 뉴스

중국 사회과학보가 현대 중국 학문의 위기를 연구자의 연구를 향한 진실성의 결여에서 찾고 있다면, 이와 다른 측면에서 두정망 뉴스는 현대 중국의 학문이 직면한 학문의 위기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순전히 중국 전통문화와 학문을 연구하는 학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sup>3)</sup>

---

2) 曾昭禹(정소우), “學問危機最重要的問題在學者自身(학문 위기의 가장 큰 문제는 학자 자신이다),” 『中國社會科學報(중국사회과학보)』 제132기(中國社會科學院(중국사회과학원), 2010). ※ 인용문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中國學問問題不在外部環境而在學者自身是否努力。”

두정망 뉴스에 의하면, 현대 중국 학문의 위기는 학문의 평등이나 혁신 또는 연구 자세가 아니다. 보다 근본적으로 연구 중심의 학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위기를 지적한다. 연구자들 스스로 연구를 향한 욕망이 분명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연구하고 싶은 감정을 느끼지 않으면 학문의 위기가 반드시 나타날 것이다.

## (2) 인터넷 뉴스

연구 중심의 학자가 줄어든 배경에 대해서 인터넷 뉴스는 다음과 같이 직설적으로 언급한다.

학문의 위기는 학문을 연구하고 진리를 추구하지 않고 외부 이익을 구한다.<sup>4)</sup>

뉴스에 따르면 학문은 진리를 추구하지 않으며, 오직 이익만을 구하는 지경에 처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 연구 보고서와 신문 기사를 종합하면 현대 중국 학문의 위기는 학문으로 진리를 연마하는 것이 아니라 학문으로 진리 이외의 경제적인 부(富) 같은 외부 이익을 탐하는데 있다고 볼 수 있다. 학문을 향한 욕망의 진실이 연구를 책임지는 자기 스스로에게 분명하지 않은 것이다.

## 2. 위기의 원인분석 및 문제제기

앞에서 살펴본 현대 중국 학문의 위기는 다음과 같이 4 가지로 요약된다.

- ① 연구자 사이의 불평등과 연구 혁신의 결여
- ② 연구자의 연구 원동력 상실
- ③ 전통 학문에 대한 연구 종사자들의 감소
- ④ 학문의 본질 상실

---

3) 張祥龍(장상룡), “中國傳統文化研究學者逐漸減少(중국 전통문화 연구학자들이 점차 줄고 있다),” <http://www.docin.com/p-2787264486.html>(검색일: 2016. 2. 16). ※ 인용문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潛心研究中國傳統文化和學問的學者越來越少。”

4) 論文網(논문망), “學問危機是不研究學問真理反而追求外部利益(학문의 위기는 학문의 진리를 연구하지 않고 외부 이익을 추구한다.)” <https://www.lunwendata.com/thesis/2016/86336.html>(검색일: 2016. 11. 10). ※ 인용문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學問危機是不研究學問真理反而追求外部利益。”

위의 요약에 근거하여 본 논문은 현대 중국이 겪고 있는 위기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에 따라서 문제를 제기하겠다.

## 1) 위기의 원인분석

현대 중국의 학문이 처한 위기에 관하여 우리가 참고할 만한 것은 중국 ‘서화사범 대학교 고등교육연구소’(西華師範大學 高等教育研究所)의 위기분석이다.

중국 고등학교의 학문 위기의 원인은 학문 주체의 가치관이 부족하고 학문평가 메커니즘이 미비하다는 뉴스를 발표했다.<sup>5)</sup>

서화사범대 고등교육연구소는 학문의 위기를 중국의 고등학교 과정에 국한하여 살펴보고 있다. 그러나 이 주제는 학문의 가치관에 대한 분석이기 때문에 학문 일반에 적용될 수 있다. 근본적으로 학문에 임하는 자세를 통찰하고 있기 때문에 본 논문은 이 주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할 것은 “학문 주체의 가치관이 부족”하는 것이다. ‘가치관의 부족’은 ‘사실’에 대한 확인이 분명하지 않을 때 발생한다. 학문 주체에게 가치관이 부족하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자기 스스로 왜 학문을 연마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학자 스스로 학문을 연마해야 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하면, 그 즉시 학문의 가치관이 부재(不在)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로부터 학문에 위기가 찾아오지 않는다면, 그것에 오히려 이상한 것이다.

이 주제를 ‘과학망’(科學網)의 분석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과학망의 분석에 의하면, 연구자들의 나이와 경력도 학문 위기를 일으키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

학술중년기는 앞날이 막막하고 사고에서 문제가 생기고 생활 스트레스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sup>6)</sup>

---

5) 魏紅梅(위홍매), “現代學術危機與原因分析(대학의 학술 위기 및 원인 분석),” 『攀枝花學院學報(만지화대학 학보)』 제28기(攀枝花人民政府(만지화 인민정부), 2011). ※ 인용문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中國高等中學的學術危機原因是學術主體價值觀不足, 學術評價機制不完善”

6) 肖建華(쇼건화), “中年學術危機(중년학술위기),” <https://mp.weixin.qq.com/>(검색일: 2021. 7. 23). ※ 인용문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學術中年時期前途渺茫, 思維出現問題, 面臨生活壓力”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중년에 접어든 학자들이 일반적으로 겪게 된다는 연구의 모호성과 생활의 스트레스이다. 왜 이런 뜻하지 않은 결과가 초래하게 되는지 생각해 보면, 문제의 답을 바로 앞에서 검토한 ‘서화사범대 고등교육연구소’의 분석에서 찾을 수 있다. 연구에 이제 막 발을 디딘 초학자가 자기 스스로 학문의 진성과 진실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로부터 중년의 연구자가 겪는 위기를 피할 수 없다.

이는 근본적으로 학문을 향한 욕망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결여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학문을 행복으로 욕망하지 않으면 그 어떤 학문에 대해서도 연마하겠다는 결정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학문을 향한 욕망과 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대학에 입학하고, 이후 연구자로서 직업을 갖는다면 결국 연구자 본인 스스로 학문의 가치관이 분명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따라서 현대 중국의 학문이 위기에 놓이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현대 중국이 겪고 있는 학문의 위기에 대해서 그 원인을 학문의 본질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결여한 학자의 무지(無知)에 둔다. 이때 학자의 무지(無知)란, 학자의 능력에 관한 것이 절대 아니다. 학문을 연마하는 학자의 기초 능력이나 자질이 아니라 학자 스스로 학문의 본질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무지(無知)는 학자로서 학문을 연마하는 가치관을 상실을 불러올 뿐만 아니라 자신의 학문 영역에 있어서 방향 감각을 상실하는 비극을 초래한다.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본 논문은 학문의 본질을 살펴보겠다.

## 2) 문제 제기

위와 같이 현대 중국 학문의 위기를 분석하면, 지금 당장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밝혀야 할 것은 올바른 학문론 또는 학문의 본질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다. 왜냐하면 학문의 본질이 분명할 때 학문의 가치가 분명하며, 이것으로 학문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학문의 ‘가치’를 설정하기 이전에 학문에 고유한 그 자체의 ‘본질’을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학문의 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중국 학문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법은 학문의 ‘본질’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다. 학문의 본질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할 때, 학문의 주체는 학문의 본질을 따라서 자신의 학문을 연마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문화교차학’의 실질로서 ‘감정과학’이다. 감정과학은 몸-생김의 진실을 명확하게 이해함으로써 몸-놀이의 진실을 명백하게 이해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

리가 몸-놀이를 학문으로 이해하는 한에서 학문의 본질은 당연히 몸-놀이의 진실 안에 존재한다는 것은 필연적이다.

우리가 학문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것의 진실을 몸-놀이의 진실로부터 연역해야 한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결국 학문의 본질은 몸-놀이에 앞섬과 동시에 몸-놀이의 본성을 규정하는 몸-생김의 진실 안에 존재한다. 학문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한 시작과 끝을 이렇게 이해하면, 현대 중국이 겪고 있는 학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법은 감정과학에서 찾을 수 있다. 감정과학이 무엇인지 이해하면, 그것이 곧 학문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다.

학문의 본질을 이해하면, 연구자들은 각자 자신만의 연구를 그 안에서 진행할 수 있다. 학문의 본질을 따르는 연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의 논의가 이 지점에 이르면, 우리에게 제기되는 문제는 감정과학에 대한 분명한 정의이다. 이 물음과 관련하여 본 논문은 성동권의 ‘감정과학’에 주목한다. 성동권은 『유교문화의 정초 공자의 감정과학』에서 ‘감정과학’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감정과학’(Science of Feelings)은 무한한 방식으로 무한한 감정을 감정 그 자체의 본성으로 이해하는 학문입니다. 감정의 겉모습 같은 현상이나 감정에서 비롯된 어떤 행동 및 그 결과에 의존하여 감정을 해석하는 ‘감정 해석’이 아닙니다. 감정은 자기 존재에 관한 한 자기 본성의 필연성을 따라서 존재한다는 사실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사실에 근거하여 우리 자신이 무한한 방식으로 무한하게 감정을 느낄 때 그 각각의 감정에 나아가 그 감정이 자기 안에 본래부터 품고 있는 자기 본성의 필연성을 이해하고, 그 결과 감정의 순선무악(純善無惡)을 확인하는 학문이 감정과학입니다.<sup>7)</sup>

성동권에 의하면, 감정과학은 감정해석이 아니다. 감정 자체의 본성을 인식하는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결론은 필연적이다.

감정에 대한 이해를 무한한 현상이 아닌 그에 고유한 본성의 필연성으로 형성하는 한에서, 그것이 곧 학문의 본질에 대한 이해이며 이 이해로부터 학자들은 자기 연구에서 연구의 확실성을 담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연구의 명확한 방향을 세울 수 있다. 그리고 학자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하면, 학자는 절대적으로 학문에서의 가치관의 부재 및 학문의 원동력 상실 같은 비극을 피할 수 있다. 왜냐하면 자기 연구에서 연구의 확실성은 연구에 대한 행복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행복은 절대 지치지 않는다.

---

7) 성동권, 『유교문화의 정초 공자의 감정과학』 (부크크, 2022), p. 221.

현대 중국이 겪고 있는 위기적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감정과학을 제시하였으므로, 본 논문은 이 주제를 중국의 전통 학문에서 확인하고자 한다. 감정과학을 우리 중국의 전통학문에서 찾을 수 있다면, 이 발견으로부터 중국은 엄밀히 말해서 자기 본래의 학문 전통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 연구에는 두 가지 장점이 있다. 하나는 우리 중국의 전통학문을 감정과학으로 새롭게 조명함으로써 전통에 지금 현재 21세기의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다. 다른 하나는 감정과학으로 중국 학문의 위기를 극복하는 한에서 중국의 미래는 밝다는 것이다.

감정과학을 중국의 전통학문에서 찾을 때, 본 논문은 중국 학술 문화의 기초를 놓은 공자(孔子)를 만나게 된다. 성동권은 공자의 학문을 ‘감정과학’으로 증명하였다.

공자의 학문은 “성리(性理: 몸의 本然之性): 몸-생김 그 자체의 필연성”을 명석판명하게 이해하고 그에 근거하여 “정리(情理: 감정의 本然之情): 몸-놀이 그 자체의 필연성”을 이해합니다. 이 이해에 근거하여 공자는 몸-생김의 무한성을 ‘순선무악’(純善無惡)으로 타당하게 이해하는 것과 같은 논리로 몸-놀이의 무한성을 ‘순선무악’(純善無惡)으로 확인합니다. 이 결론으로부터 공자의 학문을 감정과학으로 증명하려는 우리의 노력은 성공합니다. 따라서 공자의 학문은 ‘감정과학’이며, 공자의 학문에 의해서 정초된 유교문화의 본질 또한 ‘감정과학’입니다.<sup>8)</sup>

본 논문은 공자의 학문을 감정과학으로 정리한 성동권의 논리에 입각하여, 공자의 학문을 다시 읽고 이해함으로써 자신이 처한 학문의 위기를 극복하려고 한 중국 중세시대 북송(北宋)의 정이(程頤, 1033~1107)의 사상을 감정과학으로 밝히고자 한다. 특히 그의 사상에서 가장 핵심적인 지위를 점하고 있는 「안자호학론」(顔子好學論)을 감정과학으로 증명하겠다. 이 증명에 근거하여 현대 중국이 겪고 있는 학문의 위기에 관한 극복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위와 같은 본 논문의 시도는 두 가지 측면에서 매우 유의미하다.

① 북송 시대의 정이(程頤)로부터 남송(南宋) 시대의 주자(朱子, 1130~1200)에 이르는 성리학을 감정과학으로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공자의 학문이 감정과학으로 증명되었으므로, 공자의 학문을 계승하는 정이와 주자의 학문을 감정과학으로 증명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② 다른 하나는 본 논문의 주제와 직결되는 것으로서, 우리가 고대 중국의 춘추시대로부터 중세 중국의 남송에 이르는 유교문화(儒敎文化)의 학문을 감정과학

8) 성동권, 『유교문화의 정초 공자의 감정과학』 (부크크, 2022), p. 238.

으로 이해하는 한에서 이 이해는 학문의 본질에 직결되기 때문에 이것으로 현대 중국의 학문위기를 근본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중국의 전통 학문으로 공인된 유교 사상을 탐구함으로써 현대 중국이 처한 학문의 위기를 극복할 방법을 찾아보겠다. 보다 구체적으로 춘추(春秋) 시대 공자의 학문과 그에 기초하여 새롭게 전개된 학문 운동으로서 북송(北宋) 시대 정이(程頤)의 학문론을 공자의 제자 가운데 호학(好學)의 열정으로 가득한 안연(顔淵)에 집중하여 탐구하겠다. 이러한 탐구에 의해서 중국 전통 학문에서 가장 중요한 유교의 학문을 감정과학으로 새롭게 정의하고 그에 근거하여 현대 중국이 처한 학문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겠다.

### 제3절 연구방법 및 연구범위

#### 1. 연구방법: 감정과학

본 논문의 목적은 북송 시대 정이의 「안자호학론」을 감정과학으로 증명하고, 그에 근거하여 학문의 본질을 밝히고 궁극적으로 현대 중국이 처한 학문의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논문의 목적에 비추어봤을 때, 논문의 연구방법은 당연히 ‘감정과학’(Science of Feelings: 感情科學)이다. 성동권은 감정과학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감정과학은 무한한 방식으로 무한하게 느끼는 감정에 나아가 그 자체에 고유한 본성의 필연성을 인식하고 그것으로 감정의 순수지선을 배우는 학문입니다.<sup>9)</sup>

우리가 우리 몸으로 산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감정은 신체의 변용으로서 ‘몸’의 사건이다. 절대적으로 ‘마음’의 사건이 아니다. 몸-놀이는 그 실상이 몸이 느끼는 감정이다. 마음은 그에 대한 관념을 형성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몸 그 자체에 고유한 본성의 필연성을 이해하면, 몸-생김으로부터 몸-놀이라는 감정과학의 공리(公理)에 근거하여 우리는 신체적 사건으로서 감정을 감각적 현상이 아닌 그 자체에 고유한 본성의 필연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감정과학의 논리를

---

9) 성동권, 『서양 고대 그리스 감정과학의 태동』(부크크, 2021), p. 10.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다.

### 1) 감정과학의 공리(公理)

감정은 ‘몸’이 느끼는 ‘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몸의 이야기로부터 감정의 이야기가 당연히 연역됩니다.

### 2) 감정과학의 논리(論理)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몸에 나아가 몸 그 자체에 고유한 본성의 필연성을 확인할 수 있다면, 감정을 몸이 하는 말로 이해하는 한에서 감정과학의 공리에 근거하여, 몸 그 자체의 고유한 본성은 당연히 우리가 공간과 시간을 살아가며 몸으로 느끼는 감정 그 자체에 고유한 본성의 필연성으로 존재합니다. 이것으로 감정은 자기 몸 그 자체의 진실을 자기 본성으로 삼아 오직 그 본성만을 따라서 존재한다는 필연성이 확인됩니다. 무한한 방식으로 무한한 감정은 자기 안에 자기 본성을 품고 그것을 따라서 필연적으로 존재합니다.<sup>10)</sup>

우리가 과학을 ‘필연성’에 대한 명명백백한 이해로 정의하는 한에서, 감정을 그에 고유한 본성의 필연성으로 이해하는 학문이 감정과학이다.

감정을 그 자체의 본성의 필연성으로 이해하는 감정과학은 그 존립 근거가 감정을 느끼는 몸이다. 왜냐하면 생김의 몸으로 놀이하는 것이 몸이 느끼는 감정이기 때문이다. 이 사실로부터 감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그 시작을 몸의 생김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 할 수밖에 없다. 몸의 생김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분명할 때, 생김으로 놀이하는 몸이 느끼는 감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확립된다.

그러므로 감정과학의 정의와 그로부터 나오는 ‘인식의 순서’를 분명히 하고 나면, 감정과학에 기초한 본 논문의 연구 방법은 당연히 ‘몸-생김’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하고 그에 근거하여 생김의 몸이 느끼는 ‘감정’에 대한 인식을 올바르게 확인하는 것이다. 이에 본 논문은 감정과학에 근거하여 유가사상 가운데 핵심인 안연(顔淵)의 호학(好學)을 선진(先秦) 시대 유학자 공자와 중세 시대 북송(北宋)의 정이(程頤)에 근거하여 탐구하겠다. 그 결과 현대 중국이 처한 학문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연구범위

---

10) 성동권, 『유교문화의 정초 공자의 감정과학』 (부크크, 2022), pp. 14-15.

본 논문의 연구범위는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장은 중국 고대 춘추시대(春秋時代)의 ‘공자’(孔子)와 그의 충실한 제자로서 공자의 학문을 요약한 ‘안연’(顏淵)의 생애와 학문을 다룬다. 제3장은 중국 중세 북송(北宋) 시대의 성리학자(性理學者) ‘정이’의 생애와 학문을 다룬다. 특히 공자와 안연의 학문에 근거하여 학문의 본질을 탐구한 정이의 「안자호학론」(顏子好學論)을 집중적으로 탐구한다. 제4장은 2장과 3장에 근거하여 본 논문의 궁극 목표인 현대 중국 학문의 위기극복 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본 논문의 2장은 공자와 안연의 학문론을 감정과학으로 증명한다. 감정과학의 이론에 근거하여 본 논문은 공자와 안연의 학문론을 분석하여 진정으로 좋은 학문은 자신의 몸과 감정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자기 몸의 진상을 자명하게 이해하는 것임을 증명하였다. 이 증명에 입각하여 본 논문은 오직 감정과학만이 자신과 세계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방법임을 주장하는 바이다. 이와 같이 자기 ‘몸’과 자기 몸이 느끼는 ‘감정’의 진실을 이해할 때, 비로소 학문의 기초가 든든하게 확립된다.

본 논문의 3장은 북송의 성리학자 정이의 「안자호학론」을 감정과학으로 증명하는데 주력하였다. 정이의 생애를 간단히 살펴보았으며, 그에 근거하여 「안자호학론」에 대한 번역과 주석을 새롭게 시도하였다. 그 결과 북송(北宋) 시기의 성리학자 정이가 선진(先秦) 시대 공자와 안연의 학문론을 감정과학으로 이해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었다. 자신의 몸과 감정이 영원무한한 생명과 사랑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으며, 오직 이 인식을 향한 학문만이 참되고 올바르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본 논문의 4장은 2장과 3장에 입각하여 현대 중국 학문이 겪고 있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다. 이 방법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본 논문은 정이가 자신의 학문론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적 상황과 지금의 현대 중국이 처한 학문의 위기 상황이 원인에 있어서 유사하다는 사실을 검토했다. 정이가 공자와 안자의 학문에 근거하여 자기 시대의 학문론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파악함으로써 현대 중국 학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감정과학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상, 2장부터 4장에 이르는 본 논문의 핵심 연구 논점을 간략하게 제시하였다. 5장은 본 논문의 결론이다. 여기에서 논자는 1장에서 제기한 원인분석 및 문제제기를 다시 상기하였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로서 2장~4장의 논점을 다시 정리했다. 최종적으로 본 논문이 구체적으로 제기한 문제를 해결하였다. 끝으로 논자로서 마지막 당부를 간단히 제시하고 논문을 마무리 했다. 인간의 진실을 학문에 있다. 이 사실을 공자는 ‘학이시습지불역열호’(學而時習之不亦說乎)로 확인했다. 올

바른 학문론이 중요한 이유이다.

## 제2장 공자와 안연의 학문론

현대 중국의 학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전통 학문, 특히 유교 문화의 학문을 중시해야 한다. 왜냐하면 유교만이 몸에 대한 참다운 이해에 입각하여 몸이 느끼는 감정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유교 학문을 연구하려면 반드시 공자의 학문론부터 시작해야 한다. 왜냐하면 유교문화에 고유한 학문의 정체성을 확립한 선생님이 공자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으로 공자(孔子)의 『논어』(論語)를 읽어 보면, 핵심은 안연(顏淵)에 대한 공자의 평가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본 논문은 공자의 학문론을 이해하기 위하여 안연의 호학(好學)을 중심으로 공자와 안연의 학문론을 살펴보겠다.

### 제1절 공자와 안연의 생애

#### 1. 공자의 생애

공자(孔子, BC. 551~B. C. 479)는 춘추시대의 사상가이자 교육자이다. 공자는 자신의 몸을 중시하고 더 나아가 자기 몸을 배워서 이해한 사람이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자기와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에게도 자기 스스로 자기 몸을 이해하기를 권면하였다. 본 논문은 이 사실에 착안하여 공자의 생애를 정리하겠다. 종래에 지배적인 서술로서 공자의 생몰 연대, 활동, 및 역사적 자료와 신화를 적절히 혼합한 일대기적 구성으로 공자의 생애를 정리하는 것을 지양하겠다는 뜻이다.

##### 1) 자기 몸을 배우는 위기지학(爲己之學)

유교의 창시자인 공자는 학습을 통해 우리 자신이 본래부터 고귀하고 성스러운 성인(聖人)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가르침은 공자의 제자들이 기록한 『논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서 핵심은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의 몸을 배우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몸에 나아가 그에 고유한 진실을 이해할 때, 공자의 가르침을 지금 우리 자신의 진실로 이해할 수 있다.

공자는 배움의 진실을 다음과 같이 확인한다.

子曰: 古之學者, 爲己. 今之學者, 爲人.<sup>11)</sup>

여기에서 ‘고’(古)는 지금의 나와 먼 과거가 아니라 ‘본래’(本來)를 뜻한다. 그렇기 때문에 ‘고지학’(古之學)은 ‘옛날의 학문’이라는 아주 먼 과거의 공간과 시간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본래부터 학문이란’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 이에 입각하여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번역한다.

본래부터 학문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학문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는 버려두고 남을 위한다고 한다.

문제는 학문의 본질로서 ‘자기 자신을 위한다.’고 할 때 여기에서 ‘자신’이 무엇이냐는 것이다. 위와 같은 번역 및 그에 따른 질문에 관하여 성동권의 주장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고지학자(古之學者)”의 “古(古)”는 어떤 공간과 시간으로서 막연하게 ‘먼 옛날’이 아닙니다. 지금 이 공간과 이 시간에 존재하고 있는 ‘내 몸’의 “古”입니다. “古之學者”는 “위기(爲己)”이기 때문에 “爲己”의 ‘己’에게 ‘古’는 ‘己의 古’입니다. 즉, ‘나’(己)를 ‘위하는’(爲) 배움(學)은 내 몸의 ‘먼 옛날[古]을[之] 배우는[學] 것[者]’입니다. 지금의 ‘나’가 없으면 지금의 ‘남’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남’을 배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금의 ‘나’를 먼저 배워야 합니다. 이때 ‘나’를 참답게 배우는 방법은 나의 ‘먼 옛날’을 배우는 것입니다.<sup>12)</sup>

성동권에 의하면, 지금 ‘나’ 자신의 ‘몸’이 ‘고’(古)이다. 고(古)는 지금의 ‘나’와는 멀리 떨어진 과거의 공간과 시간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지금의 ‘나’가 없으면 그 어떤 학문도 세상도 존재할 수 없다. 이 사실에서 보면, 고(古)의 뜻을 우리가 학문으로 이해하는 한에서 ‘본래부터 학문이라는 것은’이라고 번역한 본 논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 학문의 본질은 자기 스스로 자기 몸을 이해하는 데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의 인용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공자는 자신의 전 생애에 걸쳐서 자기 몸을 배우는 데에 집중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이 사실을 공자의 생애로 이해한다. 공자의 생애는 오직 배움을 추구하는 것이며, 이 배움의

11) 『論語』, 「憲問」 25장.

12) 성동권, 『유교문화의 정초 공자의 감정과학』, p. 102.

핵심은 자기 몸에 대한 참다운 이해이다. ‘배움’(學)의 본질은 ‘爲己之學’, 즉 자기 스스로 자기 몸을 배워서 아는 것이다.

## 2) 자기 생명을 배우는 지천명(知天命)

공자의 생애가 자기 몸에 대한 올바른 인식에 있다는 사실로부터 다음과 같은 질문이 성립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 자신의 몸을 배운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두 가지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 ① 자기 몸의 진실을 이해할 수 있다.
- ② 학문의 본질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다.

이상, 두 가지 측면에서 본 논문이 접근하고 이해하는 논점의 중요성을 확인하면, 우리는 『논어』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자 완 오 십 유 오 이 지 우 학 삼 십 이 립 사 십 이 불 혹 오 십 이 지 천 명 육 십 이 이 순 칠 십 이  
子曰: 吾十有五而志于學, 三十而立, 四十而不惑, 五十而知天命, 六十而耳順, 七十而  
從心所欲, 不踰矩.<sup>13)</sup>

지우학(志于學)은 학문에 뜻을 두었다는 뜻이다. 당연히 여기에서 학(學)은 위기 지학이다. 자기 스스로 이해하는 자기 몸의 본질을 배우기로 결정했다는 뜻이다. 그 결과 깨닫게 되는 진실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공자가 들려주는 것은 지천명(知天命)이다. 즉, 자기 스스로 자기 몸에 대해서 배운 결과 천명(天命)을 분명하게 인식했다는 것이다. 이 지점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자기 몸을 배운 결과 천명(天命)을 인식했다는 것은 몸의 본질을 천명(天命)으로 이해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천명(天命)에 대한 이해의 기초는 반드시 자기 ‘몸’에 있다. 자기 ‘몸’을 떠나서 천명(天命)을 이해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것이다.

자기 몸에서 자기 몸의 본질로서 천명을 이해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13) 『論語』, 「爲政」 4장.

이 질문에 대해서 조중빈의 번역을 참고해 보자.

공자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15살에 공부하는 데 뜻을 둔 후 나이 30에 논리가 서고, 40에 마음이 유혹되지 않고 50에 내 팔자가 상팔자라는 것을 알고, 60에 무슨 얘기를 들어도 거슬리지 않고[다 예쁘게 들리고], 70에 중 된 마음[만 마음이 아님]이 원하는 비가 법도에 어긋나지 않았다.’<sup>14)</sup>

자왈 오십유오이지우학 삼십이립 사십이불혹 오십이지천명 육십이이순 칠십이  
子曰: 吾十有五而志于學, 三十而立, 四十而不惑, 五十而知天命, 六十而耳順, 七十而  
從心所欲, 不踰矩.<sup>15)</sup>

조중빈에 의하면 지천명(知天命)은 “내 팔자가 상팔자라는 것을 알고”를 뜻한다. 몸으로 생겨나 놀이하는 몸의 진실이 최고의 완전한 행복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또 다른 질문은 내 몸에 나아가 나 자신이 자명하게 이해하는 몸의 진실로서 ‘천명’(天命)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는 것이다. 이 물음에 대한 답은 공자가 그토록 중시한 ‘제사’(俎豆之事)에서 찾을 수 있다. 공자에 의하면 학문의 진실은 자기 몸에 나아가 천명(天命)을 이해하는 것이지만, 이 이해의 기초는 제사에 있다.

위령공문진어공자 공자대왈 조두지사 즉상문지의 군려지사 미지학야 명일수  
衛靈公問陳於孔子. 孔子對曰: 俎豆之事, 則嘗聞之矣, 軍旅之事, 未之學也, 明日遂  
行.<sup>16)</sup>

공자는 “조두지사(俎豆之事), 즉상문지의(則嘗聞之矣).”라고 했다. 이에 이어서 “군려지사(軍旅之事), 미지학야(未之學也).”라고 했다. 이것을 근거로 공자의 학문에서 핵심을 차지하는 것은 ‘제사’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지천명(知天命)을 이해하는 방법으로서 ‘제사’에 관하여, 우리는 이 주제를 반드시 우리 자신의 몸에 근거하여 이해해야 한다. 왜냐하면 몸을 배우는 학문의 결과 깨닫는 것이 지천명이며, 동시에 학문의 핵심은 제사에 있기 때문이다.

‘조두지사’(俎豆之事)는 말 그대로 돌아가신 부모나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조상은 부모의 부모이다. 따라서 우리에게도 다음과 같은 결론이 필연적이다. 제사를 뜻하는 조두지사는 엄마아빠를 뜻하는 ‘부모’(父母)의 무한 반복이다. 이것을 근거로 조두지사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지금 ‘나’의 몸에 관하

14) 조중빈 역설, 『안심논어』 (국민대학교 출판부, 2016), p. 324. (※ 일러두기: 본 논문이 인용하는 『논어』의 장(章)과 절(節)은 조중빈의 『안심논어』의 그것을 따른다.)

15) 『論語』, 「爲政」 4장.

16) 『論語』, 「衛靈公」 1장.

여 존재의 필연성을 확인하는 ‘엄마아빠’의 존재이다. 지금 ‘나’의 몸을 존재하게 한 엄마 아빠의 필연성이다.

‘엄마아빠’의 존재로부터 지금 ‘나’의 존재가 필연적이라는 사실은 영원히 변화하지 않는 인과의 필연성이다. 동시에 지금 우리 자신의 몸에 고유한 본성의 필연성이다. 이것을 성동권은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

공자에게는 ‘俎豆之事(조두지사)’가 ‘사람의 길’(人道)입니다. ‘俎豆之事(조두지사)’란, 부모로부터 태어난 ‘자식’이 돌아가신 ‘부모’를 잊지 않고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제사’입니다. 오직 인간만이 ‘제사’ 의식을 거행합니다. 인간 이외 그 어떤 생명체도 자기 존재의 기원으로 존재하는 부모와 그에 앞서는 조상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이 사실로부터 ‘사람의 길’은 ‘俎豆之事(조두지사)’에 있지 결코 ‘軍旅之事(군려지사)’에 있지 않습니다. 전쟁을 진리로 착각하며 살아가는 세상 한 가운데에서 공자가 눈 하나 깜짝 안하고 담대하게 ‘俎豆之事(조두지사)’를 배울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입니다.<sup>17)</sup>

자기가 자기 몸을 배운다고 할 때, 배움의 핵심은 자기 몸을 존재하게 한 본성의 필연성을 명백하게 이해하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핵심은 지금 나의 몸을 낳아 준 엄마아빠이다. 이 엄마아빠의 존재는 우리 자신이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 몸에 대해서 생각만 해 보면 그 즉시 자명하게 이해한다. 즉, 우리 자신의 마음이 자기 몸의 진실을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배우는 것이다. 인과에 고유한 존재의 필연성에 근거하여 우리는 이 진상을 자명하게 이해할 수 있다. 이것으로 ‘지천명’(知天命)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다.

공자는 어릴 때 제사를 지내면서 자신의 몸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자신의 몸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 결과가 자기 몸 안에 본성의 필연성으로 존재하는 ‘엄마아빠’이다. 왜냐하면 지금 내 몸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엄마아빠의 존재가 영원무한으로 반복되기 때문이다. 우리 자신의 몸에 대해서 우리 자신의 생각이 인과의 필연성에 근거하여 생각해 보면, 엄마아빠의 존재는 영원무한의 필연성이다. 이 필연성을 향한 배움의 결과 자기 스스로 이해하는 자기 몸의 필연성이 ‘지천명’(知天命)이다.

제사에 근거하여 자기 몸을 자기 스스로 이해하면, 엄마아빠의 존재는 영원의 필연성이다. 그리고 이 필연성은 당연히 몸으로 존재해야 한다. 엄마아빠의 존재를 영원의 필연성으로 확인할 때, 이 존재는 지금 ‘나’ 자신이 몸으로 존재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몸으로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몸이 몸을 낳아주기 때문이다. 엄마아빠의 몸이 영원의 필연성으로 존재하며, 이 존재로부터 지금 ‘나’의 몸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 진실이 지천명(知天命)이다.

17) 성동권, 『유교문화의 정초 논어의 감정과학』(부크크, 2022), p. 38.



그러므로 우리는 공자의 생애를 보다 더 구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 자기 몸에 대해서 명확한 인식을 추구한 공자는 자기 몸에 고유한 영원의 필연성으로서 엄마아빠의 존재를 확인했다. 엄마아빠의 존재로부터 자기 존재의 필연성을 이해한 것이 공자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하다. 이 사실은 공자의 생애를 이해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공자의 생애를 공간과 시간 속에서 이루어진 감각적 현상이나 사건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이러한 방식으로 공자의 생애를 기술하고 이해하면, 공자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는 비극을 초래한다.

### 3)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

공자의 학문론은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설명했다. 핵심은 우리 몸의 생김에 고유한 진실을 배움으로써 몸의 본성을 필연성 그 자체로 자명하게 이해하는 것이다. 이때 핵심은 천명이다. 그리고 그 실질은 엄마아빠의 몸이다. 이 몸은 영원의 필연성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영원의 생명이며, 이 생명으로부터 공자의 몸(지금 ‘나’의 몸)이 생겨났으므로 이 생명의 진실은 영원의 생명이다.

이상의 논의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공자의 생애가 자기 몸에 대한 올바른 인식에 근거하여 자기 몸의 생김에 고유한 본성의 필연성으로서 엄마아빠의 존재를 영원의 필연성으로 이해한다는 것이다. 이 이해의 결과는 공자 스스로 자기 ‘몸-생김’의 진실로서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을 깨달았다는 것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공자의 생애가 감정과학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공자가 자신의 생애를 통해서 배우고 싶었던 것은 감정과학의 논리적 기초로서 몸-생김의 진실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논어』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공자의 학문에 근거하여 공자의 일생을 이해하면, 공자의 일생에 대한 가장 올바른 설명은 그가 천명으로 태어나 천명으로 살아가 천명으로 죽었다는 사실이다. 공자는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 안에서 태어나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 안에서 살다가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 안에서 죽었다. 이 사실이 바로 본 논문이 정리하고 새롭게 밝히고자 하는 공자의 생애이다. 공자의 생애는 자기 생명의 진실로서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을 깨달은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자의 생애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감정과학이 이해하는 공자는 공자의 몸이 공간과 시간 속에서 어떤 역사적 기록으로 존재했는지 확인하는데 있지 않다. 『논어』의 감정과학으로 이해하는 공자의 생애는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 안에서 몸으로 생겨나 몸으로 놀이하며 살았다는 사실이다. 즉, 공자는 자기 몸에 대한 참다운 이해로 자신이 느끼는 감정에 대한 참다운 이해로 살았다. 이것이 공자의 생애이다. 공자의 일생에 대한 가장 올바른 설명은 그가 천명으로 태어나 천명으로 살아가 천명으로 죽었다는 사실이다.

## 2. 안연의 생애

### 1) 공자의 학문 계승

안연은 공자가 가장 좋아하는 제자로 공자는 늘 그를 ‘호학(好學)’, ‘인인(仁人)’라고 칭찬했다. 그런데 공자의 학문은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무엇보다도 자기 몸을 배워서 자기 몸이 천명으로 생겨나 놀이한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 진실에 입각하여 보면, 안연의 생애 또한 공자의 그것과 다를 수 없다. 우리는 다음의 인용에서 안연 학문의 기초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다.

안연이 ‘휴우!’하고 경탄하며 말했습니다. ‘올려다볼수록 더욱 높아지고, 뚫을수록 더욱 여물어지고, 뒤에 계신 것[前]을 우러러보았는데 홀연히 앞서 가신다[後]. 선생님은 물 흐르듯 사람을 잘 이끌어주시는데 나를 글로써 넓히시고, 예[논리]로써 묶어주셨다. 그만두려 해도 그만둘 수 없고, 이미 내 재주는 다했는데 선생님의 세우신 것이 우뚝 솟은 태산과 같으니 비록 따르고자 하나 따라갈 방도가 없다.’<sup>18)</sup>

안연 위연탄왈 仰之彌高 鑽之彌堅 瞻之在前 忽然在後 夫子循循然善誘人 博我以文 約我以禮 欲罷不能 既竭吾才 如有所立卓爾 雖欲從之 末由也已<sup>19)</sup>

안연은 “선생님은 물 흐르듯 사람을 잘 이끌어주시는데 나를 글로써 넓히시고, 예[논리]로써 묶어주셨다. 그만두려 해도 그만둘 수 없고, 이미 내 재주는 다했는데 선생님의 세우신 것이 우뚝 솟은 태산과 같으니 비록 따르고자 하나 따라갈 방도가 없다.”라고 말했다. 이것을 근거로 보면, 안연의 학문이 공자의 학문에서 연원한다는 사실은 명백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자의 학문에 근거하여 확인한 공자의 생애와 안연의 생애가

18) 조중빈 역설, 『안심논어』 (국민대학교 출판부, 2016), p. 217.

19) 『論語』, 「子罕」 10장.

본질적으로 일치한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증명할 수 있다. 바로 앞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공자의 생애가 곧 공자의 학문이며, 이때의 핵심은 자기 몸의 진실로서 천명(天命)이다. 즉, 몸-생김의 진실로서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이 그것이다. 따라서 안연의 생애 또한 공자의 그것과 같은 방식으로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 안에 있다. 이것이 본 논문이 정리하는 안연의 생애이다.

## 2) 생명의 논리로서 공자의 예(禮)

앞의 증명에 이어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하는 중요 논점은 ‘예’(禮)이다. 공자가 안연에게 집중적으로 가르친 것은 예(禮)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예’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행동준칙이나 도덕법칙으로 이해하는 것은 앞에서 정리한 공자의 생애에 근거하여 봤을 때 옳바르지 않다. 왜냐하면 공자의 생애에서 우리가 확인한 것은 몸에 고유한 논리적 질서의 필연성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핵심은 몸-생김 그 자체에 고유한 본성의 필연성이다.

이 사실에 근거하여 우리는 공자가 안연을 가르친 ‘약아이례’(約我以禮)를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다. 나(我)는 몸-생김으로 놀이한다. 즉, 생김의 몸으로 놀이하며 감정을 느끼는 존재가 바로 ‘나’(我)이다. 그러한 ‘나’를 예(禮)로 요약(要約)한다고 할 때, 이때의 예(禮)는 몸-생김에 고유한 논리적 필연성으로서 논리가 아니면 안 된다. 왜냐하면 공자의 배움은 위기지학(爲己之學)으로서 ‘나’(我)를 배우는 학문이며, 이때 배움의 공효(功效)는 천명(天命)을 자기 몸에서 배우는 것이기 때문이다.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 안에서 생겨나 그 생김의 진실 그대로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 안에서 놀이하며 감정을 느낀다는 것이 공자가 천명(天命)의 필연성으로 확인하는 내 몸의 논리이다. 이 논리가 ‘약아이례’(約我以禮)이다. 이 논리가 분명하기 때문에 안연은 자기가 느끼는 감정을 자기 몸에 고유한 논리로 이해할 수 있었다. 이 이해가 분명하기 때문에 안연은 학문을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둘 수가 없다. 왜냐하면 학문의 논리가 명백한 이상, 이 학문은 절대적으로 그 어떤 불가지(不可知)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안연의 생애를 정리할 수 있다. 안연은 마침내 선생님의 ‘약아이례’(約我以禮) 덕분에 자기 스스로 자기 몸에 나아가 자기 몸의 진실을 이해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자기 스스로 자기 감정의 진실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더 이상 선생님께 의존하거나 자기 아닌 다른 것에 학문을 의존하는 수동적 인식으로부터 자신을 자유롭게 할 수 있었다. ‘수욕종지(雖欲從之), 말유야이(末由也

已)’는 더 이상 선생님을 따라하며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를 배우는 위기지학(爲己之學)의 진리에 들어갔다는 것을 뜻한다.

## 제2절 공자의 감정과학

여기에서는 공자의 생애에 근거하여 공자의 학문론을 감정과학으로 증명하겠다. 연구방법에서 이미 자세히 설명한 바와 같이 감정과학의 논리는 몸-생김에 고유한 본성의 필연성을 이해하고, 그에 근거하여 몸-놀이로서 감정에 고유한 본성의 필연성을 이해하는 것이다. 공자의 학문론이 이러한 필연성을 확인하는지 검토함으로써 공자의 학문을 감정과학으로 입증하겠다.

### 1. 天子로 생겨난 ‘나’

#### 1) 자기 ‘몸’에 대한 생각의 자기이해

감정과학은 감정의 본성을 이해하는 과학이다. 감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지금 우리가 느끼는 감정에서 출발하여 감정 자체의 진실로 돌아가는 것이다. 감정에 고유한 자기 본성의 필연성에 근거하여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을 이해할 때, 그 이해가 곧 감정에 대한 타당한 인식이다. 이 인식이 중요한 이유는 오직 이 인식만이 감정이 순수지선하며 영원무한하다는 사실로 인도하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방법의 기초는 ‘몸-생김’의 진실을 이해하는 것이다. 생김의 몸으로 놀이하며 감정을 느끼는 것이 몸의 진실이기 때문에 이러한 인식의 순서는 지극히 타당하다.

위와 같이 인식의 순서를 확인하고 나면, 감정과학의 핵심은 절대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의 현상’이나 그것을 위한 ‘의지력’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이 사실에 대한 확인이 매우 중요하다. 배움의 핵심은 인식하는 것이다. 인식은 엄밀히 말해서 의지력과 다른 것이다. 인식을 위한 의지력은 본래 없다. 인식은 생각하고 배워서 이해하는 것이므로 생각은 자신에게 고유한 생각의 질서를 따라서 생각하는 것이다. 이것을 위해 의지력이 별도로 필요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위와 같은 인식의 진실을 공자도 다음과 같이 확인한다.

공자가 말씀하셨습니다.

‘활쏘기가 과녁 뚫기가 아니라 과녁 맞히기인 것은 사람마다 힘이 같은 체급[科]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것이 원래의 도[道]이다.’<sup>20)</sup>

자 완 사 부 주 피 위 력 부 동 과 고 지 도 야  
子曰: 射不主皮, 爲力不同科, 古之道也.<sup>21)</sup>

공자에 의하면 활쏘기에서 중요한 것은 힘이 아니다. ‘위력부동과’(爲力不同科)라고 말했다. 이것을 근거로 우리에게 확실한 사실은 공자의 학문이 힘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 사실은 엄밀히 말해서 의지력에 직결된다. 학문은 의지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왜냐하면 활쏘기에서 힘을 강조한다는 것은 힘을 내는 의지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활쏘기에서 힘이 필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과녁을 뚫을 필요가 없다는 것은 사실상 활쏘기의 핵심이 과녁에 집중해야 한다는 사실을 뜻한다. 그렇다면 학문을 활쏘기에 비유했을 때, 학문의 과녁은 무엇일까? 당연히 이미 공자가 학문의 진실을 위기지학이라고 정의했기 때문에 학문의 과녁은 우리 자신의 몸이 아니면 안 된다. 활쏘기의 핵심이 과녁에 적중하는 데에 있다면, 학문의 핵심은 자기 몸에 적중하는 데에 있다. 자기 몸에 대한 생각 안에서 자기 몸을 배우는 것이 공자의 학문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자의 학문이 자기 몸에 대한 자기 이해를 핵심으로 삼는다고 할 때, 여기에는 절대적으로 의지력이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 본 논문은 공자의 생애를 지천명(知天命)에 근거하여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으로 정리했다. 이 사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의지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생각이 자기 스스로 생각해서 자기 스스로 이해하는 자기이해의 자명(自明)이 필요하다. 이것이 공자의 학문론에서 가장 중요하다.

공자의 학문이 의지력이 아니라 생각하는 마음의 사유에 있다는 사실을 『논어』에 근거하여 증명할 수 있다.

공자가 말했습니다. “배운다며 생각하지[사랑하지] 않으면 답답하고[남는 게 없고], 생각한다며[사랑한다며]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sup>22)</sup>

자 완 학 이 불 사 즉 망 사 이 불 학 즉 태  
子曰: 學而不思則罔, 思而不學則殆.<sup>23)</sup>

20) 조중빈 역설, 『안심논어』 (국민대학교 출판부, 2016), p. 94.

21) 『論語』, 「八佾」 16장.

22) 조중빈 역설, 『안심논어』 (국민대학교 출판부, 2016), p. 73.

23) 『論語』, 「爲政」 15장.

공자에 의하면 학문의 방법은 ‘생각’(思)에 있다. 이 생각은 엄격한 의미에서 의지력을 뜻하는 의(意)와 같은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이와 관련하여 공자가 강조하는 생각의 실상을 성동권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유학의 본질은 기하학적 사유의 자명한 인식에 근거하여 ‘몸’의 진실을 이해하며, 이 이해로부터 인간의 본성을 참답게 인식하는 학문으로 정의된다.<sup>24)</sup>

성동권을 공자의 생각을 “기하학적 사유의 자명한 인식”으로 정의한다. 이 사유는 몸의 현상에 의존하여 몸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몸의 진실을 영원의 필연성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이것을 공자의 생각으로 정의하면, 여기에는 절대적으로 ‘의지’나 ‘의지력’ 같은 것은 개입될 수 없다. 특히 우리가 공자의 사유를 자명한 인식을 확립함으로써 그 안에서 다시 자명한 인식을 확립해 나아가는 기하학적 사유로 인식하는 한에서 이 사유는 사유의 자명성만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의지력과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

기하학적 사유 안에서 자기 스스로 이해하는 자기 몸의 진실을 공자는 천명(天命)이라고 했다. 몸-생김의 진실을 생각하는 마음이 자기 안에서 자기 스스로 영원무한으로 명백하게 이해하는 것이다. 이것으로 성동권이 정의하는 감정과학의 논리를 살펴보겠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몸에 나아가 몸 그 자체에 고유한 본성의 필연성을 확인할 수 있다면, 감정을 몸이 하는 말로 이해하는 한에서 감정과학의 공리에 근거하여, 몸 그 자체의 고유한 본성은 당연히 우리가 공간과 시간을 살아가며 몸으로 느끼는 감정 그 자체에 고유한 본성의 필연성으로 존재합니다. 이것으로 감정은 자기 몸 그 자체의 진실을 자기 본성으로 삼아 오직 그 본성만을 따라서 존재한다는 필연성이 확인됩니다. 무한한 방식으로 무한한 감정은 자기 안에 자기 본성을 품고 그것을 따라서 필연적으로 존재합니다.<sup>25)</sup>

논리에서 핵심 표지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몸에 나아가 몸 그 자체에 고유한 본성의 필연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천명(天命)이다.

그러므로 몸에 집중함으로써 몸-생김의 진실인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을 이해하는 공자의 학문은 감정과학의 논리에서 가장 중요한 몸 그 자체에 고유한 본성을 영원의 필연성으로 확인하는 것이 분명하다. 기하학적 사유의 자명성 안에서 몸이 자기 안에 본래부터 품고 있는 진실로서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이다. 이것이 천명

24) 성동권, 『공자 유학의 사상적 기초로서 기하학적 사유』 (부크크, 2020), p. 41.

25) 성동권, 『유교문화의 정초 공자의 감정과학』 (부크크, 2022), pp. 14-15.

(天命)이다. 우리는 이것을 근거로 공자의 학문을 감정과학으로 증명할 수 있다.

## 2) 몸-생김의 영원무한

몸-생김의 진실인 천명(天命)을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으로 이해하는 것은 몸에 대한 생각의 자기이해 안에서 자명한 진실이다. 이 진실을 과연 『논어』에서 확인할 수 있을까? 다음의 인용을 검토해 보겠다.

요임금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너 순[舜]아, 영원 무한한 하늘의 내력이 네 몸에 있으니 그 가운데를 꼭 잡아라. … 너그러워 백성을 얻고, 미더워 백성이 맡기고, 일을 ‘두고 보자’ 하지 않고 민첩하게 처리하여 공효가 있으니, ‘다 좋은 세상’이라 기뻐합니다.’<sup>26)</sup>

堯曰：咨爾舜，天之曆數，在爾躬，允執厥中...寬則得衆，信則民任焉，敏則有功，公則  
열說.<sup>27)</sup>

여기에서 핵심은 “영원 무한한 하늘의 내력이 네 몸에 있으니 그 가운데를 꼭 잡아라.”라는 것이다.

‘나’ 자신이 지금 ‘나’ 자신의 몸에 나아가 몸-생김 그 자체의 진실을 이해했을 때, 이 이해를 지천명(知天命)이라 한다. 하늘의 필연성으로 지금 내 몸이 생겨났다는 사실을 뜻한다. 이 사실을 공자는 엄마아빠의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이미 앞에서 충분히 논의한 바와 같이 내 몸 안에는 몸-생김의 필연성으로서 엄마아빠의 영원무한의 반복이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복을 ‘영원 무한한 하늘의 내력’이라 한다.

성동권은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확인한다.

이 이상 감정과학에 충실한 번역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자기 몸으로 생겨나 존재하며 자기 몸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자기 몸’의 진실은 “天之曆數(천지역수), 在爾躬(재이궁)”입니다. 영원무한 그 자체인 하늘이 지금 내 몸으로 존재합니다. 이 진실을 어기며 존재하는 ‘자기 몸’은 절대적으로 없습니다.<sup>28)</sup>

26) 조중빈 역설, 『안심논어』 (국민대학교 출판부, 2016), p. 430.

27) 『論語』, 「堯曰」 1장.

28) 성동권, 『유교문화의 정초 공자의 감정과학』 (부크크, 2022), p. 189.

지천명(知天命)의 진실은 자기 몸에 고유한 생명의 진실로서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이다. 참고로 유영관도 이 진실을 다음과 같이 확인했다.

역수(曆數)의 ‘역(曆)’은 ‘하늘이 하는 일’이고 이때 ‘수(數)’는 그 일이 오락가락하지 않는 필연적인 법칙을 따라가는 것이다. 여기에서 보면 역수(曆數)는 하늘의 전체대용(全體大用)이다. 왜냐하면 역수(曆數)는 하늘이 하는 일이지만 근본(根本) 있는 일 이니까 그것을 전체(全體)의 대용(大用)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체(體)가 있고 그것 으로부터 용(用)이 있다. 이와 같이 천지역수(天之曆數)의 역수(曆數)를 이해한다면, 『논어(論語)』의 천재이궁(天在爾躬)은 하늘의 전체대용(全體大用)이 내 안에 고스 란히 들어앉아있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sup>29)</sup>

자기 몸에 나아가 영원의 필연성으로 존재하는 엄마아빠의 몸을 이해하고, 그 이 해 안에서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을 이해하는 것이 지천명(知天命)이다. 이 이해는 곧 자기 몸의 본성 또는 그에 고유한 본성의 필연성에 대한 이해이기 때문에, 이 이해와 동시에 자기는 자기 생명의 진실로서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을 확인한다. 이 모든 논점의 핵심을 공자는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공자가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나를 알겠느냐?”  
자공이 말했습니다.  
“어째서 선생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십니까?”  
공자가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원망하지 않고, 사람을 탓하지 않고[‘이런 바보 같으니’ 하지 않고], 아래를 배워서 위와 통하니[개고생 하는 여기가 천국인 줄 아니], ‘나’를 아는 자, 그게 하늘 이다.”<sup>30)</sup>

자 완 막 아 지 야 부 자 공 왈 하 위 기 막 지 자 야 자 완 불 원 천 불 우 인 하 학 이 상 달 지 아  
子曰：莫我知也夫。子貢曰：何爲其莫知子也。子曰：不怨天，不尤人，下學而上達，知我  
者，其天乎。<sup>31)</sup>

자기 스스로 자기 몸의 진실을 알면, 그 인식이 곧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으로 존재하는 하늘이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다. 조중빈은 “‘나’를 아는 자, 그게 하늘이다.”라고 그 뜻을 밝혀주었다.

그러므로 공자의 학문에 근거하여 우리 자신의 몸을 생각하고 그 생각 안에서 배

29) 유영관, “‘自明코칭’의 원리와 『中庸』의 ‘性, 道, 教’에 대한 나의 이해,” 국민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2019), p. 51.

30) 조중빈 역설, 『안심논어』 (국민대학교 출판부, 2016), p. 330.

31) 『論語』, 「憲問」 37장.



위보면, 지금 우리 자신의 몸은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 안에서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을 받아서 필연적으로 존재한다. 이 사실을 감정과학은 천자(天子)라고 한다. 천명(天命)의 필연성으로 생겨난 것이 지금 우리 자신의 몸이며, 우리 자신의 몸이 이 필연성으로 생겨났다는 사실을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우리 자신이 天子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즉, 본래부터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 안에서 생겨났다는 사실을 알고 보는 것이다.

## 2. 天子의 욕망 고유한 본성으로 놀이하는 ‘나’

### 1) 몸-놀이의 영원무한

지금의 ‘나’ 자신이 天子로 생겨났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공자의 지천명(知天命)이다. 이 사실을 인식했을 때 그로부터 필연적인 진실은 무엇일까? 이 물음에 대한 답으로 공자는 욕망의 진실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공자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15살에 공부하는 데 뜻을 둔 후 나이 30에 논리가 서고, 40에 마음이 유혹되지 않고 50에 내 팔자가 상팔자라는 것을 알고, 60에 무슨 얘기를 들어도 거슬리지 않고[다 예쁘게 들리고], 70에 종 된 마음[단 마음이 아님]이 원하는 비가 법도에 어긋나지 않았다.”<sup>32)</sup>

자 원 오 십 유 오 이 지 우 학 삼 십 이 립 사 십 이 불 혹 오 십 이 지 천 명 육 십 이 이 순 칠 십 이  
子曰: 吾十有五而志于學, 三十而立, 四十而不惑, 五十而知天命, 六十而耳順, 七十而  
從心所欲, 不踰矩.<sup>33)</sup>

자기 몸의 진실이 천명(天命)의 필연성을 따라서 존재한다는 천자(天子)의 사실을 이해하면, 그때 비로소 자기는 자기 몸이 느끼는 감정을 믿고 따를 수 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몸이 느끼는 욕망이다. 천자의 몸으로 생겨났다면, 그 몸으로 놀이하면서 느끼는 욕망도 당연히 천자의 욕망이 아닐 수 없다. 천자가 느끼는 욕망이라면, 이 욕망의 진실은 무엇일까? 당연히 몸-생김의 필연성 그대로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이다.

32) 조중빈 역설, 『안심논어』 (국민대학교 출판부, 2016), p. 63.

33) 『論語』, 「爲政」 4장.

이 지점에서 본 논문은 앞으로 전개되는 논의의 핵심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핵심 개념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① 성리(性理)

: 몸-생김에 고유한 본성의 필연성

② 정리(情理)

: 몸-생김에 고유한 본성의 필연성으로서 성리(性理)가 감정과학의 공리(公理)에 의하여 몸-놀이에 고유한 본성의 필연성으로 존재함.

위와 같이 몸-생김 그 자체의 진실을 성리(性理)로 정의하고, 그에 근거하여 몸-놀이가 그 자체의 진실을 정리(情理)로 정의하면, 다음과 같은 논리적 순서는 필연적이다. 우리가 몸-놀이의 진실을 감정으로 이해하며 그와 동시에 모든 감정의 기원을 몸-놀이의 욕망(欲)으로 이해하는 한에서 욕망의 본성은 당연히 자기에게 앞서 있는 몸-생김의 본성을 자신의 필연성으로 갖는다.

이 진실을 성동권은 다음과 같이 확인한다.

마침내 우리는 몸-놀이에서 가장 중요한 ‘욕망’(欲)의 진실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욕망은 혼돈의 ‘무질서’도 아니며 알 수 없는 ‘우연’도 아닙니다. ‘욕망’은 성리(性理)로부터 필연적으로 연역되는 정리(情理)를 자기 존재의 필연성으로 자기 안에 본래부터 가지고 있으며, 이것을 자기 본질로 삼아 무한한 방식으로 무한하게 새로운 감정으로 드러냅니다. 감정의 논리가 이와 같기 때문에 감정 스스로 자기의 논리 안에서 자기의 진실을 참답게 이해하는 것이 감정에 대한 타당한 인식입니다.<sup>34)</sup>

성동권에 의하면 공자의 ‘종심소욕’(從心所欲)에서 핵심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이다.

① 욕망은 “성리(性理)로부터 필연적으로 연역되는 정리(情理)”를 자기 본성으로 가지고 있다.

② 그렇기 때문에 욕망은 성리(性理)의 본질로서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을 자기 본성으로 갖는다.

---

34) 성동권, 『유교문화의 정초 공자의 감정과학』 (부크크, 2022), p. 249.

그러므로 위의 두 가지 논점에 근거하여 공자의 학문은 감정과학이라는 사실이 필연적으로 도출된다.

## 2)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는 자기다움

공자의 학문을 감정과학으로 정립하면, 마침내 이 학문의 공효가 무엇인지 명백하게 이해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공자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어보자.

공자가 말씀하셨습니다.

‘부자(富者)가 구해서 되는 것이라면 비록 말채찍을 잡더라도 나 또한 구하겠지만, 구해서 되는 게 아니라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따르겠다.’<sup>35)</sup>

子曰: 富而可求也, 雖執鞭之士, 吾亦爲之, 如不可求, 從吾所好.<sup>36)</sup>

천자는 지금 우리를 초월하거나 어떤 수준 높은 경지가 절대 아니다. 욕망의 진실이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이기 때문에 이 진실 안에서 욕망이 자기 스스로 ‘좋은 것’(好)으로 판단한 것을 자기 행복으로 추구하면 된다. 즉, 욕망의 진실이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이기 때문에 이 진실 안에서 자기가 좋은 것으로 판단한 것을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 안에서 배워서 자기의 행복으로 추구하는 것이다. 이 행복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행복 밖에 있는 돈이나 조건 그리고 환경에 의해서 우리의 행복이 좌우되지 않는다는 데에 있다. 이 행복이 분명할 때 돈에 의해서 좌우되는 학문론의 비극을 바로 잡을 수 있다.

그러므로 공자의 학문은 몸에 대한 참다운 이해로 감정에 대한 참다운 이해를 추구하는 감정과학이 분명하다. 몸-생김의 진실을 천자로 확인한다는 것은 몸에 나아가 몸에 고유한 생김 그 자체의 본성의 필연성을 확인하지 않고서 불가능하다. 다음으로 몸-생김의 진실 안에서 욕망의 진실이 분명할 때 우리는 욕망을 믿고 따를 수 있다. 그리고 이때 욕망을 따른다는 것은 욕망이 자기에게 좋은 것으로 판단하는 것을 자기 본성의 필연성 안에서 배우고 그것으로 자신의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자의 학문은 감정과학이다.

35) 조중빈 역설, 『안심논어』 (국민대학교 출판부, 2016), p. 171.

36) 『論語』, 「述而」 11장.

### 제3절 안연의 감정과학

#### 1. 다 좋은 감정

##### 1) 안연의 호학(好學)

공자의 학문은 감정과학이다. 몸-생김에 고유한 본성의 필연성을 이해하고, 그것으로 몸-놀이의 본성을 영원의 필연성으로 연역하는 것이다. 이렇게 공자의 학문을 정의하면, 안연에 대한 공자의 평가로서 호학(好學)이 무엇인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계강자가 물었습니다.

‘제자 중에 누가 배우기를 좋아합니까?’

공자가 대답하였습니다.

‘안회라는 사람이 있어 배우기를 그렇게 좋아하더니, 불행하게도 명이 짧아 죽었습니다. 지금은 없습니다.’<sup>37)</sup>

계강자문 제자숙위호학 공자대완 유안회자호학 불행단명사의 금야죽무  
季康子問：弟子孰爲好學。孔子對曰：有顏回者好學，不幸短命死矣，今也則亡。<sup>38)</sup>

본 논문의 논자는 이 대화의 핵심 주제가 안연이라는 한 개인과 함께 호학(好學)에 있다고 생각한다. 이미 우리가 확인한 바와 같이 공자에게 호학(好學)은 감정과학을 행복으로 추구하는 것이다. 이 학문을 좋아한 제자가 안연이다. 이 사실로부터 안연의 중요성은 그가 공자의 감정과학을 계승한다는 데에 있다. 즉, 안연은 공자의 감정과학을 계승한 제자라는 사실이 매우 중요하다.

한편 여기에서 호학(好學)은 유교문화에서 안연의 위상을 드러내지만, 동시에 공자를 규정함에 있어서 핵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과 같은 대화를 참고해 보자.

공자가 말씀하셨습니다.

‘열 집밖에 안 되는 고을에도 나같이 자신 만만한 사람[자기 느낌에 솔직하고 완전한 자기를 믿는 신실한 사람]이 있겠지만 나같이 배우기 좋아하지는 못한다.’<sup>39)</sup>

37) 조중빈 역설, 『안심논어』 (국민대학교 출판부, 2016), p. 245.

38) 『論語』, 「先進」 6장.

39) 조중빈 역설, 『안심논어』 (국민대학교 출판부, 2016), p. 142.

子曰: 十室之邑, 必有忠信如丘者焉, 不如丘之好學也.<sup>40)</sup>

공자는 자신을 ‘호학’(好學)으로 규정한다. 우리는 반드시 이 연장선에서 안연(顏淵)의 호학을 이해해야 한다.

공자와 안연은 스승과 제자의 관계 속에 있지만, 호학(好學) 안에서 이 두 사람은 감정과학 그 자체를 학문의 진실로 드러낸다. 왜냐하면 공자 스스로 자신에 대한 가장 올바른 이해가 감정과학에 있다고 공언(公言)하였으며, 동시에 이 학문을 좋아한 제자를 안연으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근거하여 생각해 보면, 유교문화의 학문론을 정의하는 감정과학이 곧 ‘호학’(好學)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공자와 안연의 학문론, 그리고 더 나아가 유교문화의 학문론을 감정과학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자기 몸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근거하여 자기 몸이 느끼는 감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정립한다는 것을 뜻한다. 특히 이 학문 앞에 호(好)를 둔다는 것은 욕망의 진실을 다시 확인한다. 욕망의 진실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다. 욕망이 어떤 것을 좋은 것으로 판단한다는 것은 그 대상이 곧 행복의 원천이라는 뜻이다.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호학(好學)을 바라보면, 욕망은 학문으로서 감정과학을 자기 행복의 원천으로 이해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사실을 확인하면, 학문을 절대적으로 자기 원동력을 상실할 수 없다. 왜냐하면 행복을 추구하는 욕망에 근거하여 욕망은 절대적으로 학문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행복을 추구하는 욕망이 자기 욕망의 진실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감정과학을 연마하는 것이다. 이때 비로소 욕망은 자기다움의 행복을 지킬 것이므로 이것으로 학문의 가치관을 명백하게 세울 수 있다.

이때 핵심은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에 대한 올바른 이해이다. 이러한 이해는 비단 동양의 유교문화에 국한되지 않는다. 서양 문화의 학문론을 대표하는 소크라테스와 플라톤도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확인한다.

소크라테스: 오, 크리톤, 별로 당부할 것도 없네. 단지 내가 언제나 자네들에게 말한 것처럼 자네들은 자기 자신을 돌보게. 그렇게 하면 다른 당부는 하지 않더라도 나나 우리 집 식구들에게나 또는 자네들 자신에게 봉사하는 것이 될 걸세. 그렇지만 자네들이 자기 자신에 관해 생각지 않고 지금 말한 나의 권고를 따르지 않는다면, 현재 아무리 많은 약속을 하고 그것을 지키겠다고 언약을 하더라도 아무 쓸모가 없을 걸세.<sup>41)</sup>

40) 『論語』, 「公冶長」 27장.

41) 플라톤, 최현 역, 『파이돈』 (범우사, 2008), p. 135.

소크라테스(플라톤)에 의하면 학문의 방법과 방향은 분명하다.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자신의 올바른 이해이다. “단지 내가 언제나 자네들에게 말한 것처럼 자네들은 자기 자신을 돌보게.”라고 말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호학(好學)의 진실은 인류 보편의 진리로 확인된다. 자기 몸에 대한 자기이해의 분명은 자기 생명의 진실을 확인한다. 그리고 그 진실은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이다. 이 분명한 사실에서 보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의 참된 행복을 위해 반드시 감정과학을 연마해야 한다. 동시에 이 연마가 행복을 추구하는 욕망의 진실이다.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을 우리 자신의 행복에 고유한 영원의 진실이라는 사실을 서양 문명의 뿌리에 해당하는 길가메시의 이야기에서 찾을 수 있다. 길가메시는 자신의 친구, 즉 자신의 두 번째 자아인 엔키두에게 다음과 같이 호소한다.

길가메시는 그의 친구 엔키두를 잃고 비탄에 빠져 울었다. 사냥꾼이 되어 광야를 헤매며 들을 방황하였다. 그는 비통하게 외쳤다. “내 어찌 편히 쉴 수 있겠는가! 어찌 편안히 지낼 수 있겠는가! 내 마음은 절망으로 가득 찼다. 내 형제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가 죽는 날, 나도 또한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죽음이 두렵다. 있는 힘을 다해 ‘머나먼 곳’이라 불리는 우투나피시탐(Utunapishtim)을 찾아가리라. 그는 신들의 모임에 들어갈 수 있었으니까.”<sup>42)</sup>

죽음에 대한 공포 그리고 생명에 대한 열망은 동서양 문명에서 공통된다. 그리고 이 주제는 지금 우리 자신이 스스로 생각해 보면 너무나 자명해서 그 어떤 증거도 요구하지 않는다. 몸으로 생겨나 놀이하는 우리 모두의 진실이다. 이 주제에 관하여 길가메시를 위한 공자와 안연이 가르쳐주는 감정과학의 위로는 몸-생김 그 자체의 진실로서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학문의 진실을 감정과학으로 이해하는 한에서 이 학문은 욕망이 반드시 자신의 행복으로 추구하게 되어 있다. 학문 앞에 ‘호’(好)를 둘 수밖에 없는 필연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 욕망은 몸의 본질이기 때문에 당연히 몸의 생명을 떠날 수가 없다. 이때 몸의 생명을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으로 확인하는 학문이 있다면, 욕망은 당연히 자기 생명을 영원무한으로 확인시켜주는 학문을 가장 중요한 행복의 원천으로 선택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욕망이 자기 행복을 위해 자기답게 살아가는 자유로움은 감정과학을 연마하는 것이다. 이 사실을 공자와 안연이 확인하고 있다.

42) 성동권, 『서양 고대 그리스 감정과학의 태동』 (부크크, 2021), p. 49.

## 2) 감정을 묻고 배우는 정신의 능동

바로 앞에서 정리한 결론에 근거하여 안연의 호학(好學)이 무엇인지 검토해보자. 그 결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공자의 감정과학이다. 안연의 호학에서 그 실상을 이해하면, 그것이 곧 감정과학의 실상이다. 이것을 본 논문은 감정과학의 공효(功效)로 이해한다. 공자는 안연의 호학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설명을 들려준다.

공자가 대답하였습니다.

“안회라는 사람이 있는데 배우기를 좋아하고, 노여움을 옮기지 않고, 두 번 잘못을 하지 않더니 불행하게도 명이 짧아 이제는 저 세상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후 학문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은 듣지 못했습니다.”<sup>43)</sup>

공 자 대 환 유 안 회 자 호 학 불 천 노 분 이 과 불 행 단 명 사 의 금 야 죽 무 미 문 호 학 자 야  
孔子對曰：有顏回者好學，不遷怒，不貳過，不幸短命死矣，今也則亡，未聞好學者也。<sup>44)</sup>

안연의 호학에 관하여, 본 논문이 매우 중요한 논점으로 제시하는 것은 ‘불천노’(不遷怒)와 ‘불이과’(不貳過)이다. 조중빈은 각각에 대하여 “노여움을 옮기지 않고” 그리고 “지나간 잘못에 연연하지 않더니”라고 번역하였다.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 (1) 불천노(不遷怒)

불천노(不遷怒)에서 핵심은 당연히 ‘노’(怒)이다. 이것은 ‘분노’라는 감정이다. 이것으로 생각해 보면, 안연의 호학에서 중심 주제가 감정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는 공자와 안연의 학문이 실질적으로 감정과학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학문의 핵심이 감정에 있다는 사실, 그리고 감정에 대한 의지력이 아닌 참다운 이해에 있다는 사실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미 본 논문의 ‘제2장 1절, 공자의 생애’에서 밝힌 바와 같이 감정과학으로서 공자의 학문은 절대적으로 의지력에 의존하지 않는다. 이 사실에 입각하여 불천노(不遷怒)는 의지력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한편, 공자의 학문은 자기 몸에 나아가 자기 몸에 고유한 본성의 필연성으로서 천명(天命)을 이해하는 것이다. 그 결과가 중심소욕(從心所欲)이라면, 엄밀히 말해서 불천노(不遷怒)는 욕망

43) 조중빈 역설, 『안심논어』 (국민대학교 출판부, 2016), p. 148.

44) 『論語』, 「雍也」 2장.

의 자연스러움이다.

그러나 위의 결론과는 별도로 우리 자신의 감정 경험이나 일반적인 감정 현상에 대한 우리의 경험은 안연의 불천노와 반대된다. 본 논문의 핵심 주제인 분노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우리 자신이 분노할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분노를 의지력으로 다스리거나 억제하려고 한다. 한편 분노로 인해 발생하는 사건들을 보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분노라는 감정이 자기 밖 어떤 대상이나 사물을 향할 뿐만 아니라 중국에는 살인이나 자살 또는 폭력 같은 뜻하지 않는 비극을 초래하는 것을 보게 된다.

공자와 안연의 감정과학에 의하면 불천노(不遷怒)는 욕망의 진실이며,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험에 의존하면, 불천노(不遷怒)는 의지력을 행사한 결과이며,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다. 이 둘 사이에 놓인 간극의 심연을 바라보면, 우리에게는 어느 것이 진실인지 판단해야 한다는 과제가 주어진다.

#### ① 공자와 안연의 감정과학

공자와 안연은 자기 몸에 나아가 몸-생김 그 자체의 진실로서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을 이해한다. 이 이해와 함께 몸-놀이의 감정 그 자체의 진실 또한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이라는 사실을 이해한다. 이 사실에 대한 이해는 감정 그 자체에 고유한 본성의 필연성이기 때문에 무한한 방식으로 무한하게 생성하고 변화하는 감정에 대한 타당하면서 자연스러운 인식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다.

우리는 몸으로 놀이하는 과정 속에서 무한한 방식으로 무한한 감정을 느낀다. 이 감정 가운데 하나가 ‘분노’(怒)이다. 그런데 감정과학에 의하면 분노라는 이 감정은 자기 본성의 필연성을 따라서 존재하며, 그 실상은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이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감정을 이해하면, 감정은 철두철미 자기 본성의 필연성 안에서 이해하게 된다. 그와 동시에 감정은 절대적으로 자기 존재에 대하여 자기 밖 어떤 외부 원인에 의존하지 않는다. 이것이 곧 감정을 이해하는 정신의 능동성이다.

우리가 감정에 나아가 정신의 능동성을 확인하는 것이 감정과학의 공효이다. 왜냐하면 감정과학에 근거하여 우리 스스로 감정에 대한 타당한 인식을 형성하는 한에서 감정은 자기 본성의 필연성으로 이해될 뿐만 아니라 그에 비례하여 감정을 이해하는 정신은 절대적으로 아닌 다른 어떤 것에 의존하는 수동성으로 자신을 타당하지 못하게 이해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동시에 무한한 감정의 진실을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으로 확인하면, 그 자체가 이미 영원하고 완전한 행복이다. 따라서 감정과학을 행복으로 자연스럽게 추구한다.

#### ② 감정에 대한 현상 해석



공자와 안연의 감정과학에 근거하여 마침내 우리는 감정에 대한 우리의 일반적인 경험과 감정과학의 감정 이해가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되는 근본 원인을 이해할 수 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몸에 나아가 천명(天命)의 진실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결과 감정의 본성을 참답게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 이로부터 우리는 감정을 본성의 필연성이 아닌 현상으로 바라보게 된다. 이로부터 감정에 대한 타당한 인식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고, 그 대신 감정의 현상이 중요하게 된다. 따라서 감정에 대한 인식은 감정 해석이 되며, 끝내 감정의 진실을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므로 안연의 불천노(不遷怒)는 감정과학에 근거하는 것이지, 절대적으로 감정에 대한 경험적 현상 및 그에 대한 해석에 근거하지 않는다. 또한 이 둘 사이에 감정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당연히 그 자체의 필연적 본성으로 이해하는 감정과학이다. 왜냐하면 오직 이 인식만이 인간 정신의 능동성을 확보하기 때문이다. 현상에 의존하여 해석하는 수동성보다는 현상이 자기 안에 품고 있는 본성의 필연성을 이해하는 과학이 능동성이며, 이 둘 사이에 보다 더 완전한 것은 당연히 정신의 능동성이다.

## (2) 불이과(不貳過)

이 주제는 불천노(不遷怒)와 같은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그 현상만을 바라보며 해석을 하면 결국 인간 정신은 현상에 대한 횡수나 총량만을 계산하게 된다. 반면, 그 현상에 나아가 그 일에 고유한 본성의 필연성을 이해하면, 인간 정신은 더 이상 현상에 대한 총량을 종합하지 않는다. 그 대신 잘못된 일에 나아가 그에 고유한 본성을 이해함으로써 더 이상 일의 잘못에 연연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일에 고유한 본성의 필연성을 이해하기 때문에 이 이해와 함께 학자는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을 확인한다. 왜냐하면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 안에서 모든 일이 일어나며, 동시에 이 사실을 모름으로 인하여 모든 비극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결국 감정과학은 감정뿐만 아니라 감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일을 타당하게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상 두 가지 측면에서 공자와 안연의 감정과학을 분석하였다. 특히 불천노(不遷怒)에 관하여 본 논문이 참고하는 것은 이 주제에 대한 성동권의 분석이다.

불천노(不遷怒)는 분노를 조절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분노’라는 감정[顔]이 자신을 떠남 없이 자신의 진짜 소리를 경청[回]하는 것입니다. 분노 스스로 이해하기를 자신의 원인을 자기 안에서 찾는 것이지, 자기 밖의 어떤 것으로 돌리거나 탓하지 않

는 것이요. 그러니까 불천노(不遷怒)의 안회(顔回)는 분노라는 감정[顔]이 자기를 떠나지 않고 오직 자기 안에서 자신의 진짜 소리가 무엇인지 돌이켜[回] 이해를 구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탓하지 않는 것입니다. 보다 엄밀히 말하자면, 탓 하지 말라는 ‘금지’가 아니라 탓할 자리나 이유가 그 어디에도 없다는 뜻이겠지요. 감정에 대한 참다운 이해는 탓을 하는 수동적 이해이기보다는 자기 스스로 자신의 필연성을 이해하는 능동적인 이해이기 때문입니다. 탓은 감정의 수동이지만, 안회(顔回)는 감정의 능동입니다. 감정의 능동 그 자체가 참답고 독립적이며, 자기원인이고 타당합니다. 이러한 감정 자신의 사실 확인이 호학(好學)의 핵심이니까, 學은 ‘감정 바르게 알기’입니다.<sup>45)</sup>

우선, 감정은 의지력에 의한 조절대상이 아니다. 다음으로 감정은 자기 스스로 자기 본성의 필연성을 이해해야 한다. 이것이 감정의 능동이며, 사실상 감정을 이해하는 정신의 능동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정신은 자신의 자유와 행복을 누리게 된다. 욕망이 감정과학을 자기 행복의 진실로 선택하는 근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공자와 안연의 감정과학으로 깨닫는 진실은 감정에 대한 타당한 인식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정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감정은 절대적으로 자기 밖 어떤 외부 원인에 의해서 존재하도록 결정되어 있지 않다. 감정은 자기 존재에 관한 한 자기 본성의 필연성을 따른다. 이 사실로부터 감정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감정의 본성으로부터 감정의 무한한 현상을 참답게 이해하는 것이다. 그 결과 감정의 무한성을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감정에 대한 타당한 인식이 분명하며, 궁극적으로 감정의 순수지선(純粹至善)을 확인할 수 있다.

## 2. 다 좋은 세상

### 1) 자기 몸을 배우는 극기복례(克己復禮)

감정을 묻고 배우는 정신의 능동을 안연의 호학(好學)으로 정리하면, 감정의 진실은 순수지선(純粹至善)으로 드러난다. 본 논문은 이처럼 감정과학으로 이해하는 감정의 진실을 ‘다 좋은 감정’으로 정의한다. 몸-생김의 진실을 이해하면, 그 즉시 몸-놀이의 진실이 환하게 드러난다. 마침내 무한한 방식으로 무한하게 생성하며 변화하는 감정에 대한 참다운 인식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 감정에 대한 참다운 인식은 현상에 대한 해석이 아니라 그에 고유한 본성의 필연성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45) 성동권, 『유교문화의 정초 공자의 감정과학』(부크크, 2022), p. 389.

그 결과 감정의 순수지선을 확인한다.

위와 같은 감정에 대한 올바른 인식으로서 감정과학의 논리를 공자와 안연히 다음과 같이 확인한다.

안연이 인(仁)이 무엇이나고 묻자 공자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거품 빠지고] 내 알몸[克己]의 논리로 돌아가니[復禮] 세상 사랑한다[爲仁].”<sup>46)</sup>

안연문인 자왈 극기복례위인  
顏淵問仁，子曰：克己復禮爲仁。<sup>47)</sup>

위의 인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극’(克)에 대한 올바른 이해이다. 일반적으로 이것을 ‘극복하다.’ 또는 ‘이겨낸다.’ 등과 같은 부정적 의미로 접근한다. 그러나 이렇게 이해하면 극기(克己)의 뜻을 완전히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왜냐하면 공자의 학문은 본 논문의 2장 1절 ‘공자의 생애’에서 확인 바와 같이 위기지학(爲己之學)이기 때문이다. 자기를 위한다고 할 때, 그 ‘위함’(爲)이 자기 스스로 자기를 부정하거나 극복의 대상으로 인식한다면, 그것은 실질적으로 자기 스스로 자기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다. 이것은 터무니없는 것이다.

극(克)의 뜻을 자기 부정 또는 자기 극복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므로 우리는 다른 시각으로 이 개념어를 접근하고 이해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은 고대 중국에서 극(克)을 능(能)으로 이해했다는 사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克，能也<sup>48)</sup>

바로 앞의 항목에서 본 논문은 안연의 감정과학을 ‘감정을 묻고 배우는 정신의 능동’이라고 정리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정신의 능동성에 대한 확인으로서 공자와 안연의 감정과학을 ‘극’(克)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극’의 뜻을 이와 같이 이해하면, 마침내 우리는 극기(克己)에 대한 올바른 번역을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극기(克己)**

**: 자기 스스로 자기 몸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형성한다.**

46) 조중빈 역설, 『안심논어』 (국민대학교 출판부, 2016), p. 263.

47) 『論語』, 「顏淵」 1장.

48) 『爾雅』, 「釋言」 2장.

이 번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몸에 대한 올바른 인식’인데, 이것의 실상이 무엇인지 이미 확인했다. 그것은 지금 ‘나’의 몸에 고유한 본성의 필연성으로서 엄마아빠의 생명과 사랑이다. 그리고 이 생명과 사랑은 영원의 필연성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한 한에서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이다. 이 진실 ‘나’의 몸에 고유한 본성의 필연성이며, 이 사실을 ‘나’ 자신의 생각으로 자명하게 이해하는 것이 극기(克己)이다. 그렇기 때문에 극기(克己)는 실질적으로 감정과학의 논리가 추구하는 것으로서 몸-생김과 몸-놀이를 일관하는 몸 그 자체의 본성이다.

이렇게 극기(克己)를 번역하고 그 뜻을 이해하면, 극기를 위한 방법은 감정과학의 논리에 근거하여 몸의 진실을 생각하고 배우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과 배움을 공자와 안연은 복례(復禮)로 이해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예(禮)에 대한 감정과학의 이해를 분명하게 제시할 수 있다. 예(禮)는 일반적으로 어떤 행동이나 윤리도덕적 실행을 의미하지만, 감정과학에 의하면 그것은 감정과학의 논리이다. 동시에 생명의 논리이다. 이 사실을 본 논문의 2장 1절 ‘안연의 생애’에서 다루었다. 따라서 극기복례(克己復禮)에 대한 최종적인 번역을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 극기복례(克己復禮)

： 자기 스스로 자기 몸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형성한다는 것은 자기 몸에 고유한 생명의 논리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 확인으로 깨닫는 것은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이다. 그런데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은 우리 자신의 인식과 전혀 상관없이 본래부터 우리 몸이 자기 본성의 필연성으로 가지고 있다. 즉, 우리 자신의 몸이 자기 안에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공자의 학문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인(仁)이라는 사실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孔子=仁’의 등식은 절대적으로 부정될 수 없다. 이 등식에서 보면, 공자의 학문은 그 궁극이 지천명(知天命)이며, 이것은 실질적으로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에 대한 인식이다.

위의 두 가지 논점을 분석하면, 공자의 ‘인’(仁)을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으로 이해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 이 결론으로 ‘극기복례’를 다시 보면, 위인(爲仁)의 뜻을 우리는 명확하게 간파할 수 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이곳의 핵심 주제를 번역하고 그 뜻을 설명할 수 있다.

#### 극기복례(克己復禮) 위인(爲仁)

： 자기 스스로 자기 몸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형성한다는 것은 자기 몸에 고

유한 생명의 논리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 인식이 자기 생명의 진실로서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다.

공자와 안연의 극기복례(克己復禮)를 감정과학으로 이해하면, 우리 자신의 몸에 고유한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난다. 동시에 그와 함께 감정의 진실이 드러난다. 몸은 본래부터 순수지선으로 생겨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순수지선으로 놀이를 한다. 이것이 극기복례의 진실이다. 순수지선은 절대적으로 목적이 될 수 없으며, 행동으로 증명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이 진실을 성동권은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克己復禮(극기복례)”란, ‘마음’이 자기 사유의 ‘능동성’(克=能)이라는 자기 본래의 능력(德)에 근거하여 자기의 몸(己)에 본래부터 있는 자기의 배움을 보면서 자기 스스로 자기 존재의 필연적 본성으로 존재하는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 그 자체인 ‘엄마아빠’를 확인함과 동시에 그 생명과 사랑을 고스란히 물려받은 지금 자기의 몸 또한 필연적으로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논리(禮)를 마치 빛 자신이 자기 안에서 자기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과 같은 이치로 자명하게 이해(復)하는 것입니다.<sup>49)</sup>

몸의 현상은 무한하다. 무한하게 생겨나고 무한하게 변화한다. 그러나 이 모든 몸의 무한성은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 즉 인(仁)을 영원의 자기 진실로 가지고 있다. “자기 스스로 자기 존재의 필연적 본성으로 존재하는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 그 자체인 ‘엄마아빠’를 확인”한다고 했다.

그러므로 공자와 안연의 극기복례는 자기 스스로 이해하는 자기 몸의 진실이다. 이 진실 안에서 우리 모두가 각자 자기 몸의 진실을 명석판명하게 이해하면, 그것으로 우리 자신은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을 누리는 축복을 받는다. 이 축복과 함께 세상 모든 몸을 자기 몸과 같은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당연하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 자기 몸의 진실을 인과의 영원한 필연성 안에서 이해하는 한에서 이 진실은 모든 몸에 공통된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때문이다. 자기 몸을 배우면, 다 좋은 세상의 진실이 드러난다.

## 2) 빈부(貧富)가 교차하는 행복 세상

---

49) 성동권, 『유교문화의 정초 공자의 감정과학』(부크크, 2022), p. 262.

극기복례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자신의 몸을 비롯해서 세상 모든 몸을 이해하면, 세상의 진실을 다 좋은 세상으로 확인하게 된다고 밝혔다. 다 좋은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감정과학으로 우리 자신의 몸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 우리 자신의 감정을 이해했을 때, 그 결과 우리가 누리게 되는 축복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는 것이다. 우리는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안연의 호학(好學)에서 찾을 수 있다.

공자가 말씀하셨습니다.

‘회는 참 현명하구나! 한 덩이 밥과 한 쪽박의 물을 먹으며 누추한 골목에 사는 것을, 사람들은 근심이 되어 견디지 못하지만,회는 그 즐거움을 고치지 않는다.회는 참 현명하구나!’<sup>50)</sup>

자왈 현제 회야 일단사 일포음 제루항 인불감기우 회야불개기락 현제 회야  
子曰: 賢哉, 回也, 一簞食, 一瓢飲, 在陋巷, 人不堪其憂, 回也不改其樂, 賢哉, 回也.<sup>51)</sup>

여기의 인용에서 우리는 반드시 오해하면 안 된다. 다 좋은 세상은 경제적으로 가난하게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다. 더 나아가 가난의 빈(貧)과 풍요의 부(富)가 서로 갈등하며 질투하거나 무시하는 세상이 아니다. 특히 가난이 중요하다.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궁핍한 처지에 놓이게 되면, 그곳에서 마냥 웃으며 좋다고 할 수 없다. 공자는 “人不堪其憂”, 즉 “사람들은 근심이 되어 견디지 못하지만”이라고 했다. 이것을 근거로 가난을 나쁘다거나, 또는 안연은 일반 사람들과 달리 그런 처지에서도 웃고 즐거워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이다. 우리 스스로 솔직하게 생각해 보면 된다.

그렇다면, 여기에서의 빈부(貧富)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올바른 것일까? 이에 대한 감정과학의 설명을 들어보자.

이 사실로부터 “貧而樂(빈이락)”은 그 논점이 경제현상으로서 ‘빈천’(貧賤)에 있기 보다는 우리의 행복이 어떤 경제 현상 속에서도 영원성 그 자체로 충만하다는 경제의 진실을 밝히는데 있습니다. 이 진실이 분명할 때 우리 모두는 ‘빈천’으로 존재하는 자기 몸에 고유한 본성인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을 따라서 이미 충만한 자기 행복을 보다 더 큰 행복으로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빈천’의 몸이 본래 충만한 자기 행복을 보다 더 크게 하는 것입니다. 이 노력은 생명과 사랑을 보다 더 든든하게 지키며 가꾸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세상을 보다 더 풍요롭게 합니다.

‘빈천’의 몸이 “貧而樂(빈이락)”으로 자기의 행복을 보다 더 크게 하는 것이 “부이호례(富而好禮)”입니다. 이렇게 “부이호례(富而好禮)”를 이해하면, 논점은 ‘부귀’라는

50) 조중빈 역설, 『안심논어』 (국민대학교 출판부, 2016), p. 154.

51) 『論語』, 「雍也」 9장.

경제현상이 아닙니다. ‘빈천’의 몸이 자기 본성의 필연성 안에서 “貧而樂(빈이락)”하는 가운데 자기와 동일한 방식으로 존재하는 ‘빈천’의 몸과 무한한 방식으로 무한하게 생명과 사랑을 교차한 결과가 ‘부귀’입니다. 이 교차를 통해서 경제의 창의성은 무한하게 펼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이호례(富而好禮)”는 그 기원이 “貧而樂(빈이락)”입니다. 이미 행복한 ‘빈천’의 몸이 자기 행복으로 보다 더 큰 행복으로 추구한 결과가 ‘부귀’의 몸입니다. 이 논리의 필연성을 아는 것이 “부이호례(富而好禮)”입니다.<sup>52)</sup>

감정과학에 의하면, 빈천(貧賤)은 “자기 몸에 고유한 본성인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이다. 즉, 몸에 관하여 공간과 시간 속에서 감각적으로 설명하는 모든 술어가 사라지고 오직 맨 몸만이 존재하는 그 자리를 빈천(貧賤)이라 한다. 바로 이 자리가 ‘극기복례위인’(克己復禮爲仁)이다. 빈천(貧賤)의 몸은 몸의 경제적 현상이 아니라 오직 몸 그 자체만을 바라보는 인식이며, 이 인식 안에서 몸에 고유한 본성의 필연성을 이해하게 된다.

이것으로 우리는 부귀(富貴)를 이해할 수 있다. “빈천’의 몸이 자기 본성의 필연성 안에서 “貧而樂(빈이락)”하는 가운데 자기와 동일한 방식으로 존재하는 ‘빈천’의 몸과 무한한 방식으로 무한하게 생명과 사랑을 교차한 결과가 ‘부귀’입니다.”라고 했다.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이 빈천으로 존재하는 몸의 진실이다. 이 몸의 진실 안에서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이 무한한 방식으로 교차하면서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을 무한하게 증진시켜가는 것이 빈천이 자기 본래의 부귀(富貴)를 누리는 것이다.

결국 빈천은 감정과학에서 몸-생김의 진실이며, 부귀는 감정과학에서 몸-놀이의 진실이다. 이것을 일관하는 몸의 진실이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이다. 이것이 안연의 빈이락(貧而樂)이다. 즉, 가난이라는 현상으로 좋아한 것이 아니라 가난의 몸이 자기 안에 품고 있는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을 배우며 즐겼다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배움을 연마하면, 빈부는 더 이상 반목하지 않으며 서로 행복한 교차를 즐기게 된다.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 안에서 생겨나고 놀이하는 필연성을 이해하는 한에서 그 어떤 놀이도 생명과 사랑을 어기지 않는다.

이러한 감정과학의 논리는 중세 시대 철학자 보이티우스에게서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악행에 항거하고 덕행을 닦으라. 올바른 희망에 마음을 들어 올리라. 하늘로 겸손된 기도를 올리라. 너희가 스스로 속이고자 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바르게 살아야 할 크나큰 필연성을 지니고 있으니 즉 너희는 모든 것을 투시하는 재판관의 눈앞에서 행동하고 있기 때문이니라.<sup>53)</sup>

52) 성동권, 『유교문화의 정초 공자의 감정과학』 (부크크, 2022), p. 315.

53) 보이티우스, 정지채 역, 『철학의 위안』 (바오로딸, 2007), p. 211.

보이티우스는 ‘필연성’을 학문의 핵심에 둔다. 그리고 이때의 필연성은 “바르게 살아야 할 크나큰 필연성”이다. 즉, 몸-놀이도 필연성 안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 사실은 몸-생김의 진실이 분명할 때 할 수 있는 말이다. 왜냐하면 몸-생김 그 자체의 진실을 이해하지 못하면 몸-놀이에 고유한 필연성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 즉시, 몸-놀이는 필연성이 아닌 우연성으로 지각된다. 그러나 보이티우스는 필연성을 몸-놀이의 진실로 제시한다. 그 이유는 “하늘로 곁손된 기도를 올리라.”에서 찾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몸-생김의 진실이다.

이 진실을 성동권은 다음과 같이 확인한다.

감정과학의 논리가 보이티우스에게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약속 또는 위안은 매우 간단합니다. 보이티우스가 자기 몸의 본성 그대로 살아왔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그는 필연적으로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의 축복 속에서 영원으로부터 영원에 이르는 영원성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몸으로 존재하는 한에서 몸으로 존재하는 모든 것은 본래부터 영원한 지복과 행복을 누리도록 결정되어 있지만, 보이티우스는 이 진실을 알아서 이 진실대로 살았다는 점에서 보다 더 큰 영원한 지복과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sup>54)</sup>

“몸으로 존재하는 한에서 몸으로 존재하는 모든 것은 본래부터 영원한 지복과 행복을 누리도록 결정되어 있지만, 보이티우스는 이 진실을 알아서 이 진실대로 살았다는 점에서 보다 더 큰 영원한 지복과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라고 했다. 이것이 빈천의 몸이 부귀의 행복을 최고의 완전성으로 누리는 유일한 방법이다. 감정과학의 공효는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공자와 안연의 감정과학에서 깨닫는 진실은 영원한 행복이다. 그리고 이 행복은 어떤 의지적인 노력으로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자기 몸에 대한 참다운 인식을 형성하는 것으로 저절로 누리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이와 같은 방식으로 행복을 누리며 동시에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학문을 연마하게 되면, 학문은 영원의 필연성을 명석판명하게 인식하는 데에 행복의 진실을 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학문은 행복 안에서 무한하게 증진할 수 있게 된다. 공자와 안연의 감정과학이 학문의 위기를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임을 확인할 수 있다.

54) 성동권, 『서양 중세 초기의 감정과학』 (부크크, 2021), p. 120.



## 제3장 정이의 안자호학론

### 제1절 정이의 생애와 안자호학론

#### 1. 정이의 생애와 「안자호학론」

##### 1) 정이의 생애

본 논문은 정이(程頤, 1033~1107)의 생애를 『이정집(二程集)』에 근거하여 간략히 확인하겠다. 그리고 본 논문의 목적은 정이의 학문을 공자와 안연의 감정과학을 계승한 감정과학으로 증명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본 논문이 공자와 안연의 생애를 감정과학으로 정리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정이의 생애를 정리하겠다. 특히 본 논문은 이 주제를 정이의 학문론을 요약하고 압축한 「안자호학론」에 집중할 것이므로 이 주제의 연관성에서 정이의 생애를 정리하도록 하겠다.

공자와 안자의 학문론을 요약하는 것은 ‘호학’(好學)이다. 이것은 사실상 감정과학이다. 이 사실에서 보면, 정이가 발표한 소논문인 「안자호학론」은 정이의 생애에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점을 확인하고 보다 구체적으로 정이의 생애를 살펴보자. 정이는 송(宋) 시대의 성리학자로 선진(先秦)시대 공자와 안자의 사상을 계승하고 발전시켰다. 이 주제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방법이 「안자호학론」이다.

정이는 어렸을 때 주돈이(周敦頤)를 따라 공자의 유가 사상을 배웠다. 송인종(宋仁宗) 시기에 정이는 「안자호학론」을 썼다. 「안자호학론」은 『이정집(二程集)』에서 나왔다. 다음의 인용을 통해서 「안자호학론」이 정이의 학문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할 수 있다.

황우는 2년, 정이는 18세이다. 그는 황제가 진정한 학문을 널리 보급하고 잘못된 인식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방에서 공부할 때 후익지(胡翼之) 선생은 안자가 좋아하는 학문이 무엇인지를 주제로 학생을 테스트했고 정이의 글을 보고 놀랐다.<sup>55)</sup>

이곳의 황우는 2년은 서기 1050년이다. 이때 정이는 겨우 18세였다. 후익지 선생

55) 『二程集』, 「伊川先生年譜」, 논자의 번역이다.

은 안자의 호학(好學)으로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정이가 쓴 글을 보고 놀랐다고 한다. 이 글이 바로 본 논문의 주제인 「안자호학론」이다. 정이가 이 소논문을 작성하고 그것으로 학문의 핵심을 가르치게 된 이유를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이 글에서 정이는 공자와 안자의 학문을 배워야 한다고 명확하게 지적했다. 정이의 사고와 학습에서 「안자호학론」이 핵심으로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안자호학론」은 송대 성리학의 중요한 문헌으로 유가 사상의 새로운 발전을 열었고 후세 유가 학자들에 의해 여러 차례 제기되었다. 유가의 저명한 학자인 마일부(馬一浮)는 ‘표종취(標宗趣), 현정학(顯正學), 간속견(簡俗見)’<sup>56)</sup>으로 정이의 사상을 개괄한다.

① ‘표종취’는 「안자호학론」에서 성인의 도가 바로 정이 사상의 취지라는 것을 의미한다.

② ‘현정학’에서 ‘정학(正學)’은 진정한 학문이다. 공자와 안자의 학문론은 본 논문에 따르면 공자와 안자의 학문은 학습과 사고를 통해 자신이 성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학습을 통해 이 사실을 이해할 수 있다. 정이의 「안자호학론」은 이 사실을 다시 한 번 명확하게 확인한다.

③ 정이가 선진시대 공자와 안자의 학문을 계승하고 발전시킨 사실은 ‘간속견’을 통해 증명할 수 있다. 정이는 분명히 일부 사람들이 성인의 도(진정한 학문)에 대해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인식을 없애고 진정한 학문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하며 공자와 안자의 학문과 연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안자호학론」은 첫 편에서 두 개의 문답을 썼는데, ‘안자의 학문은 어떤 학문인가’와 ‘이 학문은 또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가?’이다. 이 두 가지 문제에 근거하여 우리는 정이가 공자와 안자의 감정과학을 계승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정이천 선생님께 질문했다. ‘공자(孔子; 聖人)의 문하에서 공부한 학생이 3천명인데, 유독 선생님께서 안자(顏子)만이 학문을 좋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3천 제자들 모두가 시서(詩書)와 육예(六藝)를 제대로 익히지 못하여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뜻합니까? 그렇다면 안자가 유독 홀로 좋아한 것은 무엇을 배운 것입니까?’<sup>57)</sup>

대부분의 제자들은 시서(詩書)와 육예(六藝)를 배우지만 안자는 다른 부분을 배운

56) 馬一浮(말일부), 『馬一浮集(말일부집)』(浙江教育出版社(절강교육출판사), 1996), pp. 63-71.

57) 『二程集』, 「顏子好學論」, 논자의 번역이다.

다. 정이는 안자가 배우는 것이 좋은 학문이라고 생각하고 이해하는데, 이때 안자의 학문은 성인의 도이다. 이어서 정이는 이 학문은 공부를 통해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준의 분석을 다음과 같이 살펴보자.

정이가 밝힌 취지를 보면 지식의 구성에서 지식은 분명히 두 종류로 나누어졌다, 갑류는 《시서》, 《육예》이다. 을류는 성인의 도리다. 을류 지식은 또 a와 b 두 종류로 세분화할 수 있다. a는 성인의 도 자체에 관한 지식이고 b는 이 도에 어떻게 도달하는지에 관한 지식이다. 후자는 당연히 이미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실천성에 관련되었다. 이 어떻게 행동하는지의 부분은 실질적으로 정이의 사상적 배려가 있고 에 있다.<sup>58)</sup>

하준에 의하면, 정이의 학문은 성인의 도리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어지는 논의에서 하준은 치명적인 실수를 한다. 그에 의하면 정이가 이해하는 안자의 호학(好學)은 성인(聖人)의 도 자체를 배우는 ‘a류’와 성인(聖人)에 도달하기 위한 실천으로서 ‘b류’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이 가운데 정이의 안자호학은 b류에 해당한다고 한다. “이 어떻게 행동하는지의 부분은 실질적으로 정이의 사상적 배려가 있고 에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하준과 같이 이해하면 성인(聖人)은 학문의 목적이 된다. 학문을 연마하는 우리 자신은 성인(聖人)의 지경이나 수준에 아직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열심히 학문을 연마함으로써 성인(聖人)의 수준에 도달해야 한다. 이 경우 학문의 실체는 ‘실천력’이 된다. 실천(행동)을 통하여 성인(聖人)의 수준이나 경지에 도달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본 논문의 2장에 근거하여 터무니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공자의 학문은 우리 자신이 본래부터 성스러운 천자(天子)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며, 안자의 학문은 이 사실을 자기의 감정을 통해서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감정과학으로 이해하는 공자와 안연의 학문은 우리 자신이 본래부터 성인(聖人)으로 생겨나 놀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다. 실천력이나 의지력을 동원함으로써 성인이라는 사실을 행동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다. 이제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은 정이의 학문론을 요약하는 「안자호학론」이 성인 그 자체의 진실을 지금 우리 자신의 진실로 확인하는 것이다.

58) 何俊(하준), “以道爲學——《顏子所好何學論》發微(도를 학문으로 삼다——「안자호학론」의 이해)”, 『哲學研究(철학 연구)』 제6기(杭州師範大學(항주사범대학), 2011), p. 55. ※ 인용문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從程頤揭明的主旨看, 在其對於知識的構成中, 知識顯然被分成了兩類, 甲類是《詩書》《六藝》。乙類是聖人之道。乙類知識又可細分爲a和b二類。a是有關聖人之道本身的知識, b是關於如何到達這個道的知識。后者當然已不是單純的知識, 而是牽涉到了實踐性。這個如何行動的部分實質上更是程頤的思想關懷所在, 也位居他的知識圖譜的頂點。”

그러므로 본 논문은 정이의 생애를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정이는 공자와 안연의 감정과학으로 자기 몸을 이해했다. 그 결과 자기 몸의 진실을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으로 확인했다. 이 확인과 함께 정이는 자신의 생애를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으로 살아갔다. 공자와 안연이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 안에서 자신이 생겨나고 놀이한다는 사실을 이해한 것과 같이 정이 자신 역시 자신이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 안에서 생겨나고 놀이했다는 사실을 이해했다. 이것이 감정과학으로 이해하는 정이의 생애이다.

## 2) 정이의 「안자호학론」

정이는 공자와 안자로부터 유교문화의 학문인 ‘감정과학’을 직접적으로 계승했다. 자기 몸에 나아가 몸의 진실로서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을 확인하고 그 진실대로 살아가는 것이 학문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자기에 대한 참다운 이해로 살아가는 사람의 진실이 성인(聖人)이다. 즉, 성인(聖人)을 배우는 것이 감정과학이며, 그 결과 자기가 본래부터 성인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배운다. 이 학문이 유교문화의 감정과학이며, 성리학(性理學)의 실질이다.

이 학문을 다시 정리함으로써 학문의 진실을 요약한 문서가 정이의 「안자호학론」이다. 이것으로 주자(朱子, 1130~1200)로 대표되는 송(宋) 시대 성리학의 기틀을 견고하게 했다. 더 나아가 퇴계 이황(退溪 李滉, 1501~1570)의 『성학십도(聖學十圖)』로 대표되는 조선 성리학의 기초를 제공해 주었다. 이것으로 주자의 중세와 퇴계의 근대에 걸치는 동아시아 성리학의 학문론을 제시할 수 있었다. 실로 유학의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정이의 생애 역사를 고찰함으로써 우리는 정이가 18세라는 젊은 나이에 안자가 좋은 학문은 성인의 도’라는 관점을 제기한 것은 우연이 아니라 그가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학습한 필연적인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주돈이집(周敦頤集)』에서 알 수 있듯이 정이의 아버지는 주돈이와 이야기를 할 때 그가 큰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형제 두 사람에게 주돈이를 스승으로 모셨다.<sup>59)</sup>

여기서 우리는 주돈이(周敦頤, 1017~1073)의 사상을 간단히 이해해야 한다. 주돈이의 사상을 이해하는 핵심은 「태극도(太極圖)」에 있다. 우리는 이 문서에 대한 이해를 퇴계 이황의 『성학십도』 제1도 「태극도」에서 할 수 있다. 이 문서의 핵심을 퇴계 이황은 ‘도리대두뇌처’(道理大頭腦處)<sup>60)</sup>라고 했다. 학문의 핵심을 「태극

59) 『周敦頤集』, p. 103.

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에 근거하여 그림(圖)을 보면, ‘만물일태극’이라고 한다. 여기에서 태극은 ‘순수지선지성야 시소위태극야’(純粹至善之性也, 是所謂太極也)<sup>61)</sup>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최고의 완전성으로 존재하는 최고의 선이다.

위와 같이 주돈이의 「태극도」를 이해하면, 우리 인간을 포함하여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본래부터 태극(순수지선)으로 존재하며, 그러한 한에서 본래부터 성스러운 존재이다. 이 진실을 우리 인간의 진실로 확인하면, 그것이 곧 성인(聖人)이다. 이 사실에 근거하여 정이의 학문을 요약하는 「안자호학론」을 이해해야 한다. 이 경우 정이의 학문을 실천을 통한 행동으로 이해하는 하준의 주장은 성립할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성인(聖人)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은 행동이나 실천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진실이 본래부터 성인이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학문은 생각하고 배워서 이해하는 것이지, 의지력에 의한 실천이 아니다.

주돈이의 「태극도」에 의하면, 성인(聖人)의 존재는 수준이나 경지가 아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만물(萬物) 및 그 가운데 하나로 존재하는 우리 인간이 본래부터 성인(聖人)이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성인이라면, 우리를 이 사실에 대한 배움으로 인도하는 것이 성인이다. 이 이해가 공자와 안연의 학문을 통해서 확립된 것이라면, 당연히 정이의 학문도 이 이해를 벗어날 수 없다. 왜냐하면 주돈이를 열심히 배운 학자가 정이이기 때문이다.

공자와 안자의 학문론에 대한 정이의 분석은 감정과학을 떠날 수가 없다. 공자와 안자가 좋아하는 학문은 자신이 성인이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다. 이 사실을 정이는 「안자호학론」에서 다음과 같이 확인한다.

정이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에 대한 오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잘못을 깨닫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자기의 감정을 외부 원인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자기 본성의 필연성으로부터 영원무한 그 자체로 결정되었다는 사실을 이해한다. 그렇게 감정에 대한 타당한 이해를 형성함으로써 몸 그 자체의 본성으로부터 감정 그 자체의 본성이 영원의 필연성으로 결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한다. 이것이 자신의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이며, 자기 몸에 고유한 본성의 필연성을 따라서 자기 감정의 진실을 이해하고 감정대로 살아가는 것이다.<sup>62)</sup>

정이는 학습 대상을 사람의 감정에 정하고 더 나아가 인간 자신의 본성에 대한 이해를 한다. 그는 인간의 본성은 선천적인 존재이고 원래부터 존재하는 것이며 진

60) 퇴계 이황(退溪 李滉), 『성학십도(聖學十圖)』, 「제일태극도(第一太極圖)」: 此是道理大頭腦處.

61) 퇴계 이황(退溪 李滉), 『성학십도(聖學十圖)』, 「제일태극도(第一太極圖)」: 純粹至善之性也, 是所謂太極也.

62) 『二程集』, 「顏子好學論」, 논자의 번역이다.

실한 것은 스스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당연히 진실하고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지식이고,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지식을 능동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관건은 감정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자신의 몸에서 신체의 진상을 자명하게 이해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장스민의 이해를 다음과 같이 살펴보자.

칠정은 모두 ‘중’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감정이 생기는 내재적인 원인이고 이것은 ‘마음’의 표징일 뿐이다. 마음은 ‘의리의 곳’이자 천명의 성이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곳이며 ‘허령의 몸’이며 능동성을 가지고 감정이 생기는 원천이다.<sup>63)</sup>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이미 우리 몸에 존재하고 외부 사물을 느낄 때 자기원인으로 나타난다는 감정에 고유한 필연성을 확인한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자신의 몸에서 신체의 진상(眞相)을 자명하게 이해하는 것이다. 우리의 본성의 진상이 본래부터 우리 자신의 몸속에 존재하는 것을 분명히 확인하고 있다. 이 사실을 정이의 안자호학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이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빠와 엄마의 생명과 사랑을 그대로 물려받아 태어난 것이 ‘나’(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의 본성은 ‘진실로 존재’ 하는 것이며 이 존재는 내 몸을 두고 생각하는 나의 마음이 ‘자기 안에서 자기 스스로 이해’ 한다. ‘내 몸’에 본래부터 존재하는 그 자체의 고유한 본성으로 본래부터 존재한다.<sup>64)</sup>

우리는 ‘성인의 도’를 이해해야 한다. 성인의 도는 우리의 몸과 떨어질 수 없다.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자신의 몸이 성인의 도이다. 우리의 마음은 몸에서 이 진상을 자명하게 이해하고 우리는 몸으로 감정을 느끼고 몸으로 살아야 한다. 다른 한편, 신체의 진상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인식이 생길 수 있다. 만약 우리가 자신의 본성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가지거나 자신의 감정이 외부 원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우리에게 이것이 틀렸다는 것을 알려주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자신의 몸으로 돌아가 필연적인 본성에서 진상을 찾게 할 것이다.

성리학자인 퇴계 이황 역시 마음의 중요한 역할을 강조한다.

63) 張斯珉(장스민), “學以致聖——程頤《顏子所好何學論》篇解析(학이지성 —— 정이의 「안자호학론」 해석)”, 『人文雜誌(인문 잡지)』 제1기(西安電子科技大學哲學系(서안전자과학기술대학 철학과), 2017), p. 53. ※ 인용문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七情皆由‘中’動而生, 因而是情感產生的內在原因, 而這只能是‘心’的表征。心既是‘義理之所’, 是天命之性在人身上的落實之處, 同時又是‘虛靈之體’, 具有能動性, 是情感產生的源泉。”

64) 『二程集』, 「顏子好學論」, 논자의 번역이다.

매우 텅 비고 신령한 마음으로 매우 뚜렷하고 알찬 진리를 구한다면 얻지 못할 까  
답이 없을 것입니다.<sup>65)</sup>

이것은 정이가 제기한 구체적인 학습 방법을 지적한 것이다. ‘마음이 구하면 얻는다.’(心之關則思, 思則得之, 不思則不得也)는 것이다. 마음은 자기 몸에 나아가 자기 사유의 자명함에 근거하여 자기 스스로 몸의 진실을 이해한다는 것이다. 그 결과 자기 본래의 진실로서 성인(聖人)을 이해하고 그 진실대로 살아간다. 이 논리를 정이의 「안자호학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이는 성인의 도를 이해하는 것을 학문의 핵심으로 제시한다.

정이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학문은 성인의 도를 깨닫는 것이다.’<sup>66)</sup>

몸으로 생겨나 몸으로 놀이하는 사람의 진실이 성스러움 그 자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학문의 기초이며 학문의 가치관을 위한 기본 사실이다. 학습과 사고를 통해 우리의 본성을 이해하는 것은 영원무한 생명과 사랑이다. 이것이 「안자호학론」의 가장 중요한 관점이자 정이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학문이다.

## 2. 안자호학론 번역

### 1) 번역의 방법

감정과학의 연구 방법은 ‘사여학’(思與學)이다. 즉, 생각하며 배우는 것이 감정과학의 연구방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본 논문은 이 연구방법에 근거하여 「안자호학론」을 번역하겠다. 그리고 여기에서 생각과 배움은 ‘자신의 몸을 생각하고 공부’는 것이다. 이로부터 「안자호학론」에 대한 번역도 감정과학의 연구 방법에 충실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자신의 몸과 감정을 생각하고 공부함으로써 이해하게 된 자신의 본성에 근거하여 번역을 하겠다.

위와 같이 번역의 기초를 정리한 다음, 정이의 ‘학습’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자.

정이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학문은 성인의 도를 깨닫는 것이다. 학습을 통해 자신이 성인이라는 진상을 이해할 수 있다.<sup>67)</sup>

65) 퇴계 이황(退溪 李滉), 『성학십도(聖學十圖)』: 以至虛至靈之心, 求至顯至實之理, 宜无有不得者.

66) 『二程集』, 「顔子好學論」, 논자의 번역이다.

67) 『二程集』, 「顔子好學論」, 논자의 번역이다.

정이가 공자의 학문론을 계승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학습을 통해 자신이 성인이라는 진상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했다. 정이에 의하면, 학문은 자기 자신이 본래부터 성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에 근거하여 번역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보다 구체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공자와 그의 제자 안연의 학문은 우리 자신의 ‘몸’ 그리고 몸이 느끼는 ‘감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형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이해의 결과는 천명(天命)의 필연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것으로 성인(聖人)의 존재는 지금 ‘나’ 자신의 몸(그리고 몸이 느끼는 감정)이 증명한다. 핵심은 몸, 그리고 몸이 느끼는 감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형성하는 것이다. 정이가 공자의 학문을 계승하고 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공자와 공자의 제자인 안연의 학문은 당연히 정이가 학문의 핵심으로 제시한 「안자호학론」에 당연히 적용된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공자와 안연의 연구방법에 일관된 몸과 몸이 느끼는 감정에 대한 올바른 인식으로서 사여학(思與學)에 근거하여 「안자호학론」을 번역하겠다.

## 2) 안자호학론 번역

번역과 주석은 연구자의 번역이다.

본 논문은 정이의 「안자호학론」을 20개의 절로 나누고, 그 각각에 대한 번역을 제시하겠다.

① 或問：聖人之門，其徒三千，獨稱顏子爲好學，夫詩書六藝，三千子，非不習而通也。然則顏子所獨好者，何學也。

어떤 사람이 (정이천 선생님께) 질문했다. ‘공자(孔子; 聖人)의 문하에서 공부한 학생이 3천명인데, 유독 선생님께서 안자(顏子)만이 학문을 좋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3천 제자들 모두가 시서(詩書)와 육예(六藝)를 제대로 익히지 못하여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뜻합니까? 그렇다면 안자가 유독 홀로 좋아한 것은 무엇을 배운 것입니까?’

② 伊川先生曰：學以至聖人之道也。

정이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학문은 성인의 도를 깨닫는 것이다.’ (즉, 몸으로 생겨나 몸으로 놀이하는 사람의 진실이 성스러움 그 자체라는 것을 이해(至)



하는 것이다.)

③ (或問:) 聖人, 可學而至歟? 曰 然, 學之道, 如何?

(어떤 사람이 질문했습니다.) ‘사람의 진실이 성스러움 그 자체라는 것을 배워서 알 수 있다는 뜻입니까?’ 정이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사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④ (伊川先生)曰: 天地儲精, 得五行之秀者, 爲人. 其本也, 眞而靜. 其未發也, 五性具焉, 曰 仁義禮智信.

(정이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빠(天, 영원)와 엄마(地, 무한)의 생명과 사랑을 그대로 물려받아 태어난 것이 ‘나’(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의 본성(아빠 엄마의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은 ‘진실로 존재’(眞)하는 것이며 이 존재는 내 몸을 두고 생각하는 나의 마음이 ‘자기 안에서 자기 스스로 이해’(靜)한다. ‘내 몸’에 본래부터 존재하는 그 자체의 고유한 본성(엄마아빠의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 未發)은 仁義禮智信(五性=仁義禮智信)으로 본래부터 존재한다.

⑤ (伊川先生曰:) 形既生矣. 外物, 觸其形而動其中矣, 其中, 動而七情, 出焉. 曰: 喜怒哀懼愛惡欲.

(정이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엄마아빠의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 안에서) 필연적으로 지금 ‘나’의 몸(形)이 ‘본래부터’(既) 생겨나서 존재한(生). (그러나 지금 ‘나’의 몸과 똑 같은 방식으로 自然 안에 天地萬物이 무한한 방식으로 무한하게 생겨나 존재한다.) ‘나’의 몸과 함께 살아가는 ‘수많은 몸’(外物)이 내 몸과 교차(觸)하며 내 몸에 고유한 본성의 필연성(其中)을 움직이게 한다. (그러면) 내 몸에 고유한 본성의 필연성(其中)은 자기 본성을 따라서 감정(七情)을 드러낸다. 이 감정을 ‘희노애구애오욕(喜怒哀懼愛惡欲)’이라 한다.

⑥ (伊川先生曰:) 情既熾而益蕩, 其性鑿矣.

(정이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몸으로 생겨나 몸으로 놀이한다는 것은 몸이 느끼는 감정으로 살아가는 것을 뜻한다. 왜냐하면 몸-놀이가 실질적으로 감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감정은 ‘자기’ 몸에 ‘본래부터 고유한 본성의 필연성’(既)을 자기 본성으로 본래부터(既)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은 무한한 방식으로 무한하게 새롭게 생생한 것이다(熾: 마치 불이 활활 타오르는 것 같이). 그러나(而) 그에 비례하여(益) 생생한 감정을 느끼는 ‘나’는 감정의 무한 생성으로 인하여 그에 대한

타당한 인식을 결여할 수 있다(蕩). (왜냐하면 감정의 무한 생성 및 무한 변화를 겪는 ‘나’ 자신이 뜻밖에 그 무한성으로 인하여 감정에 대한 타당한 인식을 놓치는 것이다.) 그로 인하여 감정의 본성 및 사실상 그와 동일한 것으로서 몸 그 자체의 본성을 어기는 잘못을 하게 된다(蕩).

⑦ (伊川先生曰:) 是故, 覺者約其情, 使合於中. 正其心, 養其性.

(정이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에 대한 오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잘못을 깨닫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자기의 감정을 외부 원인(外物)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자기 본성의 필연성으로부터 영원무한 그 자체로 결정되었다는 사실을 이해한다(約其情). 그렇게 감정에 대한 타당한 이해를 형성함으로써 몸 그 자체의 본성으로부터 감정 그 자체의 본성이 영원의 필연성으로 결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한다. 이것이 자신의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이며(正其心), 자기 몸에 고유한 본성의 필연성을 따라서 자기 감정의 진실을 이해하고 감정대로 살아가는 것이다(養其性).

⑧ (伊川先生曰:) 愚者不知制, 縱其情而至於邪僻, 梏其性而亡之.

(정이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감정이 영원한 무한한 생명과 사랑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감정을 제대로 알 수 없다. 자신의 감정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고, 감정이 본성을 따르는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감정이 외부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고 잘못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감정의 본성에서 벗어나 결국 비극으로 나아가게 된다. 그 결과 자기는 자기 몸에 고유한 본성을 잘못 이해하게 한다. 따라서 자신의 감정을 이해할 수 없다면, 자신이 영원 무한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없다.

⑨ (伊川先生曰:) 然, 學之道必先明諸心, 知所往然後, 力行以求至.

(정이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하므로 학문의 방법은 반드시 자기 마음에 나아가 자기의 마음이 자기 안에서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배움으로써 자명하게 형성하는 ‘자기이해’를 분명히 이해해야 한다. 이러한 마음의 자기이해는 자기 몸이 느끼는 자기 감정에 나아가야 한다. 그러한 이후에 자기 감정이 자기 안에 본래부터 품고 있는 본성의 필연성을 자기이해의 자명함으로 열심히 생각하고 배움으로써 감정 그 자체의 본성으로 존재하는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을 명백하게 이해(至)하는 것이다.

⑩ (伊川先生曰:) 所謂自明而誠也, 誠之之道在乎信道篤. 信道篤則行之果, 行之果則守之固.

(정이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자기이해의 자명함으로 자기감정을 그 자체의 본성의 필연성으로 이해한다. 즉, 자신의 감정을 영원무한한 생명과 사랑 속에 두고 이해한다. 그 결과 자기 감정이 본래부터 순수지선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한다.[所謂自明而誠也] 이 사실을 이해함으로써 감정의 진실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誠)이다. 이것을 위한 방법은 무엇보다도 자기이해의 자명함을 믿고 그 믿음으로 감정에 나아가 감정에 대한 참다운 이해를 형성하는 것이다.[誠之之道在乎信道篤] 자기이해의 자명함을 믿고 자기감정을 믿고 배우면, 자기 감정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기답게 살아가는 최고의 행복이다. [行之果則守之固]

⑪ (伊川先生曰:) 仁義忠信不離乎心, 造次必於是, 顛沛必於是, 出處語默必於是.

(정이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몸을 떠날 수 없다. 몸이 없으면 마음도 없기 때문이다. 몸의 본성은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이며, 이 진실을 인의충신(仁義忠信)이라 한다. 그러므로 몸의 본성으로서 인의충신은 마음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몸이 어디를 가더라도 마음은 몸의 본성과 항상 함께 하며, 심지어 몸이 넘어지는 순간에도 마음은 몸의 본성과 항상 함께 한다. 몸이 나가고 들어가며 말을 하거나 침묵할 때에도 마음은 몸을 떠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마음은 절대적으로 몸의 본성 그리고 몸의 본성으로부터 필연적인 감정의 본성 안에서 오직 이 본성만을 이해하며 살도록 결정되어 있다.

⑫ (伊川先生曰:) 久而弗失則居之安, 動容周旋中禮, 而邪僻之心無自生矣.

(정이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의 필연적인 본성은 영원의 필연성 그 자체로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이기 때문에 마음이 이 사실을 인식하는 한에서 마음은 자기의 감정 안에서 편안한다. 감정대로 살아가는 것이 감정 그 자체의 논리에 딱 들어맞게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마음은 감정에 대한 인식의 오류를 범하지 않게 된다.

⑬ (伊川先生曰:) 故, 顏子所事則曰 非禮勿視, 非禮勿聽, 非禮勿言, 非禮勿動.

(정이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감정이 영원히 무한한 생명과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자기가 느끼는 자기 감정의 진실 안에서 자기 감정대로 살아가게 된다.) 그러므로 안자가 학문으로 한 것이 무엇인지 말하자면, 감정 그 자체의

논리 안에서 보고 듣고 말하고 살아간 것이다. 안연은 자기가 보고 듣고 말하고 움직이는 중에 자기가 느끼는 감정을 외부 원인에 의해서 결정되었다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에 고유한 감정의 본성으로 이해한 것이다.

⑭ 仲尼稱之則曰 得一善則拳拳服膺而弗失之矣. 又曰 不遷怒不貳過. 有不善未嘗不知, 知之未嘗復行也.

공자가 안연의 학문을 두고 칭찬하며 말하기를, ‘자기 감정에 대한 참다운 인식으로 자기 감정의 순수지선을 이해(得)하면, 그것으로 자기 몸 그 자체의 본성을 이해함으로써 자기 진실이 무엇인지 명백하게 이해했다.’라고 했다. 또 말하기를, ‘분노’를 자기이해의 자명으로 이해함으로써 자기 감정이 외부 원인에 의해서 결정되었다는 타당하지 못한 인식을 형성하지 않았으며, 인식의 오류를 실재하는 것으로 착각하며 계산하기 않았다. 라고 말했다. 왜냐하면 마음이 감정에 대한 인식의 오류를 범하면, 그 즉시 감정은 자기 스스로 마음의 오류를 인식하며 마음으로 하여금 자신의 잘못을 바로 잡도록 인도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마음이 자기 감정 안에서 자신이 잘못 형성한 인식의 오류를 깨닫게 되면, 그 즉시 마음은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는다.

⑮ 此其好之篤, 學之之道也.

이것은 안자가 좋아하고 믿는 좋은 학문이다. 공부와 사고를 통해 자신의 본성이 영원무한한 생명과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자신이 느끼는 감정이 모두 좋은 감정이라는 것을 알고, 감정을 따른다. 자기 감정 안에서 천명을 이해하고, 자기 감정의 천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안자의 학이다.

⑯ 然, 聖人則不思而得, 不勉而中. 顏子則必思而後得, 必勉而後中. 其與聖人, 相去一息.

그러므로 성인(聖人)은 몸으로 생겨나 몸으로 놀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인은 자기 몸의 진실 안에서 자기 몸이 느끼는 감정의 진실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인은 오직 감정의 진실인 감정의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 진실은 감정 그 자체에 고유한 진실이며, 동시에 지금 몸이 느끼는 감정이다. 이 사실이 분명하기 때문에 聖人은 힘들이지 않아도 자기 감정의 진실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聖人則不思而得, 不勉而中]

이 사실이 분명하기 때문에 안연(‘나’ 자신)은 반드시 자기 감정에 나아가 자기 사

유의 자명으로 자기 감정의 진실을 이해한다. 그렇기 때문에 안연(‘나’ 자신)은 반드시 열심히 배움으로써 자기 감정에 고유한 본래의 진실을 이해한다. [顏子則必思而後得, 必勉而後中]

그러므로 안연(‘나’ 자신)과 성인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성인의 진실 안에서 안연(‘나’ 자신)이 자기 본래의 진실이 성인으로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其與聖人, 相去一息.]

⑰ 所未至者守之也, 非化之也. 以其好學之心, 假之以年則不日而化矣.

자기 감정의 진실 그리고 자기 감정의 진실로부터 필연적으로 이해하는 몸의 진실은 이미/본래(未)부터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깨달음으로써(至) 자기의 감정을 지키는 것이다. 자기감정을 변화시키거나 조절하는 것이 아니다[非‘化之’也]. 자기 이해의 자명함으로 자기감정을 참답게 이해하는 마음이 매순간 자기 감정에 대한 타당한 이해를 형성하면, 그 즉시 자기 감정이 본래부터 영원무한의 순수 지선 안에서 생명과 사랑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한다. [不日而‘化’]

⑱ 後人不達, 以謂聖本生知, 非學可至. 而爲學之道遂失.

후세 사람들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여, ‘성(聖)은 본래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아는 것이라서 배움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잘못 생각했다. (이 말은 ‘본래부터 몸으로 생겨나 몸으로 놀이하는 것이 성(聖)이기 때문에 이 진실 안에서 매순간 느끼는 감정이 본래부터 성(聖)이라는 사실을 배워서 깨닫는 것이라는 학문의 즐거움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뜻한다.) 그 결과 학문의 방법을 마침내 상실하고 말았다.

⑲ 不求諸己而求諸外, 以博聞強記, 巧文麗辭爲工, 榮華其言, 鮮有至於道者.

(학문의 진실은 자기 몸에 나아가 자기 몸-생김 그 자체의 진실을 이해하는 것이며, 이 이해에 근거하여 자기 몸-놀이인 감정 그 자체의 진실을 이해하는 것이다. 동시에 이 진실의 영원한 필연성 안에서 자기 몸-놀이의 감정에 나아가 그에 고유한 본성의 필연성을 이해하고(約其情), 그것으로 몸-생김 그 자체의 진실을 이해하는 것이다(養其性).

그렇기 때문에 학문의 방법을 상실한 결과, 사람은 자기 몸/감정에 나아가 자기 몸/감정의 진실을 이해하지 않고, 몸/감정의 감각적 현상만을 두고 몸/감정의 좋음

(善)과 나쁨(惡)을 논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감각적 현상에 의존하여 그저 많이 보거나 듣는 것을 종합함으로써 암기하는데 급급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 그것으로 글을 꾸미거나 말을 그럴싸하게 다듬는 데에 몰입하게 되었다. 그 결과 몸/감정의 진실을 이해하는 사람이 극히 드물게 되었다.

⑳ 則今之學，與顏子所好，異矣.

그러므로 지금 학문을 하는 사람은 안자가 좋아한 학문과 다르다.

## 제2절 「안자호학론」 번역에 대한 주석

여기에서는 바로 앞에서 제시한 번역에 대한 주석을 자세하게 제시하겠다. 본 논문은 정이의 「안자호학론」을 두 부분으로 나눈다. ‘전반부’(①~⑥)는 감정의 진실을 밝힌다. 감정은 ‘몸의 변용’이다. ‘후반부’(⑦~⑳)는 감정을 이해하는 마음을 밝힌다. 사실상 정이의 학문론이 공자와 안연의 감정과학을 계승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게 된다.

### 1. 몸의 변용으로서 감정

이상, 감정과학의 연구방법에 근거하여 본 논문은 「안자호학론」에 대한 전문을 번역했다. 본 논문은 「안자호학론」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주석을 정리한다. 전반부는 감정의 진실을 몸의 변용으로 정리하며, 후반부는 마음의 진실이 감정에 대한 타당한 인식을 추구하는데 있다는 사실을 밝힌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안자호학론」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주석하겠다.

① 或問：聖人之門，其徒三千，獨稱顏子爲好學，夫詩書六藝，三千子，非不習而通也。然則顏子所獨好者，何學也。

어떤 사람이 (정이천 선생님께) 질문했다. ‘공자(孔子; 聖人)의 문하에서 공부한 학생이 3천명인데, 유독 선생님께서 안자(顏子)만이 학문을 좋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3천 제자들 모두가 시서(詩書)와 육예(六藝)를 제대로 익히지 못하여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뜻합니까? 그렇다면 안자가 유독 홀로 좋아한 것은 무엇을 배운 것입니까?’

【주석 1】 聖: 이 글자는 귀(耳), 입(口), 손(手)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근거로 보면, 聖은 우리 자신의 몸을 뜻한다. 즉, 자신의 몸으로 살아가는 것이 聖이다.

【주석 2】 獨: 공자의 제자 중 안자만이 학문의 진실이 자기 본성에 대한 참다운 이해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 엄밀히 말해서 사람 본래의 진실은 학문(배움)을 좋아한다. 왜냐하면 알고 싶은 마음이 사람에게 고유한 자명한 진실이기 때문이다. 공자도 이 사실을 ‘學而時習之, 不亦說乎!’라고 말함으로써 증명했다.

② 伊川先生曰: 學以至聖人之道也. 聖人, 可學而至歟. 曰 然, 學之道, 如何?

정이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학문은 성인의 도를 깨닫는 것이다.’ (즉, 몸으로 생겨나 몸으로 놀이하는 사람의 진실이 성스러움 그 자체라는 것을 이해(至)하는 것이다.)

【주석 1】 聖人: 성인은 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자기 몸의 본성을 이해하고, 자기 몸의 본성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따라서 聖人은 신비주의적인 것도 아니며 어떤 특정된 소수의 사람만을 뜻하지 않는다. 몸으로 생겨나 몸으로 놀이하는 사람이 자신의 몸-놀이에서 자기 몸의 진실을 배워서 그 진실대로 살아가는 사람 본래의 사실이 성인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까닭은 앞에서 정리한 성(聖)에 대한 이해에 근거한다.

【주석 2】 至: 자기 몸에 대한 자기 사유와 자기 학습을 통해서 몸으로 생겨나 몸으로 놀이하는 사람은 자기의 진실이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으로 결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자명하게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자기 진실을 자기 스스로 배워서 깨닫는 것이 ‘至’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근거는 聖인의 聖은 본래부터 우리 몸 안에 존재하는 본성의 필연성이기 때문이다. 즉, 至는 목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 고유한 본래의 진실이다.

③ (或問:) 聖人, 可學而至歟?

(어떤 사람이 질문했습니다.) ‘사람의 진실이 성스러움 그 자체라는 것을 배워서 알 수 있다는 뜻입니까?’

④ (伊川先生)曰: 天地儲精, 得五行之秀者, 爲人. 其本也, 眞而靜. 其未發也, 五性具焉, 曰 仁義禮智信.

(정이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빠(天, 영원)와 엄마(地, 무한)의 생명과 사랑

을 그대로 물려받아 태어난 것이 ‘나’(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의 본성(아빠  
엄마의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은 ‘진실로 존재’(眞)하는 것이며 이 존재는 내 몸을  
두고 생각하는 나의 마음이 ‘자기 안에서 자기 스스로 이해’(靜)한다. ‘내 몸’에 본래  
부터 존재하는 그 자체의 고유한 본성(엄마아빠의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 未發)은  
仁義禮智信(五性=仁義禮智信)으로 본래부터 존재한다.

【주석 1】 이 문장의 번역을 위한 방법은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의 몸에 나아가  
우리 자신의 자명한 사유에 근거하여 몸-생김 그 자체의 진실을 이해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문장이 우리 몸의 ‘생김’(生)을 논하고 있기 때문이다. 몸의 생김을 논  
할 때, 가장 가까운 것은 우리 자신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자명한 사유에  
근거하여 우리 자신의 몸-생김을 이해하면, 그것이 곧 이 문장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완전한 방법이다.

【주석 2】 天地: 엄마아빠 없이는 지금 ‘나’의 몸이 없다. 내 몸에 고유한 본성의  
필연성에서 생각해 보면, 엄마아빠의 존재는 그 자체의 속성이 영원무한이며 반드  
시 존재하지 않을 수 없다. 아빠는 天과 짝이며, 엄마는 地와 짝이다. 왜냐하면 엄  
마는 자신의 배(胞) 안에 ‘나’의 몸을 품어서 낳기 때문이다. 이 이미지는 만물을 낳  
고 기르는 땅(地)과 일치한다. 그러나 엄마는 엄마 홀로 ‘나’의 몸을 낳을 수 없다.  
반드시 아빠가 있어야 한다. 아빠는 엄마와 완전히 다르며 동시에 엄마를 영원히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이미지는 땅을 덮고 있는 하늘과 일치한다.

【주석 3】 儲精: 있는 그대로 더하거나 뺄 것 없이. 우리가 부모로부터 얻는 가  
장 중요한 것은 당연히 우리 자신이 자기의 본성으로 물려받은 엄마아빠의 본성,  
즉 영원한 무한한 생명과 사랑이다. 이것이 우리 몸의 본성 그 자체로서 ‘천명’(天  
命)이다.

【주석 4】 得五行之秀: 엄마아빠는 서로를 영원무한으로 사랑한다. 이 사랑을 인  
(仁)이라 한다. 그리고 이 사랑은 서로에게 從이 되는 것이다. 이것을 의(義)라고 한  
다. 그리고 이 영원무한의 사랑으로부터 지금의 내 몸이 태어났기 때문에 엄마아빠  
의 사랑은 본성 상 내 몸에 앞선다. 이러한 순서의 논리를 예(禮/ 序)라 한다. 그리  
고 이 사랑은 영원무한으로 서로를 배우기 때문에 이것을 지(知/ 別=夫婦之別)라고  
한다. 마지막으로 영원무한은 단 하나의 필연성이며, 이 필연성만을 따라서 지금의  
내 몸을 낳는다. 이것을 신(信)이라고 한다. 엄마아빠의 사랑에 고유한 仁義禮智信



을 오행(五行)이라 한다.

【주석 5】 眞: 본성은 영원히 무한한 생명과 사랑이기 때문에 ‘실재’(實在)하는 것이다. 부모 없이는 우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필연적인 본성은 우리 자신의 부모이다. 마찬가지로, 부모의 본성도 그들의 부모로부터 필연적이다. 이러한 필연성은 그 자체의 본성이 영원무한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무한을 천(天)으로 이해하는 한에서 이러한 인과의 필연성에 근거하여 우리의 본성은 천(天)으로부터 영원의 필연성 안에 존재한다.

【주석 6】 靜: 본성은 우리 몸에 존재한다. 이 사실을 이해하려면 스스로 배우고 생각해야 한다. 우리는 자신의 본성 안에서 본성 그대로를 따라서 생활을 한다. 그리고 본성은 영원무한의 필연성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그 어떤 외부 원인으로부터 결정되거나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몸에 고유한 본성을 이해할 때에는 자기 스스로 자기 몸에 나아가 자기 몸에 고유한 본성의 필연성을 자기 사유의 자명성 안에서 명백하게 이해하는 것이다. 자기 아닌 다른 어떤 외부에 도움을 청할 필요가 없다.

⑤ (伊川先生曰:) 形既生矣. 外物, 觸其形而動其中矣, 其中, 動而七情, 出焉. 曰: 喜怒哀懼愛惡欲.

(정이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엄마아빠의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 안에서) 필연적으로 지금 ‘나’의 몸(形)이 ‘본래부터’(既) 생겨나서 존재한(生). (그러나 지금 ‘나’의 몸과 똑 같은 방식으로 自然 안에 天地萬物이 무한한 방식으로 무한하게 생겨나 존재한다.) ‘나’의 몸과 함께 살아가는 ‘수많은 몸’(外物)이 내 몸과 교차(觸)하며 내 몸에 고유한 본성의 필연성(其中)을 움직이게 한다. (그러면) 내 몸에 고유한 본성의 필연성(其中)은 자기 본성을 따라서 감정(七情)을 드러낸다. 이 감정을 ‘희노애구애오욕(喜怒哀懼愛惡欲)’이라 한다.

【주석 1】 形: 자신의 본성을 담고 있는 몸이다. 감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금 자신의 몸이다.

【주석 2】 既: 우리가 감각으로 확인하는 우리 자신의 몸은 생물(生歿)을 겪으며, 그 과정 속에서 노병(老病) 같은 무한한 변화를 겪는다. 그러나 지금 감각으로 확인하는 우리 자신의 몸은 그 자체의 본성이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 안에 존재하

며, 이 본성을 자기 본래의 본성으로 받아서 존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에서 보면, 몸은 이미(既)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 안에서 최고의 완전성으로 최고의 선함으로 존재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성은 영원히 무한한 존재이고, 본성을 포함하는 몸도 영원무한으로 존재하는 몸이다.

【주석 3】 生: 우리 몸은 부모가 낳아주어 존재한다. 부모님의 영원무한한 생명과 사랑 안에서 태어난다.

【주석 4】 外物: 지금 내 몸의 본성과 동일한 본성 안에서 무한한 방식으로 무한하게 존재하는 몸이다. 지금 나의 몸이 감각으로 확인하는 천지만물의 모든 몸은 본성 상 나와 동일하지만, 이 동일성 안에서 내 몸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존재한다. 그러한 한에서 나와 동일한 본성 안에 존재하는 자연의 천지만물은 외물(外物)이다.

⑥ (伊川先生曰:) 情既熾而益蕩, 其性鑿矣.

(정이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몸으로 생겨나 몸으로 놀이한다는 것은 몸이 느끼는 감정으로 살아가는 것을 뜻한다. 왜냐하면 몸-놀이가 실질적으로 감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감정은 ‘자기’ 몸에 ‘본래부터 고유한 본성의 필연성’(既)을 자기 본성으로 본래부터(既)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은 무한한 방식으로 무한하게 새롭게 생생한 것이다(熾: 마치 불이 활활 타오르는 것 같이). 그러나(而) 그에 비례하여(益) 생생한 감정을 느끼는 ‘나’는 감정의 무한 생성으로 인하여 그에 대한 타당한 인식을 결여할 수 있다(蕩). (왜냐하면 감정의 무한 생성 및 무한 변화를 겪는 ‘나’ 자신이 뜻밖에 그 무한성으로 인하여 감정에 대한 타당한 인식을 놓치는 것이다.) 그로 인하여 감정의 본성 및 사실상 그와 동일한 것으로서 몸 그 자체의 본성을 여기는 잘못을 하게 된다(蕩).

【주석 1】 熾: 몸이 느끼는 감정은 화염처럼 무한한 방식으로 무한하게 생성되고 놀이한다. 우리는 감정으로 생활하고 감정을 느낀다. 이미 몸에 존재하는 감정은 본성만큼 영원무한하다.

【주석 2】 益: 너무 격렬한 화염은 때때로 감당할 수 없는 화재를 일으키는 것과 같은 이치로 무한한 방식으로 무한하게 감정이 생성될 때 감정의 무한성으로 인하여 마음은 어떤 감정에 대한 타당하지 못한 인식을 형성하는 잘못을 범할 수 있다.

【주석 3】 蕩: 감정의 본성은 신체의 본성이며, 그것의 실상은 영원히 무한한 생명과 사랑이다. 이 사실을 생각하고 배워서 이해하면, 감정 본래의 진실을 이해한다. 그렇지 않으면,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으로 존재하는 순수지선의 감정을 불선(不善)이나 악(惡)으로 잘못 이해하게 된다. 그러므로 감정은 절대적으로 불선과 악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 자체의 본성으로 인하여 본래부터 순수지선이다. 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마음의 실수가 그만 감정의 선함을 잘못 이해하게 된다.

## 2. 감정을 이해하는 마음

⑦ (伊川先生曰:) 是故, 覺者約其情, 使合於中. 正其心, 養其性.

(정이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에 대한 오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잘못을 깨닫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자기의 감정을 외부 원인(外物)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자기 본성의 필연성으로부터 영원무한 그 자체로 결정되었다는 사실을 이해한다(約其情). 그렇게 감정에 대한 타당한 이해를 형성함으로써 몸 그 자체의 본성으로부터 감정 그 자체의 본성이 영원의 필연성으로 결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한다. 이것이 자신의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이며(正其心), 자기 몸에 고유한 본성의 필연성을 따라서 자기 감정의 진실을 이해하고 감정대로 살아가는 것이다(養其性).

【주석 1】 約: 자기의 감정과 약속을 하고, 자기의 감정을 떠나지 않는다. 감정은 자기의 영원무한한 본성에서 연역되며, 외부 원인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 감정의 필연적인 본성에서 감정을 이해해야 하는 것은 감정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다.

【주석 2】 中: 자기의 본성. 감정의 필연적인 본성에서 감정을 이해하는 것은 감정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다. 자기의 본성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영원히 무한한 생명과 사랑이다.

【주석 3】 正: 감정의 필연적인 본성에서 자기의 감정을 이해하고, 감정이 외부 원인 결정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 이것은 마음이 감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이다.

【주석 4】 養: 자기의 고유한 필연적인 본성을 따라 살아서 자기의 감정을 정확

하게 이해한다.

⑧ (伊川先生曰:) 愚者不知制, 縱其情而至於邪僻, 梏其性而亡之.

(정이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이 영원한 무한한 생명과 사랑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감정을 제대로 알 수 없다. 자신의 감정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고, 감정이 본성을 따르는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감정이 외부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고 잘못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감정의 본성에서 벗어나 결국 비극으로 나아가게 된다. 그 결과 자기는 자기 몸에 고유한 본성을 잘못 이해하게 한다. 따라서 자신의 감정을 이해할 수 없다면, 자신이 영원 무한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없다.

【주석 1】 愚者: 자기의 감정이 영원히 무한한 생명과 사랑이라는 것을 모르고, 자기의 감정을 따르지 않고 사는 사람.

【주석 2】 縱其情: 감정의 필연적인 본성에서 감정을 이해하지 않고, 감정이 외부 원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생각한다. 자기의 감정이 모두 좋은 감정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감정이 영원무한한 생명과 사랑이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주석 3】 至於邪僻: 자기의 감정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고, 자기의 감정이 영원히 무한한 생명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 없다. 자기의 감정을 제대로 느낄 수 없고, 잘못된 방식으로 살면 결국 비극을 초래할 수 있다.

【주석 4】 梏其性: 자기의 본성이 영원무한한 생명과 사랑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면 감정의 본성을 알 수 없다.

【주석 5】 亡之: 자기의 본성이 영원무한한 생명과 사랑이라는 것을 모르고, 자기의 본성을 모르고 영원히 무한한 하늘 속에서 자기의 영원히 무한한 생명이 없다고 생각한다.

⑨ (伊川先生曰:) 然, 學之道必先明諸心, 知所往然後, 力行以求至.

(정이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하므로 학문의 방법은 반드시 자기 마음에 나아가 자기의 마음이 자기 안에서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배움으로써 자명하게 형

성하는 ‘자기이해’를 분명히 이해해야 한다. 이러한 마음의 자기이해는 자기 몸이 느끼는 자기 감정에 나아가야 한다. 그러한 이후에 자기 감정이 자기 안에 본래부터 품고 있는 본성의 필연성을 자기이해의 자명함으로 열심히 생각하고 배움으로써 감정 그 자체의 본성으로 존재하는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을 명백하게 이해(至)하는 것이다.

【주석 1】 明諸心: 자기의 마음은 자기의 필연적인 본성을 생각하고 배운다. 마음은 자기의 본성에서 생각하고 배우고, 자기의 본성이 영원무한한 생명과 사랑하는 것을 이해한다.

【주석 2】 知所往: 마음은 감정을 느끼는 몸으로 나아가고, 감정을 떠나지 않고, 자기의 몸으로 생활한다.

【주석 3】 力行以求至: 마음은 자기의 몸을 배우고 생각하며, 자기의 본성은 영원무한한 생명과 사랑이라는 것을 자명하게 이해한다. 자기의 천명으로 존재하는 천인이라는 것을 안다.

⑩ (伊川先生曰:) 所謂自明而誠也, 誠之之道在乎信道篤. 信道篤則行之果, 行之果則守之固.

(정이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마음은 자기이해의 자명함으로 자기감정을 그 자체의 본성의 필연성으로 이해한다. 즉, 자신의 감정을 영원무한한 생명과 사랑 속에 두고 이해한다. 그 결과 자기 감정이 본래부터 순수지선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한다.[所謂自明而誠也] 이 사실을 이해함으로써 감정의 진실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誠)이다. 이것을 위한 방법은 무엇보다도 자기이해의 자명함을 믿고 그 믿음으로 감정에 나아가 감정에 대한 참다운 이해를 형성하는 것이다.[誠之之道在乎信道篤] 자기이해의 자명함을 믿고 자기감정을 믿고 배우면, 자기 감정대로 살아간다.[信道篤則行之果] 그렇게 자기 감정의 진실을 이해함으로써 자기 감정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기답게 살아가는 최고의 행복이다. [行之果則守之固]

【주석 1】 自明而誠: 마음은 자기의 몸으로 돌아가 자기의 필연적인 본성을 자명하게 이해한다. 마음은 몸을 보면 자기의 몸이 부모로부터 온다는 것을 안다. 사고를 통해 자기의 필연성을 아는 것은 부모이고, 인과순서를 통해 자기의 본성을 깨닫는 것은 영원한 무한한 천명 속에서 영원무한한 생명과 사랑이다.

【주석 2】 誠之: 자기의 본성은 영원히 무한한 생명과 사랑이며, 이 사실로 살고, 이 사실을 포함하는 몸으로 생활한다.

【주석 3】 信道篤: 자기가 천명으로 사는 천인이라는 것을 알고 이 사실을 믿는다. 이것이 자기의 본성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라고 믿고, 자기의 영원무한한 생명과 사랑이라고 믿는다.

【주석 4】 行之果: 자기의 본성을 자명하게 이해한 후 자기의 감정이 모두 좋은 감정이라고 믿는다. 자기의 감정을 느끼고 감정으로 살아라.

【주석 5】 守之固: 자기의 본성의 진상을 알고, 진상을 따라 사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다.

⑪ (伊川先生曰:) 仁義忠信不離乎心, 造次必於是, 顛沛必於是, 出處語默必於是.

(정이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마음은 몸을 떠날 수 없다. 몸이 없으면 마음도 없기 때문이다. 몸의 본성은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이며, 이 진실을 인의충신(仁義忠信)이라 한다. 그러므로 몸의 본성으로서 인의충신은 마음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몸이 어디를 가더라도 마음은 몸의 본성과 항상 함께 하며, 심지어 몸이 넘어지는 순간에도 마음은 몸의 본성과 항상 함께 한다. 몸이 나가고 들어가며 말을 하거나 침묵할 때에도 마음은 몸을 떠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마음은 절대적으로 몸의 본성 그리고 몸의 본성으로부터 필연적인 감정의 본성 안에서 오직 이 본성만을 이해하며 살도록 결정되어 있다.

【주석 1】 仁義忠信不離乎心: 인의충신(仁義忠信)은 우리 몸의 본성이며 영원무한한 생명과 사랑이다. 우리의 마음은 몸을 떠날 수 없고, 본성도 마음을 떠나지 않는다.

【주석 2】 造次必於是: 몸이 어디에 있든, 마음은 몸을 떠나지 않고, 마음은 몸의 본성과 함께 있다.

【주석 3】 顛沛必於是: 자기의 본성은 영원히 무한한 생명과 사랑이기 때문에 몸이 쓰러져도 몸을 떠나지 않는다.

【주석 4】 出處語默必於是: 몸이 나가거나 들어오거나, 일을 말하거나 말을 하지 않는다. 마음은 몸을 떠나지 않고, 마음은 신체의 필연적인 본성에서 진상을 이해한다.

⑫ (伊川先生曰:) 久而弗失則居之安, 動容周旋中禮, 而邪僻之心無自生矣.

(정이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감정의 필연적인 본성은 영원의 필연성 그 자체로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이기 때문에 마음이 이 사실을 인식하는 한에서 마음은 자기의 감정 안에서 편안한다. 감정대로 살아가는 것이 감정 그 자체의 논리에 딱 들어맞게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마음은 감정에 대한 인식의 오류를 범하지 않게 된다.

【주석 1】 久而弗失: 감정의 필연적인 본성은 영원무한한 존재하고, 우리 몸에는 영원무한한 생명이 있다.

【주석 2】 居之安: 마음은 그 자체 안에서 자기의 본성을 이해하고, 자기의 본성이 영원무한한 생명과 사랑이라고 믿으며, 이 진실에서 안전하다고 느낀다.

【주석 3】 動容周旋中禮: 감정으로 생활하고, 자기의 감정을 느끼고, 감정 자체로 돌아가 감정을 이해하다.

【주석 4】 而邪僻之心無自生: 감정의 본성은 영원무한한 생명과 사랑이다. 이것은 감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다. 그러면 잘못된 이해가 없다.

⑬ (伊川先生曰:) 故, 顏子所事則曰 非禮勿視, 非禮勿聽, 非禮勿言, 非禮勿動.

(정이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자신의 감정이 영원히 무한한 생명과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자기가 느끼는 자기 감정의 진실 안에서 자기 감정대로 살아가게 된다.) 그러므로 안자가 학문으로 한 것이 무엇인지 말하자면, 감정 그 자체의 논리 안에서 보고 듣고 말하고 살아간 것이다. 안연은 자기가 보고 듣고 말하고 움직이는 중에 자기가 느끼는 감정을 외부 원인에 의해서 결정되었다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에 고유한 감정의 본성으로 이해한 것이다.

【주석 1】 禮: 먼저 부모가 있고 우리 몸이 있다. 왜냐하면 몸의 본성은 부모의 영원무한한 생명과 사랑이기 때문이다. 부모 없이는 우리가 없다. 이 인과 순서를

존중하는 것은 우리 자기의 필연성에 부합한다.

【주석 2】 非禮勿視, 非禮勿聽, 非禮勿言, 非禮勿動: 자기의 영원무한한 본성 안에서 보고, 듣고, 말하고, 움직인다. 감정 자체의 고유한 본성에서 감정을 이해하고 감정을 느낀다.

⑭ 仲尼稱之則曰 得一善則拳拳服膺而弗失之矣. 又曰 不遷怒不貳過. 有不善未嘗不知, 知之未嘗復行也.

공자가 안연의 학문을 두고 칭찬하며 말하기를, ‘자기 감정에 대한 참다운 인식으로 자기 감정의 순수지선을 이해(得)하면, 그것으로 자기 몸 그 자체의 본성을 이해함으로써 자기 진실이 무엇인지 명백하게 이해했다.’라고 했다. 또 말하기를, ‘분노를 자기이해의 자명으로 이해함으로써 자기 감정이 외부 원인에 의해서 결정되었다는 타당하지 못한 인식을 형성하지 않았으며, 인식의 오류를 실재하는 것으로 착각하며 계산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왜냐하면 마음이 감정에 대한 인식의 오류를 범하면, 그 즉시 감정은 자기 스스로 마음의 오류를 인식하며 마음으로 하여금 자신의 잘못을 바로 잡도록 인도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마음이 자기 감정 안에서 자신이 잘못 형성한 인식의 오류를 깨닫게 되면, 그 즉시 마음은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는다.

【주석 1】 得一善: 자기가 몸속에서 자기의 본성을 자명하게 이해하고, 자기의 본성이 순수하고 선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주석 2】 拳拳服膺: 이 사실은 몸의 진실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몸을 떠나지 않는다. 엄밀히 말해서 마음이 간직하는 사실이 아니라 마음이 자기 몸에서 자기 진실이 무엇인지 깨닫는다. 이것이 복응(服膺)이다.

【주석 3】 弗失之: 자기의 필연적인 본성은 영원히 무한한 생명과 사랑이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두고, 마음은 자신의 본성을 떠나지 않는다. 따라서 절대 잃어버리거나 빼앗길 수 없다.

【주석 4】 不遷怒: 자기의 감정은 외부 원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 본성의 필연성만을 따라서 존재한다. 이 본성은 영원무한의 생명이자 사랑이며, 그 기원은 내 몸의 본성으로 존재하는 엄마아빠의 사랑과 생명 그 자체이다. 이



진실이 분명하기 때문에 분노의 감정도 외부 원인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본성의 필연성만을 따라서 존재한다. 이렇게 감정의 본성 안에서 감정 스스로 자신의 필연성을 이해하면, 감정은 절대 외부 원인에 수동적으로 의존해서 자신을 이해하지 않고, 따라서 외부 원인을 향해 나아가지 않는다. 분노도 영원무한한 생명과 사랑 속에 있다.

【주석 5】 不貳過: 잘못(過)은 감정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서 잘못은 행동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감정에 대한 배움으로 감정의 진실대로 살아가는 우리 본래의 진실로서 성(聖)은 잘못의 행위를 인간 본성에 대한 이해에 넣지 않는다. 즉, 행동의 잘못을 양(量)으로 계산하지 않는다. 그 결과 감정과 세상이 모두 좋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자신의 감정을 잘못 이해하는 비극에 처하지 않게 된다.

【주석 6】 有不善未嘗不知: 마음이 자기 감정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자기 감정에 선악(善惡)이 함께 있다고 잘못 이해하면, 그 즉시 몸은 자기 본성의 순수지선을 따라서 마음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는다. 즉, 감정에 대한 마음의 잘못된 인식은 감정이 그 즉시 마음으로 하여금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고 학문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기 감정에 솔직한 가운데 자기 감정의 진실을 열심히 배우는 것이다.

【주석 7】 知之未嘗復行: 감정의 필연적인 본성에서 감정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감정이 외부 원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 이렇게 하면 감정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부터 멀어진다.

⑮ 此其好之篤, 學之之道也.

이것은 안자가 좋아하고 믿는 좋은 학문이다. 공부와 사고를 통해 자신의 본성이 영원무한한 생명과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자신이 느끼는 감정이 모두 좋은 감정이라는 것을 알고, 감정을 따른다. 자기 감정 안에서 천명을 이해하고, 자기 감정의 천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안자의 학이다.

⑯ 然, 聖人則不思而得, 不勉而中. 顏子則必思而後得, 必勉而後中. 其與聖人, 相去一息.

그러므로 성인(聖人)은 몸으로 생겨나 몸으로 놀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인은

자기 몸의 진실 안에서 자기 몸이 느끼는 감정의 진실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인은 오직 감정의 진실인 감정의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 진실은 감정 그 자체에 고유한 진실이며, 동시에 지금 몸이 느끼는 감정이다. 이 사실이 분명하기 때문에 聖人은 힘들이지 않아도 자기 감정의 진실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聖人則不思而得, 不勉而中]

이 사실이 분명하기 때문에 안연(‘나’ 자신)은 반드시 자기 감정에 나아가 자기 사유의 자명으로 자기 감정의 진실을 이해한다. 그렇기 때문에 안연(‘나’ 자신)은 반드시 열심히 배움으로써 자기 감정에 고유한 본래의 진실을 이해한다. [顏子則必思而後得, 必勉而後中]

그러므로 안연(‘나’ 자신)과 성인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성인의 진실 안에서 안연(‘나’ 자신)이 자기 본래의 진실이 성인으로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其與聖人, 相去一息.]

【주석 1】 聖人則不思而得, 不勉而中: 성인은 자신이 천명으로 존재하는 천자라는 것을 안다. 성인은 자기의 감정을 느끼고, 자기의 감정으로 생활하며, 자신의 영원한 무한한 생명과 사랑 속에서 산다.

【주석 2】 顏子則必思而後得, 必勉而後中: 안연 (나) 은 반드시 자신의 감정에 나아가 감정의 본성에 대해서 생각한 다음, 감정의 진실을 깨달았다. 그렇게 반드시 열심히 생각하고 배움으로써 자기 감정의 진실대로 살아가는 축복을 누릴 수 있었다.

【주석 3】 其與聖人, 相去一息: 안연(其)과 성인(聖人)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성인 안에서 안연은 성인의 진실 그대로 자기의 행복을 누렸다. 성인의 축복이 보다 더 커지는 행복이 안연의 학문이다.

⑩ 所未至者守之也, 非化之也. 以其好學之心, 假之以年則不日而化矣.

자기 감정의 진실 그리고 자기 감정의 진실로부터 필연적으로 이해하는 몸의 진실은 이미/본래(未)부터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깨달음으로써(至) 자기의 감정을 지키는 것이다. 자기감정을 변화시키거나 조절하는 것이 아니다[非‘化之’也]. 자기 이해의 자명함으로 자기감정을 참답게 이해하는 마음이 매순간 자기 감정

에 대한 타당한 이해를 형성하면, 그 즉시 자기 감정이 본래부터 영원무한의 순수 지선 안에서 생명과 사랑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한다. [不日而‘化’]

【주석 1】 所未至者守之: 감정의 본성은 영원무한하고, 감정을 느끼는 몸도 영원무한하다. 이 사실을 믿고, 이미 존재하는 몸, 그리고 몸이 느끼는 감정의 진실인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을 지킨다.

【주석 2】 非化之也: 감정은 신체의 변용이므로 감정의 본성에서 감정을 이해하는 것은 감정을 바꾸고 조절하는 것이 아니다.

【주석 3】 假之以年: 마음은 감정의 본성에서 자신의 감정을 자명하게 이해한다.

【주석 4】 不日而化: 감정의 본성에서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자신의 감정이 영원무한한 생명의 사랑이라는 것을 아는 것은 순수지선이다. 시간이 걸리는 것이 아니다(不日). 깨닫고 나면, 그 즉시 본래부터 존재하는 감정의 순수지선을 이해한다(化).

⑱ 後人不達, 以謂聖本生知, 非學可至. 而爲學之道遂失.

후세 사람들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여, ‘성(聖)은 본래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아는 것이어서 배움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잘못 생각했다. (이 말은 ‘본래부터 몸으로 생겨나 몸으로 놀이하는 것이 성(聖)이기 때문에 이 진실 안에서 매순간 느끼는 감정이 본래부터 성(聖)이라는 사실을 배워서 깨닫는 것이라는 학문의 즐거움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뜻한다.) 그 결과 학문의 방법을 마침내 상실하고 말았다.

【주석 1】 後人不達: 후세의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이 영원무한한 생명과 사랑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자신의 영원무한한 본성이 본래부터 자기 감정 안에 있다는 것을 모른다.

【주석 2】 聖本生知, 非學可至: 성(聖)은 우리 몸의 진실이며, 동시에 우리 몸이 느끼는 감정의 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몸은 자기 본성 안에서 자기 본성의 필연성만을 따라서 존재하며,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몸이 느끼는 감정 또한 자기 본성 안에서 자기 본성의 필연성만을 따라서 존재한다. 이 사실이 분명하기 때문에 성

(聖)을 사실상 배운 다음에 아는 것이 아니다. 몸, 그리고 몸이 느끼는 감정이 본래 부터 자기 스스로 자명하게 이해하고 자기 스스로 자명하게 존재한다. (그러므로 이 사실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상 몸으로 생겨나는 순간 이 모든 진실을 알고 있으며, 그러한 한에서 이 모든 진실을 배워서 이해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⑲ 不求諸己而求諸外, 以博聞強記, 巧文麗辭爲工, 榮華其言, 鮮有至於道者.

(학문의 진실은 자기 몸에 나아가 자기 몸-생김 그 자체의 진실을 이해하는 것이며, 이 이해에 근거하여 자기 몸-놀이인 감정 그 자체의 진실을 이해하는 것이다. 동시에 이 진실의 영원한 필연성 안에서 자기 몸-놀이의 감정에 나아가 그에 고유한 본성의 필연성을 이해하고(約其情), 그것으로 몸-생김 그 자체의 진실을 이해하는 것이다(養其性).)

그렇기 때문에 학문의 방법을 상실한 결과, 사람은 자기 몸/감정에 나아가 자기 몸/감정의 진실을 이해하지 않고, 몸/감정의 감각적 현상만을 두고 몸/감정의 좋음(善)과 나쁨(惡)을 논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감각적 현상에 의존하여 그저 많이 보거나 듣는 것을 종합함으로써 암기하는데 급급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 그것으로 글을 꾸미거나 말을 그럴싸하게 다듬는 데에 몰입하게 되었다. 그 결과 몸/감정의 진실을 이해하는 사람이 극히 드물게 되었다.

【주석 1】 不求諸己而求諸外: 마음은 자신의 몸속에서 신체의 고유한 진상을 자명하게 이해한다. 같은 방식으로 마음은 자기의 감정 속에서 감정의 고유한 진상을 자명하게 이해한다. 마음이 자기의 사유를 떠나서 다른 것에 의존해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다. 마음이 자기 스스로 자기 몸과 자기 몸이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 생각하고 배우면, 그 즉시 마음은 몸과 감정의 진실을 깨닫게 된다. 감정은 영원무한한 생명과 사랑이고, 감정을 느끼는 몸도 영원무한하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된다.

【주석 2】 博聞強記, 巧文麗辭爲工, 榮華其言: 마음이 자기 몸과 자기 몸이 느끼는 감정의 진실을 생각하지 않고 배우지 않으면, 마음은 매순간 새로운 자기감정을 배우지 않고, 그 대신 몸의 감각에 간혀 감각으로 보고 듣는 것에 집중하게 된다. 그 결과 감각적으로 지각한 것만을 암기하거나 그것으로 문장을 꾸미는데 몰입하게 된다. 그 결과 그런 말들도 부귀와 영화를 추구하는 비극에 처하게 된다.

⑳ 則今之學, 與顏子所好, 異矣.

그러므로 지금 학문을 하는 사람은 안자가 좋아한 학문과 다르다.

### 제3절 「안자호학론」의 감정과학

이 절에서는 2절의 주석에 근거하여 정이의 「안자호학론」을 감정과학으로 간단하게 정리하겠다. 정이가 이해한 공자와 안연의 학문론은 감정에 대한 타당한 인식을 그 자체의 본성으로 이해하는 ‘감정의 자기이해’라는 사실, 그리고 이 이해는 감정에 대한 이해를 본성의 필연성에 근거하여 명백하게 형성하기 때문에 ‘과학’이라는 사실을 정리하였다. 이 논의를 통해서 우리는 학문의 진실이 감정과학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 확인을 통해서 현대 중국이 처한 학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의 기초를 세울 수 있다.

#### 1. 감정의 자기이해

정이는 「안자호학론」에서 학문의 방법으로서 ‘약기정(約其情)’을 제시했다.

⑦ (伊川先生曰:) 是故, 覺者約其情, 使合於中. 正其心, 養其性.

(정이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에 대한 오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잘못을 깨닫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자기의 감정을 외부 원인(外物)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자기 본성의 필연성으로부터 영원무한 그 자체로 결정되었다는 사실을 이해한다(約其情). 그렇게 감정에 대한 타당한 이해를 형성함으로써 몸 그 자체의 본성으로부터 감정 그 자체의 본성이 영원의 필연성으로 결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한다. 이것이 자신의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이며(正其心), 자기 몸에 고유한 본성의 필연성을 따라서 자기 감정의 진실을 이해하고 감정대로 살아가는 것이다(養其性).<sup>68)</sup>

여기에서 중요한 논점은 학문의 순서이다. 정이에 의하면, 약기정(約其情)이 정심(正心)과 양성(養性)의 방법이다. 이 방법을 되게도 『성학십도』의 제6도 「심통성정도」에서 다음과 같이 확인했다.

신근안 정자호학론 약기정 제정심 양성지전 차반거후자 차이심통성정언고야연  
臣謹按, 程子好學論, 約其情, 在正心, 養性之前, 此反居後者, 此以心統性情言故也. 然,

68) 『二程集』, 「顔子好學論」, 논자의 번역이다.

퇴계에 의하면 약기정(約其情)이 학문의 방법이다. 정심과 양성은 방법이 따로 없다. ‘약기정’이 정심과 양성을 위한 방법이다. “연, 구기리이언지, 당이정론위순(然, 究其理而言之, 當以程論爲順).”이라 했다. 여기에서 정론(程論)은 정이의 「안자호학론」이며, 핵심은 약기정이 정심과 양성 앞에 있는 것이다. 그런데 ‘약기정’은 “자기의 감정을 외부 원인(外物)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자기 본성의 필연성으로부터 영원무한 그 자체로 결정되었다는 사실을 이해한다(約其情).”는 것이다. 감정에 대한 타당한 인식으로서 감정과학이 마음을 바르게 하고 자기 몸(性)을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으로 확인하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우리 몸은 영원무한 그 자체인 천명(天命) 안에서 생겨나고 놀이한다. 몸의 본성은 몸이 느끼는 감정의 본성으로 존재한다. 감정은 무한한 방식으로 무한하게 존재하며 변화하지만, 그 모든 무한성은 몸 그 자체의 본성으로서 천명(天命) 안에 존재하며 오직 천명(天命)만을 영원의 필연성으로 따른다. 그렇기 때문에 무한한 감정의 무한한 변화에 나아가 그에 고유한 본성의 필연성을 이해하면, 이 이해가 실질적으로 천명에 대한 이해이며, 이것은 궁극적으로 몸 그 자체에 고유한 본성의 필연성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 이해의 순서가 약기정으로 정심과 양성을 하는 것이다.

감정에 대한 정확한 인식은 감정의 필연성에 근거하여 감정의 현상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때 감정의 감각적 현상이 형기(形氣)이다. 무한한 방식으로 무한하게 생겨남과 동시에 무한한 방식으로 무한하게 변화하는 감정이 ‘형기’이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일상에서 체험하거나 경험하는 감정의 무한성을 뜻한다. 그래서 형기(形氣)는 우리가 구체적인 이름을 부르는 행복, 슬픔, 분노 등과 같은 감정이다.

「안자호학론」에서 정이는 감정의 현상으로서 형기에 국한하여 감정을 이해하지 않는다. 감정의 본성을 명확하게 이해하자고 주장한다.

사람은 귀, 눈, 입, 코가 있다. 이것들은 모두 내 몸의 일부분이고 모두 사욕이 있다. 사욕을 따르되 그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나쁜 일을 하게 된다.<sup>70)</sup>

정이에 의하면 우리 모두는 ‘사욕’(私慾)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욕은 욕망에 대한 부정적 의미가 아니다. 사욕은 욕망의 무한성이다. 욕망은

69) 퇴계 이황(退溪 李滉), 『성학십도(聖學十圖)』, 「제육심통성정도(第六心統性情圖)」: 臣謹按, 程子好學論, 約其情, 在正心, 養性之前, 此反居后者, 此以心統性情言故也. 然, 究其理而言之, 當以程論爲順.

70) 『二程集』, 「顔子好學論」, 논자의 번역이다.

무한하기 때문에 무한하게 서로 다르다. 이러한 욕망의 무한성과 다름을 사욕이라 한다. 문제는 사욕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다. 사욕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사욕에 내재된 그 자체의 본성이다. 이 본성을 이해하지 않고 막연하게 사욕만을 따라서 살면 이것은 욕망 그 자체의 본성에 어둠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감정의 진실을 어기는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된다. 이것을 '사욕을 따르되 그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나쁜 일을 하게 된다.'라고 확인한다.

형기가 일으키는 사욕은 내가 배고파(私) 빵을 먹고 싶어(欲) 하는 것과 같다. 사욕은 우리 몸에 고유한 욕망이다. 자기 몸으로 무한하게 느끼는 자기의 욕망이 사욕이다. 이것은 사실상 지금 우리 모두의 욕망이다. 그러나 이 모든 사욕의 무한성은 몸으로 느낀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절대적으로 외부적인 원인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몸의 본성으로 존재하는 천명의 필연성 안에 있다. 이 이유 때문에 욕망 및 욕망에서 나오는 감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반드시 욕망과 감정에 고유한 본성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 이해가 정이의 약기정이다. 감정의 필연적인 본성을 이해하면, 그것으로 자기 몸의 본성이 필연적으로 천명의 순선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안자호학론」에 근거하여 우리는 이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정이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에 대한 오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잘못을 깨닫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자기의 감정을 외부 원인(外物)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자기 본성의 필연성으로부터 영원무한 그 자체로 결정되었다는 사실을 이해한다. 그렇게 감정에 대한 타당한 이해를 형성함으로써 몸 그 자체의 본성으로부터 감정 그 자체의 본성이 영원의 필연성으로 결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한다. 이것이 자신의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이며, 자기 몸에 고유한 본성의 필연성을 따라서 자기 감정의 진실을 이해하고 감정대로 살아가는 것이다.<sup>71)</sup>

이 인용문은 정이의 감정과학을 포함하고 있다. 자신의 감정을 떠나지 않고 필연적인 본성에서 감정을 생각하며 감정이 자신의 본성에 의해 결정되고 외부 환경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 감정의 필연적인 본성에서 감정을 이해하는 것은 감정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다. '中'은 능동적이다. 감정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수동적인 것이 아니다. 감정을 능동적으로 이해해야 자신의 감정이 모두 좋은 감정이고 감정의 본성을 따르는 감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이 감정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다. 그래서 감정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토대에서 정이는 '養其性'을 제시하고 자신의 신체의 필연적인 본성을 따라 감정과 생활을 이해해야 한다.

71) 『二程集』, 「顔子好學論」, 논자의 번역이다.

이 사실을 생각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으면 감각의 형기를 감정의 본성으로 이해하고 감정이 외부 원인으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는 잘못된 이해이고 좋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해를 고집하면, 최종 결과는 ‘악’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본성이 ‘선’인 사람이라도 악을 행할 수 있다. 자신의 본성을 배우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 비극이다. 학습을 통해 감정의 필연적인 본성에서 감정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감각의 측면에서가 아니라, 감정과학은 감정의 필연성에서 감정을 이해하는 것이다.

우리의 감정은 몸이 느끼는 감정이고, 감정과 몸은 불가분의 관계이다. 우리의 본성은 부모의 조상과 천(天)에서 비롯되며, 가장 높은 완전성과 선(善)이다. 정이는 안자의 ‘好學’에서 ‘不思不學’의 비극을 피하고, 몸과 감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 자신과 천지 만물의 필연성을 이해하는 것은 좋은 사실이다. 이 방법은 ‘극기복례(克己復禮)’를 통해 이런 비극을 피한다. ‘형이상(形而上)’과 ‘약기정’을 통해 자신의 운명을 이해하고, 사욕을 통해 자신의 필연성을 ‘형이상’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안자의 ‘好學’은 감정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극복하고 감정을 정확하게 인식한 것이다. 학습을 통해 감정이 외부 원인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감정 자체의 필연성에서 탄생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 2. 감정을 믿고 배우는 과학

앞에서 우리는 극기복례가 우리 몸에 고유한 본성의 필연성을 이해하고 따르는 것으로 이해했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것은 안자의 호학(好學)이다. 이 학문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정이가 제시한 것은 약기정(約其情)이다. 정이는 감정에 대한 타당한 이해를 통해서 감정의 본성을 필연성으로 이해하고, 이 이해로 몸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형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극기복례는 감정에 대한 타당한 인식으로서 약기정이다.

약기정(約其情)은 감정이 외부 원인에 의해서 결정되었다는 인식의 오류를 바로 잡는 방법이다. 감정은 본래부터 자기 존재에 관하여 본성의 필연성을 따를 뿐만 아니라 자기 본성의 필연성을 따라서 무한한 방식으로 무한하게 변화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정을 ‘약기정’한다고 할 때 그것은 감정의 필연적인 본성을 이해하고 그것으로 감정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 이해의 진실을 정이는 「안자호학론」에서 다음과 같이 확인했다.



감정을 외부적인 원인으로 인식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을 학습을 통해 알게 된다. 감정의 필연성에서 감정을 이해하는 쪽으로 회귀해야 한다. 이것이 정이의 約其情이다.<sup>72)</sup>

자신의 감정과 약속을 하고 자신의 감정을 떠나지 않는다. 감정의 본성에서 감정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감정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멀리한다. 이것은 같은 관점이다. 그래서 ‘約其情’는 ‘克己復禮’이다.

안자의 학문은 외부 원인이 아니라 감정의 필연성으로 감정을 이해하는 것이다. 안자는 올바른 방법을 따를 뿐만 아니라 생각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는 잘못된 방법이 비극의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런 잘못된 인식은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을 외부 원인으로 잘못 이해하게 한다. 이런 마음의 오류를 바로 잡는 것이 ‘정기심(正其心)’이다. 그렇다면 마음을 바로 잡는 방법은 간단하다. 감정을 그 자체의 필연성으로 배우는 ‘약기정’이다. 따라서 우리는 정이의 학습 방법이 생각하는 마음의 능동성으로 감정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임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마음이 감정에 대한 참다운 인식을 형성하면, 그것은 곧 몸에 대한 인식으로 확립된다. 왜냐하면 몸-생김의 진실로부터 몸-놀이의 진실은 연역한다는 것은 역으로 몸-놀이의 진실을 이해함으로써 몸-생김의 진실을 이해한다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약기정으로 마음을 바르게 하고, 그것은 곧 몸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 인도한다. 그 결과 깨닫게 되는 진실은 몸-생김의 진실이다. 정이는 이 진실을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밝힌다.

정이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빠(天, 영원)와 엄마(地, 무한)의 생명과 사랑을 그대로 물려받아 태어난 것이 ‘나’(사람)이다.<sup>73)</sup>

몸-생김의 진실은 “아빠(天, 영원)와 엄마(地, 무한)의 생명과 사랑을 그대로 물려받아 태어난 것이 ‘나’”이다. 감정에 나아가 약기정을 하면, 즉 감정의 본성을 이해하면, 그 즉시 우리는 생명과 사랑을 확인하게 된다. 이 생명과 사랑이 몸-놀이로서 감정의 진실이라면, 이 진실은 몸-생김의 진실이다. 다시, 이 진실을 우리가 몸-생김의 진실로 이해하는 한에서 이 진실은 당연히 감정의 진실이다.

정이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마음은 자기이해의 자명함으로 자기감정을 그 자체의 본성의 필연성으로 이해한다. 즉, 자신의 감정을 영원무한한 생명과 사랑 속에 두고 이해한다. 그 결과 자기 감정이 본래부터 순수지선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72) 『二程集』, 「顔子好學論」, 논자의 번역이다.

73) 『二程集』, 「顔子好學論」, 논자의 번역이다.

을 이해한다. 이 사실을 이해함으로써 감정의 진실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誠)이다. 이것을 위한 방법은 무엇보다도 자기이해의 자명함을 믿고 그 믿음으로 감정에 나아가 감정에 대한 참다운 이해를 형성하는 것이다. 자기이해의 자명함을 믿고 자기 감정을 믿고 배우면, 자기 감정대로 살아간다. 그렇게 자기 감정의 진실을 이해함으로써 자기 감정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기답게 살아가는 최고의 행복이다.<sup>74)</sup>

몸의 진실이 곧 몸으로 놀이하며 느끼는 감정의 진실이다. 역으로 감정의 진실이 곧 몸으로 생겨나는 몸 그 자체의 진실이다. 이 둘 사이에는 절대적으로 우연성은 개입하지 않으며, 따라서 절대적으로 필연성 안에 존재한다. 이 사실을 스피노자도 다음과 같이 확인했다.

|| 3부, 정의 3. ||

나는 정서를 신체의 활동 능력을 증대시키거나 감소시키고, 촉진하거나 저해하는 신체의 변용인 동시에 그러한 변용의 관념으로 이해한다.<sup>75)</sup>

감정은 자신의 존재를 몸으로부터 연역한다. 몸을 떠나서는 감정이 존재할 수 없다. 이 사실을 스피노자는 “나는 정서를 … 신체의 변용인 동시에 그러한 변용의 관념으로 이해한다.”라고 했다. 감정은 신체적 사건이다. 엄밀히 말해서 마음의 사건이 아니다. 마음은 신체적 사건으로서 감정에 대한 관념을 형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마음이 귀한 이유는 오직 마음만이 자기가 관념을 형성하는 감정을 현상이 아닌 그 자체의 본성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스피노자는 다음과 같이 밝힌다.

|| 1부, 정의 3. ||

나는 실체란 자신 안에 있으며 자신에 의하여 생각되는 것이라고 이해한다.

|| 1부, 정의 6. ||

나는 신을 절대적으로 무한한 존재, 즉 모든 것이 각각 영원하고 무한한 본질을 표현하는 무한한 속성으로 이루어진 실체로 이해한다.<sup>76)</sup>

신은 영원무한을 자신의 속성으로 갖고 있으며, 그에 대한 이해는 오직 신 자신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영원무한은 오직 영원무한으로 존재하는 신 자신에 의해서 이해된다는 것이다. 이점을 명확히 하고, 스피노자의 다음과 같은 정의를 들어보자.

74) 『二程集』, 「顔子好學論」, 논자의 번역이다.

75) 스피노자, 강영계 역, 『에티카』 「3부 정의 3」 (서광사, 2007), p. 153.

76) 스피노자, 강영계 역, 『에티카』 「1부 정의 3」 「1부 정의 6」 (서광사, 2007), pp. 19-20.

|| 5부, 정리 22. ||

그렇지만 신 안에는 이 그리고 저 인간 신체의 본질을 영원한 상 아래 표현하는 관념이 필연적으로 존재한다.<sup>77)</sup>

영원무한으로 존재하는 신 안에 인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즉, 이것은 감정과학의 몸-생김에 해당한다. 이 사실을 본 논문은 지천명(知天命)으로 확인했다. 인간 신체의 본질이 신 안에 존재한다고 했으므로, 몸-생김의 진실은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 안에 존재한다. 그리고 이 사실은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영원무한 그 자체인 단 하나의 필연성으로 신 안에 존재하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는 “|| 3부, 정의 3. ||”에서 감정의 진실을 신체의 변용으로 이해했다. 그런데 인간의 몸은 “|| 5부, 정리 22. ||”에 의해서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을 자기 본성으로 갖는다. 따라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결론은 필연적이다. 몸-생김의 진실이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으로 존재하는 단 하나의 필연성으로서 신 안에 존재하는 것과 같은 이치로 신체의 변용으로서 몸-놀이의 감정도 당연히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으로 존재하는 단 하나의 필연성으로서 신 안에 존재한다. 이 사실을 성동권은 다음과 같이 확인한다.

자기가 다시(reflexively) 자기의 생김에 대해서 생각하고 배우면(understanding), 자기는 최고의 완전성 그 자체로 본래부터 존재하는 신의 존재를 확인할 뿐만 아니라 이 신으로부터 자신이 유래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 사실을 “자기 자신이라고 욕구함에 있어서 ‘신의 내부’에 투명하게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이라 합니다. 자기는 신 안에 존재하며 신 안에 생겨나 놀이합니다.<sup>78)</sup>

몸-생김과 몸-놀이는 절대적으로 신 안에 존재한다. 즉,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을 자기 본성의 필연성으로 갖는다. 스피노자는 다음과 같이 확인한다.

|| 1부, 정리 15. ||

존재하는 모든 것은 신 안에 있으며, 신 없이는 아무것도 존재할 수도 또 파악될 수도 없다.<sup>79)</sup>

그런데 신은 오직 신 자신에 의해서 이해되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우리는 지천명(知天命)을 근거로 우리 스스로 우리 몸-생김과 놀이를 관통하는 본질로서 영원무

77) 스피노자, 강영계 역, 『에티카』 「5부 정리 22」 (서광사, 2007), p. 351.

78) 성동권, 『서양 근대 19세기 감정과학의 성공』 (부크크, 2022), p. 245.

79) 스피노자, 강영계 역, 『에티카』 「1부 정리 15」 (서광사, 2007), p. 37

한의 생명과 사랑을 이해한다고 했다. 즉, 우리는 신의 본성을 이해한다. 이 이해를 스피노자는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 5부, 정리 30. ||

우리들의 정신은 자신과 신체를 영원한 상 아래에서 인식하는 한에서 필연적으로 신에 대한 인식을 소유하며, 자신이 신 안에 있으며 신에 의해서 파악된다는 것을 안다.<sup>80)</sup>

“자신이 신 안에 있으며 신에 의해서 파악된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사실상 신이 자신을 이해하는 것과 같다. 이 사실을 스피노자는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 5부, 정리 36. ||

신에 대한 정신의 지적 사랑은, 신이 무한한 한에서가 아니라 영원한 상 아래에서 고찰된 인간 정신을 통해서 설명될 수 있는 한에서 신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신의 사랑 자체이다. 즉 신에 대한 정신의 지적 사랑은 신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무한한 사랑의 일부이다.<sup>81)</sup>

“신에 대한 정신의 지적 사랑은 신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무한한 사랑의 일부이다.”라고 했다. 지천명(知天命)은 우리의 마음이 자기 사유의 능동성 안에서 자기 몸-생김과 놀이의 진실을 이해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이해는 사실상 신이 자신을 자기 스스로 이해하는 것이다. 바로 이 결론에서 우리는 정이의 논리를 다시 확인하게 된다. 몸-생김의 진실로부터 몸-놀이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과 몸-놀이의 감정을 본성의 필연성으로 이해함으로써 몸-생김의 진실을 본성의 필연성으로 이해하는 것은 서로 같다. 따라서 감정에 나아가 그에 고유한 본성을 이해하면, 그것이 곧 생각의 바름이며 동시에 몸의 진실을 영원무한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이 이해는 다음과 같은 논리적 구조를 갖는다.

|| 정리9의 증명. ||

정기(情氣)는 【정의 4에 의하여】 무한한 방식으로 존재하며 무한하게 새롭지만, 그 모든 정(情)은 【정리 7의 주석에 의해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단 하나의 진실인 순수지선(純粹至善)의 정리(情理) 안에 있다. 이러한 정(情)의 필연성이 ‘리발이기수지(理發而氣隨之)’이다. 그러므로 정(情)을 불선(不善) 또는 악(惡)으로 규정하는 오류의 가능성 또는 정(情)에 근거한 행동이 뜻밖에 불선(不善)이나 악(惡)으로 흐르는 오류의 가능성은 오직 정리(情理)의 명명백백한 인식을 결여하는 불사불학(不思不學)의 기발이리승지(氣發而理乘之)에 있다.<sup>82)</sup>

80) 스피노자, 강영계 역, 『에티카』 「5부 정리 30」 (서광사, 2007), p. 355.

81) 스피노자, 강영계 역, 『에티카』 「5부 정리 36」 (서광사, 2007), p. 359.

감정에 대한 참다운 이해는 곧 감정에 고유한 본성의 필연성으로 감정의 무한한 현상을 참답게 이해하는 것이다. 이것이 정이의 약기정이다. 이 약기정을 형성하는 것이 정심(正心)이며, 이로부터 몸에 대한 올바른 인식으로서 양성(養性)은 필연적이다. 이 이해는 다음과 같은 논리적 구조를 갖는다.

【정리 4의 보충 2에서】 성리(性理)는 성(性)의 사실로서 순수지선(純粹至善)이고 이것은 사유가 자기 안에서 명백하게 이해하는 성(性) 그 자체의 사실이다. 이로부터 배움은 【정리 6의 증명에 의해서】 무한한 방식으로 무한한 성기(性氣)가 자기 본성으로 존재하는 순수지선의 성리(性理)를 따라서 필연적으로 순수지선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다. 따라서 성(性)에서 리기의 합(合)은 【정리 2의 보충 1에 의해】 성리(性理)의 순수지선 안에서 성기(性氣) 역시 필연적으로 순수지선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리기 인과의 영원한 필연성이다. 이 필연성으로부터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몸, 즉 합리기의 성(性)은 리(理) 안에서 있는 그대로 순수지선이라는 사실은 필연적이다.<sup>83)</sup>

약기정은 몸에 대한 바른 인식으로서 “무한한 방식으로 무한한 성기(性氣)가 자기 본성으로 존재하는 순수지선의 성리(性理)를 따라서 필연적으로 순수지선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확립한다. 몸의 생김을 현상으로 보며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고유한 본성의 필연성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그 결과 몸-생김의 순수지선을 확인한다.

이 이해가 바로 과학의 핵심이다. 이 핵심을 성동권은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 정리 5

마음은 성(性)에 관하여 순수지선(純粹至善)의 성(性)인 리(理)만을 알기 때문에 정(情)에 관하여도 순수지선(純粹至善)의 정(情)인 리(理)만을 안다.<sup>84)</sup>

결국 감정과 그것을 느끼는 몸을 순수지선으로 이해하는 것이 감정과학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이의 약기정(約其情)을 감정에 고유한 본성의 필연성으로 이해하는 한에서 정이의 학문론은 감정과학이다. 감정에 대한 이해가 ‘과학’인 이유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하나는 필연성이며, 다른 하나는 순수지선의 필

82) 성동권, “기하학적 질서에 따라 증명된 思學의 四端之情과 不思不學의 七者之情,” 『한국문화』 94(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21), p. 461.

83) 성동권, “기하학적 질서에 따라 증명된 思學의 四端之情과 不思不學의 七者之情,” 『한국문화』 94(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21), p. 461.

84) 성동권, “기하학적 질서에 따라 증명된 퇴계 선생의 경(敬), 『퇴계학논집』 (영남퇴계학연구원, 2016), p. 407.

연성이다. 과학은 필연성을 존립의 기초로 한다. 그러나 그 배움이 결과가 순수지선이 아니면 안 된다. 이 사실을 확인하지 않으면 전쟁과 폭력이 학문의 본질로 규정되기 때문에 이는 터무니없는 것이다. 따라서 필연성으로 순수지선을 이해하는 정이의 학문론은 감정과학이다.

## 제4장 현대 중국학문의 위기극복 방법

우리는 정이의 「안자호학론」에서 공자와 안연이 정초한 유교문화의 학문으로서 감정과학의 본질과 논리를 이해했다. 감정에 대한 사유와 학습을 통하여 감정의 진실을 순수지선으로 확인해야 한다. 이 진실로부터 감정을 느끼는 몸의 진실을 순수지선으로 확인해야 한다. 이로부터 ‘다 좋은 감정’과 ‘다 좋은 세상’을 확인하게 된다. 우리가 이 사실을 확인하면, 그 즉시 우리 모두는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을 누리는 축복을 받는다. 이 축복 속에서 행복은 본래부터 영원의 필연성으로 존재한다. 이 사실에 근거하여 현대 중국이 처한 학문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본 논문의 4장이 추구하는 목표이다.

### 제1절 연구자 자신의 행복 확인

공자와 안연의 감정과학은 정이에 의해서 「안자호학론」으로 정리된다. 그 결과 성리학 또는 중국 중세의 새로운 학문론으로서 신유학(新儒學)이 탄생하게 된다. 즉, 우리는 정이의 이 작품을 통해서 당(唐) 시대 이후 새롭게 접어든 송(宋) 시대의 새로운 학문론의 출현 배경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새로운 학문론의 출현은 엄밀히 말해서 기존의 학문론이 위기에 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관점에서 보면, 정이의 「안자호학론」은 자신이 처한 시대의 학문론이 위기에 빠져 있다는 인식과 함께 그에 대한 극복 방법으로서 새로운 학문론이다. 본 논문은 이 사실에 착안하여 현대 중국의 학문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기본 방법으로서 감정과학의 타당성을 주장하겠다.

#### 1. 학문의 본질 회복

북송(北宋) 시대에 학문의 위기가 발생하게 된 배경 및 원인을 「안자호학론」에서 찾을 수 있다. 정이에 의하면, 정이의 북송(北宋) 시대의 학자들 사이에 학문의 진상에 대한 인식의 오류가 발생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정이는 「안자호학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후세 사람들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여, ‘성(聖)은 본래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아는 것이어서 배움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잘못 생각했다. 그 결과 학문의 방법을 마침내 상실하고 말았다.<sup>85)</sup>

성(聖)을 지금 우리 자신의 진실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은 앞에서 충분히 논의한 바와 같이 순수지선에 어두워졌다는 것을 뜻한다. 다 좋은 감정, 그리고 다 좋은 세상을 우리 자신과 세상의 진실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로부터 사람과 세상은 전쟁과 폭력에 몰입하지 않을 수 없다. 전쟁과 폭력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그것에 정당성을 부여한다. 좋지 않은 것 또는 나쁜 것이 ‘있다.’는 생각으로 나쁜 것이 ‘존재한다.’는 주장을 하며, 중국에는 존재하는 나쁜 것을 없애야 한다는 전쟁을 실행에 옮기게 된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정이의 「안자호학론」을 감정과학으로 읽는 것이 왜 옳은지, 그리고 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학문과 세상의 행복과 진보를 가져오는지 이해하게 된다. 감정의 순수지선으로부터 감정을 느끼는 몸의 진실을 순수지선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학문은 자기 본성을 상실하고 전쟁 정신에 빠지게 된다. 이 지점에서 정이의 학문론이 왜 중요한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정이가 살았던 북송(北宋) 시대를 보면, 북송(北宋)은 오랜 시간 동안 전쟁을 겪었다. 예를 들면 북송(北宋)과 요(遼) 나라의 전쟁, 북송(北宋)과 하(夏) 나라의 전쟁, 그리고 북송(北宋)과 금(金) 나라의 전쟁이 그것이다. 『송사』의 기록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① 요(遼) 나라는 북송 동북부의 한 나라이다. 요와 송은 979~1004과 1122~1123에 걸쳐 두 번의 전쟁을 치렀다.
- ② 금(金) 나라는 요(遼) 나라를 정벌한 이후 1125~1234 사이에 여러 차례 북송과 전쟁을 치렀다.
- ③ 하(夏) 나라는 북송(北宋) 서남부에 있다. 이 나라는 1040로부터 시작하여 북송의 멸망에 이르기까지 4차례의 전쟁을 진행하였다.

정이의 북송(北宋)과 그 이후 남송(南宋)에 이르는 송(宋) 시대의 역사를 보면, 다 좋은 감정과 다 좋은 세상은 공허하게 들린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역사적 현상으로 세상의 진실을 해석하면, 그 즉시 약기정(約其情)이 아닐 뿐만 아니라 정심(正心)과 양성(養性)도 아니다.

위에서 정리한 전쟁의 역사를 보면, 우리는 ‘왜 세상은 다 좋은 세상이라는 자기

---

85) 『二程集』, 「顔子好學論」, 논자의 번역이다.



진실을 어기며 전쟁에 몰입하게 되는지 질문을 해야 한다. 감정과학에 따르면 우리는 이 세상이 좋은 세상이고 평화로운 세상이라는 것을 이해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명확하게 이해하면, 전쟁을 일으키는 요 나라와 하 나라를 나쁜 사람 또는 악한 나라라고 하면 안 된다. 착한 사람, 그리고 선한 나라가 왜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지 물어야 한다. 요 나라도 하 나라도 성인의 나라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여러 가지 관점으로 전쟁의 원인을 분석할 수 있다. 그러나 감정과학의 이론에 따르면 전쟁은 자신과 타인의 본성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성동권은 『유교(儒敎)의 반전평화 논리』에서 감정과학에 근거하여 전쟁의 원인을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반전평화를 외침으로써 싸우지 말자는 것과 반전평화의 논리를 세움으로써 그 논리를 배우며 살자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전자는 싸움이라는 현상만을 보기 때문에 싸우는 원인에 대한 참다운 이해를 결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은 결국 공염불에 불과 합니다. 반면 후자는 싸움의 원인에 대한 타당한 이해를 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싸우는 이유를 배우고 나면 서로 싸울 이유가 없다 는 것을 확인합니다.<sup>86)</sup>

‘반전평화를 외침으로써 싸우지 말자는 것’이 공허한 이유는 전쟁의 근본 원인을 분명하게 밝혀주지 않기 때문이다. 전쟁이 발생한 원인을 분석하지 않고, 그 대신 전쟁이라는 현상에 국한하여 전쟁을 하지 말라고 명령하는 것에 불과하다. 더 나아가 전쟁을 일으킨 나라를 향해 ‘너희들은 본성이 악하다.’라고 말하거나 ‘악으로 존재하는 나라가 있다.’라고 말한다면, 전쟁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악(惡)의 본성으로 존재하는 사람이 모여서 만든 악(惡)의 나라가 있다면, 당연히 세상은 선(善)과 악(惡)의 전쟁이 아닐 수 없다.

전쟁이라는 현상에 의존하여 수동적으로 생각하면 결국 전쟁을 피할 수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문이 감정과학이다. 감정과학에 의하면, ‘반전평화의 논리를 세움으로써 그 논리를 배우며 살자’고 주장한다. 전쟁의 현상에 나아가 그 현상이 자기 안에 품고 있는 원인을 명백하게 이해하자고 한다. 그리고 그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반전평화의 논리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힌다. 이 문제를 들여다 본 북송(北宋) 시대의 학자가 ‘정이’(程頤)다.

정이는 반전평화의 논리를 인간의 감정에서 찾는다.

공자가 안연의 학문을 두고 칭찬하며 말하기를, ‘분노를 자기이해의 자명으로 이해함으로써 자기 감정이 외부 원인에 의해서 결정되었다는 타당하지 못한 인식을 형

86) 성동권, 『유교(儒敎)의 반전평화 논리』 (부크크, 2018), p. 6.

성하지 않았으며, 인식의 오류를 실재하는 것으로 착각하며 계산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sup>87)</sup>

감정에 대한 타당한 인식은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다. 오히려 감정에 대한 타당하지 못한 인식으로 인해 전쟁이 발생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위의 인용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감정에 대한 인식의 오류는 감정을 본성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 밖 어떤 외부 원인에 의해서 결정되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감정을 잘못 이해하면, 감정의 원인으로 지목된 외부 원인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전개된다. 같은 맥락에서 행복의 감정이 외부 원인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하면, 외부 원인을 가져오거나 심지어 뺏어 와야만 행복하게 된다는 착각에 빠진다. 그 결과가 전쟁이다.

이처럼 행복과 분노 같은 감정에 대한 이해가 자기 본성이 아닌 외부 원인에 의존하면, 그 즉시 전쟁을 피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감정을 그 자체의 본성으로 이해하는 타당한 인식이다. 이 인식이 감정과학의 논리이다. 이 논리를 요약한 것이 정이의 「안자호학론」이다. 진정한 학문은 우리 몸의 진실을 배우고 그것으로 감정의 진실을 배우는 것이다. 이 배움으로부터 우리는 본래부터 행복으로 충만한 천자(天子)라는 사실이 분명하며, 이 사실로부터 천자(天子)의 욕망은 자기 본래의 행복 안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다. 즉, 세상의 선함과 성스러움을 배우는 것 이외 천자의 욕망은 없다.

이러한 천자(天子)의 욕망이 호학(好學)이다. 우리가 이렇게 배우면, 절대적으로 전쟁은 없다. 서로 사랑하며 평화롭게 생명을 지키게 된다. 이상의 정리에 근거하여 정이가 처한 북송(北宋) 시대의 문제를 정리했으므로, 최종적으로 본 논문의 문제제기인 현대 중국의 학문 위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착수하겠다.

본 논문의 1장 2절에서 이미 정리한 바와 같이 현대 중국의 학문에 위기가 발생한 배경을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 ① 연구자의 불평등과 연구 혁신의 결여
- ② 연구자의 연구 원동력의 상실
- ③ 전통문화 연구 중시자의 감소
- ④ 학문의 본질의 상실

이 가운데 네 번째인 ‘학문 본질의 상실’은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원인이다. 학문의 본질을 상실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감정에 대한 타당한 인식을 결여한다는

---

87) 『二程集』, 「顔子好學論」, 논자의 번역이다.

것이다.

연구자 자신의 감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 연구 혁신과 원동력을 상실하게 된다. 연구자가 자신의 감정을 느낄수록 연구의 정의성과 혁신성이 높아진다. 연구자의 연구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며, 이것은 일종의 욕망이다. 그러나 만약 연구자가 자기의 감정을 이해하지 않은 결과 급기야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연구하지 않는다면, 그의 연구에는 반드시 문제가 생길 것이다. 연구자가 하는 연구의 원동력은 자신의 욕망과 감정이 하고 싶은 일이지 돈이나 명성 등 다른 것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러므로 학문의 본질을 감정과학으로 정립하지 않으면 세상을 전쟁으로 이끌고 간다. 그리고 그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의 연구 원동력과 독창성은 상실한다. 이것이 원인의 유사성이다. 사람이 감정과학으로 학문을 연마하지 않으면, 그 결과는 삶의 불행과 비극이다. 세상은 행복을 추구한다면서 다른 사람의 행복을 빼앗는 전쟁의 세상이 되고, 개인의 삶은 생명의 힘을 상실하게 된다. 이러한 비극은 궁극적으로 학문의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개인과 세상의 행복을 불행으로 몰아간다.

## 2. 자기 몸을 배우는 행복

『논어』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공자와 안연의 학문론은 몸에 대한 참다운 이해로 수렴된다. 이 이해는 몸을 생김과 놀이로 나눈 다음, 생김에 나아가 그에 고유한 본성의 필연성을 이해하고 그것으로 몸-놀이의 본성을 이해한다. 그 결과 무한한 방식으로 무한하게 존재하는 몸은 그 어떤 예외 없이 최고의 완전성을 뜻하는 순수지선(純粹至善)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영원의 필연성으로 확인한다. 이 사실로부터 몸-놀이의 감정을 참답게 이해한다. 감정의 진실 또한 몸의 진실 그대로 순수지선이다.

감정의 진실은 ‘다 좋은 감정’이며, 이 감정으로 살아가는 세상 역시 ‘다 좋은 세상’이다. 이 진실을 향한 배움이 유교문화를 정초한 공자와 안연의 학문이다. 나는 본래부터 성스러운 천자(天子)이며 그렇기 때문에 나는 본래부터 성스러운 천자의 감정으로 살아간다. 이러한 감정의 진실 안에서 매순간 무한한 방식으로 무한한 감정에 나아가 그에 고유한 본성의 필연성을 이해한다. 결국이 모든 이해의 기초는 몸에 대한 참다운 이해에 있다.

『논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감정과학의 학문론을 북송 시대의 정이가

「안자호학론」이라는 작품으로 다시 확인한다. 이 학문의 진리를 공자와 안연으로부터 대략 1,500년 이후의 정이가 학문의 진실로 밝히는 것이다. 정이는 「안자호학론」을 저술함으로써 유교문화의 학문론을 보다 더 세밀한 논리적 체계로 정리한다. 감정을 ‘몸의 반응’으로 정리하며, 감정에 대한 참다운 이해를 구하는 능력을 마음의 본성으로 확인한다. 그 결과 감정의 자기이해 안에서 감정을 믿고 배우는 과학으로 공자와 안연의 학문은 자기 본래의 얼굴을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었다.

감정과학으로서 유교가 이해하는 몸의 진실을 조선 시대 성리학자 퇴계 이황(退溪 李滉, 1501~1570)은 1569년 『성학십도』를 완성함으로써 온 세상에 환하게 드러내주었다. 퇴계의 『성학십도』는 공자와 안연으로부터 주자에 이르는 학문의 핵심을 10개의 그림(圖)과 그에 대한 간략한 설명(說)으로 요약한다. 그리고 10개의 도설(圖說)은 퇴계의 작품이기 보다는 선대(先代) 학자들의 도설(圖說)에 근본하고 그에 근거하여 자신만의 도설(圖說)을 새롭게 추가한 것이다. 이 가운데 우리는 첫 번째 도설을 가지고 감정과학이 배우는 몸의 진실을 간단하게 정리하겠다.

『성학십도』의 첫 번째 도설(圖說)은 「태극도설」(太極圖說)이다. 이 작품은 중국 중세에 해당하는 북송 시대의 주돈이(周敦頤, 1017~1073)의 것이다. 익히 알려져 있듯이 주돈이는 정이의 스승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이의 「안자호학론」 및 그에 근거하여 유교문화의 감정과학을 『성학십도』의 태극도설로 요약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태극도설」에는 다음과 같은 논의가 있다.

무극지진, 이오지정묘합이응, 건도성남, 곤도성녀, 이기교감, 화생만물, 만물생  
 無極之眞, 二五之精妙合而凝, 乾道成男, 坤道成女, 二氣交感, 化生萬物, 萬物生  
 생, 이 변화무궁연.<sup>88)</sup>

‘化生萬物’은 자연의 모든 몸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그것의 ‘생김’에 대해서 논의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만물(萬物)을 지금 우리 ‘자신의 몸’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쉬운 이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이 수정할 수 있다.

化生萬物 → 化生‘吾身’

이제부터 우리는 「태극도설」을 우리 자신의 ‘몸-생김’으로 읽고 이해할 수 있다. 왜냐하면 만물(萬物) 가운데 하나가 지금 우리 자신의 ‘몸’이며, 화생(化生)의 생(生)은 ‘생김’이기 때문이다. 이점을 분명히 하면, 우리는 다음의 앞에서 인용한 부

88) 퇴계 이황(退溪 李滉), 『성학십도(聖學十圖)』, 「태극도(太極圖)」.

분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이해할 수 있다.

인용: 乾道成男, 坤道成女, 二氣交感, 化生萬物.

정리: 乾道成男, 坤道成女, 二氣交感, 化生吾身.

지금 나의 몸(吾身)으로 ‘乾道成男, 坤道成女, 二氣交感’을 이해하면, 이 문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乾道成男 → 乾道成‘父’

坤道成女 → 坤道成‘母’

二氣交感 → 父母交感,

化生萬物 → 化生吾身.

엄마아빠(父母)의 사랑(交感)으로 지금 나의 몸이 생겨났다는 감정과학의 진실을 「태극도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진실은 현상에 대한 해석이 절대 아니다. 다음의 인용이 이에 대한 증거이다.

무극지진 이오지정묘합이응 건도성남 곤도성녀 이기교감 화생만물.<sup>89)</sup>  
無極之眞、二五之精妙合而凝，乾道成男，坤道成女，二氣交感，化生萬物.

‘乾道成男, 坤道成女, 二氣交感, 化生萬物.’의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無極之眞’을 만난다. 즉, ‘無極之眞’안에 ‘乾道成男, 坤道成女, 二氣交感, 化生萬物.’이 있다. 쉽게 이해하면, 지금 내 몸의 생김은 엄마아빠의 사랑 안에 있지만, 이 사랑은 ‘無極之眞’안에 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인가? 이 물음에 대한 주자의 답은 다음과 같다. 『성학십도』의 「태극도설」에 근거한다.

순수지선지성 시소위태극야.<sup>90)</sup>  
純粹至善之性，是所謂太極也.

지금 내 몸의 생김으로 존재하는 엄마아빠의 사랑은 순수지선의 성(性)이다. 인용에 있는 태극(太極)은 무극이태극(無極而太極)이기 때문에 태극을 설명하는 순수지선의 성은 엄밀히 말해서 무극의 진실이다. 내 몸의 생김으로 존재하는 엄마아빠의 사랑이 순수지선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감정과학이 이해하는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

89) 퇴계 이황(退溪 李滉), 『성학십도(聖學十圖)』, 「태극도(太極圖)」.

90) 퇴계 이황(退溪 李滉), 『성학십도(聖學十圖)』, 「태극도(太極圖)」.

랑이다. 내 몸의 생명을 낳는 엄마아빠의 생명이 순수지선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생명 그 자체의 영원한 생명이다. 내 몸의 생명을 낳는 엄마아빠의 사랑이 순수지선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사랑 그 자체의 영원한 사랑이다.

이 사랑을 이해하고 자기 본래의 행복으로 확인하는 방법은, 다시 강조하지만, 자기 몸에 대한 배움 이외 절대적으로 없다. 이 사실을 성동권은 다음과 같이 확인한다.

선생의 말씀에 충실하자면, ‘여’(予)와 ‘오’(吾)는 退溪 선생 또는 이 소논문을 읽는 독자가 아니라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논자 자신이어야 한다.<sup>91)</sup>

우리 자신이 자기의 몸에서 자기 몸의 진실을 이해할 때, 엄마아빠의 진실로서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을 확인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태극도설」은 감정과학이 이해하는 몸-생김의 진실을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으로 확인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사실로부터 몸-놀이의 진실 또한 감정과학의 논리에 의해서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논리의 진실을 「태극도설」에서 아래와 같이 확인할 수 있다.

무극지진 이오지정묘합이음 건도성남 곤도성녀 이기교감 화생만물 만물생  
無極之眞、二五之精妙合而凝，乾道成男，坤道成女，二氣交感，化生萬物，萬物生  
生，而變化無窮焉。<sup>92)</sup>

쉬운 이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化生萬物，萬物生生. : 몸-생김  
而變化無窮焉. : 몸-놀이

그러나 「태극도설」에서 분명한 것은 이 둘은 모두가 ‘무극지진’(無極之眞) 안에 있다는 것이다. 순수지선(純粹至善)의 성(性)은 몸-생김으로서 ‘化生萬物，萬物生生’과 몸-놀이로서 ‘變化無窮’을 일관한다. 참고로 몸-놀이는 감정이라고 했으므로 순수지선의 진실은 감정의 진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에 고유한 몸의 진실에 근거하여 몸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의 진실을 참답게 이해할 수 있다.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으로서 순수지선(純粹至善)의 성(性)이 존재하고, 이 존재로부터 몸-생김과 몸-놀이의 진실이 연역된

91) 성동권, “退溪의 西銘考證講義에서 乾坤父母 研究,” 『퇴계학논집』 (영남퇴계학연구원, 2015), p. 6.

92) 퇴계 이황(退溪 李滉), 『성학십도(聖學十圖)』, 「태극도(太極圖)」.

다.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 그 자체인 엄마아빠 안에서 우리 몸이 생겨나고 놀이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오직 사람(惟人也) 만이 이 진상을 알고 이해할 수 있다. 그 결과 우리 자신의 몸을 비롯해서 세상 모든 몸을 참답게 배우는 것이 학문의 핵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제2절 필연성을 향한 명석판명의 이해 확립

### 1. 진리의 필연성을 향한 이성의 필연성

북송(北宋) 시대에 접어들면서 공자와 안연에 의해서 확립된 유교문화의 학문은 감정과학으로 자기 본래의 진실을 서서히 드러내기 시작한다. 본 논문은 이 주제를 주돈이의 「태극도」에 근거하여 본 논문의 핵심 주제로서 정이의 「안자호학론」으로 증명하였다. 그런데 감정과학의 핵심 논리는 인과의 필연성에 근거하여 본성의 필연성을 이해하는 명석판명 그 자체의 이해를 확립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와 같은 감정과학의 방법으로 감정에 대한 참다운 인식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세상의 진실을 이해하면, 그 즉시 학문은 무한하게 발전하게 된다. 왜냐하면 사랑과 평화 안에서 본성의 필연성을 배우는 학문은 모든 것에 대한 명석판명의 이해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본 논문은 북송(北宋) 시대에 학문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사회적 지위가 점점 높아졌다는 사실을 제시한다. 그리고 각종 문화와 학문에 대한 연구가 더욱 다양하고 깊어졌다는 사실을 증거로 제시한다. 북송(北宋) 시대에는 학문 수준이 새로운 고도에 도달한 것 외에 경제 발전이 신속했던 것도 마찬가지로 매우 현저한 성과였다.

북송(北宋)나라는 비록 여전히 농업으로 나라를 세웠지만, 고도로 발달한 농업 경제의 기초 위에서 이미 도시, 화폐, 상업, 신용, 해외 무역 등 많은 상공업 문명 인자가 자라났으며, 고용 노동, 도매상 관례, 상업 신용, 모금 동업 등 새로운 사물은 모두 흔적을 찾을 수 있으며, 이미 근대 사회로 나아가는 전야에 처해 있다. 북송(北宋) 시대 경제의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상품경제 성분이 전통 사회의 모태에서 급속히 성장했다는 것이다. 농업 생산의 발전, 식량 잉여율의 향상, 석탄 및 철 혁명의 출현, 수공업 생산의 확대, 그리고 운송 수단 (예: 조선, 해선)의 진보와 교통 조건 (예: 변하(汴河)와 연해 해운)의 개선에 따라 상품 경제는 전국 진한(秦漢)에 이어 두 번째 고조 시기를 맞이했다.<sup>93)</sup>

인용에서 경제 자체의 발전이든 경제 발전에 유리한 조건이든 모두 새로운 고도에 도달했다는 것을 확정할 수 있다. 학문이 발전함으로써 시대의 문화와 경제가 발전하는 것은 필연적이다.

그러나 경제 발전과는 별개로 그에 따른 부작용도 심각했다. 대량의 경제수입은 적은 부분의 사람들의 손에 장악되었고 절대다수의 일반인들은 여전히 저소득단계에서 생활하고 있다. 그 결과 북송(北宋) 시대는 전반적으로 금전적 이득을 추구하며 그것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이러한 분위기는 학자들에게도 서서히 침투했다. 금전을 막대하게 축적한 상인들의 사회적 영향력이 끊임없이 확대됨에 따라 학문에 종사하는 학자들 또한 서서히 금전적 획득에 몰두하게 되었다.

학문이 발전함으로써 경제의 발전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매우 좋은 것이다. 그러나 그와 함께 경제적 불균형이나 경제 현상으로 사람의 행복을 평가하는 비극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유교문화에 국한되지 않는다. 동서양 학문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일례로 서양 고대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Seneca, 기원전 4~65)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갈리오 형,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기 원하지만 무엇이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지는 모르는 채 살아요. 그러므로 먼저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무엇인지 분명히 안 다음, 목표에 가장 빨리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보아야겠지요.<sup>94)</sup>

세네카에 의하면 사람은 행복을 추구하지만, 뜻밖에 행복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한다. 행복을 모르면 행복을 자기 밖에서 구하는 비극을 초래한다. 그 결과 자기는 불행의 주인공으로 전락하게 되며, 급기야 다 좋은 세상은 지금 자기의 세상과 무관한 것으로 착각하게 된다. 세상은 비극이며, 따라서 전쟁하는 세상은 비극의 세상으로서 당연한 것으로 간주된다. 뜻밖에 행복을 추구한다면서 행복을 모르게 된 결과가 불행이다. 이런 방식으로 행복을 추구하면 할수록 그에 비례하여 불행하게 된다.

이 불행으로부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인간 세상의 모든 방면이 불행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대표적으로 서양 근대 헤겔의 세상 인식과 그에 기초한 마르크스

93) 葛金芳(갈금방), “宋代經濟：從傳統向現代轉變的首次啓動(송대 경제: 전통에서 현대로 전환하는 첫가동),” 『中國經濟史研究(중국 경제사 연구)』, 제1기(中國社會科學院經濟研究所(중국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2005), p. 1. ※ 인용문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宋朝雖然仍以農業立國,但在高度發達的農業經濟之基礎上,已經生長出城市、貨幣、商業、信用、海外貿易等諸多工商業文明因子,僱傭勞動、包買商慣例、商業信用、集資合伙等新生事物均有跡可覓,已然處在邁向近代社會的前夜。宋代經濟最引人注目的特点就是,商品經濟成分在傳統社會母胎中的急速成長。隨着農業生產的發展,糧食剩餘率的提高,煤鐵革命的出現,手工業生產的擴大,以及運輸工具(如漕船、海船)的進步和交通條件(如汴河和沿海海運)的改善,商品經濟繼戰國秦漢之後迎來了它的第二個高漲時期。”

94) 성동권, 『서양 고대 로마의 감정과학』 (부크크, 2021), p. 128.



스의 경제이론을 살펴보자. 헤겔에 의하면 세상의 진실은 전쟁이다.

공동체가 갖는 부정의 힘은 안으로는 서로가 단순히 호트러져 있는 개인의 자의를 억제하고 대외적으로는 자발적인 활동을 떠나가려고 하는 것인데, 개인은 이때 싸움을 위한 무기의 역할을 한다. 전쟁이란 인륜적 실체의 본질적 요소, 즉 인륜에 기초한 자기존재가 일신상의 모든 것을 내던지는 데서 누리는 절대적 자유가 현실 속에서 확연한 모습을 드러내는 정신의 형태이다.<sup>95)</sup>

헤겔은 세상의 진실을 “전쟁이란 인륜적 실체의 본질적 요소”라고 말한다. 전쟁 세상이 세상의 진실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한 성동권의 분석을 참고해 보자.

전쟁은 인류의 본성이며 욕망이기 때문에 전쟁이 인류를 자유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전쟁이 진리라는 것입니다.<sup>96)</sup>

세네카가 우려한 비극을 헤겔은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비극에 빠져서 경제를 이해함으로써 경제의 진리를 왜곡한 경제학자가 마르크스이다.

그는 살아가기 위해 일한다. 그는 노동을 그의 생활의 일부로 보지 않는다. 노동은 오히려 그의 생활을 희생물로 삼는 것이다. 그것은 그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하나의 상품이다. 따라서 그의 활동의 생산물도 그의 활동의 목적이 아니다. 그가 자기 자신을 위해 생산하는 것은 그가 짜는 비단도 아니고, 그가 광갱에서 파내는 금도 아니고, 그가 짓는 저택도 아니다. 그가 자신을 위해 생산하는 것은 ‘임금’이다. 그에게 생활은 이 활동이 끝나는 지점에서, 식탁에서, 선술집에서, 침대에서 시작된다. 이에 반해 노동은 그에게 있어서 아무런 의미도 없고, 그가 식탁이나 선술집에 앉고 침대에 누울 수 있게 해주는 ‘소득’으로서 의미가 있다.<sup>97)</sup>

행복을 자기 안에서 분명하게 인식함으로써 자기 행복이 본래부터 최고의 완전성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면, 행복을 자기 밖에서 구하게 된다. 이때 반드시 필요한 것은 ‘돈’이다. 그래서 돈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하며, 그것으로 자신이 생각하는 행복을 바꾸는 것이 경제학으로 잘못 이해된다. 마르크스가 해석한 경제가 바로 이러한 절망 속에 있다. “노동은 그에게 있어서 아무런 의미도 없고, 그가 식탁이나 선술집에 앉고 침대에 누울 수 있게 해주는 ‘소득’으로서 의미가 있다.”라고 했다.

95) 헤겔, 임석진 역, 『정신현상학2』 (한길사, 2008), p. 55.

96) 성동권, 『서양 근대 18세기 감정과학의 위기』 (부크크, 2022), p. 411.

97) 마르크스, 박광순 역, 『임금 노동과 자본』 (범우사, 2008), pp. 44-45.

헤겔의 오류로 마르크스의 경제를 이해하면, 결국 절망과 전쟁 밖에 없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사실상 헤겔과 마르크스가 그려놓은 그림과 지금 우리의 현실은 별반 다르지 않다. 문제의 근본 원인은 세네카가 지적한 바와 같이 행복에 대한 참다운 인식을 결여한 데에 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정이의 「안자호학론」의 소중함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伊川先生)曰：天地儲精，得五行之秀者，爲人。其本也，眞而靜。其未發也，五性具焉，曰 仁義禮智信。

(정이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빠(天, 영원)와 엄마(地, 무한)의 생명과 사랑을 그대로 물려받아 태어난 것이 '나'(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의 본성(아빠엄마의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은 '진실로 존재'(眞)하는 것이며 이 존재는 내 몸을 두고 생각하는 나의 마음이 '자기 안에서 자기 스스로 이해'(靜)한다. '내 몸'에 본래부터 존재하는 그 자체의 고유한 본성(엄마아빠의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 未發)은 仁義禮智信(五性=仁義禮智信)으로 본래부터 존재한다.<sup>98)</sup>

여기에서 우리는 세네카의 행복론을 정이의 감정과학으로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의 몸에 대해서 생각함으로써 그 진실을 명석판명 그 자체의 완전성으로 이해하는 능력을 본래부터 가지고 있다. 이 능력을 서양 중세의 신학자 안셀무스도 다음과 같이 확인했다.

개별적인 탐구를 통해 얻어지는 결론이 주장하는 내용은 무엇이든지 명확한 형식과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논증, 단순한 설명을 통해서, 이성적 필연성을 간결하게 강조할 뿐만 아니라 진리의 필연성을 명백하게 보여주어야 했다.<sup>99)</sup>

안셀무스에 의하면 우리 인간의 정신은 이성의 필연성으로 생각하며 그것으로 진리의 필연성을 이해한다. 이것이 바로 감정과학의 방법으로서 사여학(思與學)이다. 사(思)는 이성의 필연성으로서 본 논문은 인과의 필연성으로 그 자체의 본성을 이해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학(學)은 이성의 필연성으로 인식하는 진리의 필연성이다. 즉, 몸-생김에 나아가 이성의 필연성으로 인식하는 그 자체에 고유한 본성의 필연성으로서 진리의 필연성이다. 이 사실로부터 몸-놀이의 진실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진실 안에서 무한한 몸-생김과 몸-놀이의 무한성을 타당하게 인식한다.

안셀무스의 학문을 감정과학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사람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은 생각하는 동

98) 『二程集』, 「顔子好學論」, 논자의 번역이다.

99) 안셀무스, 박승찬 역, 『모놀로기온·프로슬로기온』 (아카넷, 2002), p. 3.

물입니다. 그리고 이때의 생각은 아무렇게나 무질서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학문이 기하학입니다. 기하학은 정의와 공리를 분명히 세움으로써 그로부터 필연적으로 연역되는 정리들을 도출해 냅니다. 플라톤은 『파이드로스』에서 속된 말로 일자무식인 노예에게 기하학을 가르치며, 그것으로 모든 사람은 생각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한에서 진리를 모를 수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사람은 생각하기 때문에 생각하는 정신(마음)의 이성적 필연성에 입각하여 얼마든지 기하학적 논증을 해나가고, 그 결과 자명한 진리(정리)를 기하학적 질서의 필연성 안에서 명백하게 인식합니다. 이 방법으로 하나님의 본질을 인식하겠다는 것이 안셀무스의 학문 방법입니다.<sup>100)</sup>

감정과학의 진실은 결국 명석판명의 인식이 아니면 존립의 근거를 상실한다. 우리가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학문을 하는 한에서 학문은 오직 명확한 인식만을 추구할 것이므로 절대적으로 쇠퇴하지 않는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이는 「안자호학론」에서 학문의 진상을 잘못 인식하면 그릇된 학습목표와 방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학문의 방법을 상실한 결과, 사람은 자기 몸/감정에 나아가 자기 몸/감정의 진실을 이해하지 않고, 몸/감정의 감각적 현상만을 두고 몸/감정의 좋음(善)과 나쁨(惡)을 논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감각적 현상에 의존하여 그저 많이 보거나 듣는 것을 종합함으로써 암기하는데 급급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 그것으로 글을 꾸미거나 말을 그럴싸하게 다듬는 데에 몰입하게 되었다. 그 결과 몸/감정의 진실을 이해하는 사람이 극히 드물게 되었다.<sup>101)</sup>

학문의 본질을 회복하지 않으면 학문이 가져온 모든 행복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감각적 현상에 의존하여 그저 많이 보거나 듣는 것을 종합함으로써 암기하는데 급급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 그것으로 글을 꾸미거나 말을 그럴싸하게 다듬는 데에 몰입하게 되었다.”는 것에서 그 어떤 학자도 행복을 누릴 수가 없다.

그러므로 명백한 인식으로 자기 자신과 세상을 이해하고 그와 동시에 자신의 개별적인 학문을 최고의 완전성으로 인도하는 감정과학은 학문의 본질을 다음과 같이 회복한다. 연구자 개인의 행복을 회복하며, 이 행복은 학문에서 명석판명의 완전한 이해를 형성하게 된다. 이렇게 배우면, 학문은 발전하게 된다. 이렇게 학문을 하면, 학문은 잃어버린 자기 방향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행복만을 가져온다. 학문을 할수록 행복이 보다 더 커지게 된다. 이렇게 연구를 하면 노학자

100) 성동권, 『서양 중세 중기의 감정과학』 (부크크, 2021), pp. 40-41.

101) 『二程集』, 「顔子好學論」, 논자의 번역이다.

는 반드시 학문을 향한 열정을 상실하지 않게 되며, 더 나아가 인류에 행복을 가져오는 연구 업적을 성취하게 된다.

## 2. 믿음으로 배우는 학이시습의 즐거움

자기 믿음으로 자기를 배우면, 이때의 배움은 최고의 완전성 그 자체로서 명석판명의 이해이다. 이 이해가 진리의 필연성을 향한 이성의 필연성이다.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우리 자신의 몸과 감정에 대해서 배우면, 우리는 몸과 감정에 대한 믿음으로 몸과 감정의 무한한 생성과 변화를 순수지선으로 배워서 이해하게 된다. 그 결과 배움은 항상 우리에게 완전한 행복을 보다 더 큰 완전성으로 인도한다. 이와 같은 학문의 즐거움을 성동권은 다음과 같이 확인한다.

우리는 다음의 사실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性理로부터 情理의 필연성에 의해서 모든 情은, 그것이 情인 한에서, 情理 안에 존재한다. 둘째 후험의 현실에서 무한한 방식으로 무한하게 존재하는 情은 그 어떤 현상으로 드러나더라도 자기 안에는 필연적으로 순수지선의 理를 품고 있다. 셋째, 후험의 情은 자기 본성의 필연성인 순수지선의 理를 따라서 무한한 방식으로 무한하게 존재한다. 넷째, 情理는 후험의 情안에 존재하는 자기 본성의 필연성이므로 情의 영원무한한 사실이다. 情의 가능성 혹은 잠재성이 아니다.<sup>102)</sup>

“후험의 현실에서 무한한 방식으로 무한하게 존재하는 情은 그 어떤 현상으로 드러나더라도 자기 안에는 필연적으로 순수지선의 理를 품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 우리는 무한한 감정을 믿고 배울 수 있게 된다. 이는 동시에 감정으로 살아가는 세상의 무한한 현상을 믿고 배울 수 있으며, 그 결과는 다 좋은 세상에 대한 확인이다. 이 확인을 안셀무스가 다음과 같이 확인한다.

주님, 저는 당신의 숭고함을 꿰뚫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것에 제 지성이 비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제 마음이 믿고 사랑하는 당신의 진리를 어느 정도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믿기 위하여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기 위해서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만일 내가 믿지 않는다면, 이해할 수 없으리라>는 것도 믿기 때문입니다.<sup>103)</sup>

안셀무스는 “이해하기 위해서 믿습니다.”라고 말한다. 여기에서 믿음은 이성의 필

102) 성동권, “성학십도 심통성정도의 중도의 장르분석,” 『퇴계학논집』 (퇴계학연구원, 2019), p. 209.

103) 성동권, 『서양 중세 중기의 감정과학』 (부크크, 2021), p. 78.

연성으로 명백하게 이해하는 진리의 필연성이다. 이 진실이 믿음으로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은 믿음으로 배울 수 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 행복을 밖에서 구하는 자포자기의 절망을 치유할 수 있게 된다. 이 주제를 키에르케고르(Kierkegaard, 1813~1855)는 다음과 같이 간단한 정식(定式)으로 정리하였다.

절망이 완전히 근절된 경우에 있어서의 자기 상태를 나타내는 정식(定式)은 이렇다. 자기가 자기 자신에 관계하면서 자기 자신이라고 욕구할 때, 자기는 이 자기를 정립한 힘의 내부에 투명하게 자기자신의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sup>104)</sup>

“자기가 자기 자신에 관계하면서 자기 자신이라고 욕구할 때”는 자기 스스로 이해하는 자기 진실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 이해가 감정과학이 배우는 몸-생김의 진실이며 이 진실로부터 필연적인 몸-놀이의 진실이다. 이 진실을 확언하면, 그 즉시 다 좋은 세상이다. 이 세상의 진실을 20세기 현대 신학자 마틴 루터 킹(Martin Luther King, Jr. 1929 ~ 1968)은 다음과 같이 노래했다.

지금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지금은 지독한 인종차별주의자들과 주지사가 간섭이니 무효니 하는 말을 떠벌리고 있는 앨라배마 주에서, 흑인 어린이들이 백인 어린이들과 형제자매처럼 손을 마주잡을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는 꿈입니다.

지금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골짜기마다 돌우어지고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게 될 날이 있을 것이라는 꿈입니다.<sup>105)</sup>

이 꿈은 이성의 필연성이 이해하는 진리의 필연성이며, 감정과학의 공효이다. 이 공효를 모르게 되면, 그 즉시 루소(Jean-Jacques Rousseau, 1712~1778)의 절망에 빠지게 된다. 루소는 행복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전개한다.

우리는 절대적인 행복이라든가 불행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인생에는 모든 것이 섞여 있다. 인간은 인생에서 순수한 감정이라는 것을 맛보지 못한다. 삶은 한순간도 동일한 상태로 머무를 수 없다. 신체의 변화와 마음의 감정은 끊임없는 흐름 속에 있다. 선과 악은 우리 모두에게 다 있지만 정도에 차이가 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고통을 가장 적게 맛보는 사람이며, 가장 불행한 사람은 쾌락을 가장 적게 느끼는

104) 성동권, 『서양 근대 19세기 감정과학의 성공』 (부크크, 2022), p. 226.

105) 성동권, 『서양 현대 20세기 감정과학의 공효』 (부크크, 2022), p. 378.

사람이다. 언제나 즐거움보다 고통이 더 많다. 그 점은 인간 모두에게 공통적이다. 그러므로 이승에서 인간의 행복은 어떤 소극적인 상태일 뿐이다. 따라서 행복은 그가 겪은 고통의 최소량에 의해 측정되어야 한다.<sup>106)</sup>

만약 루소의 행복이 우리 인간에게 고유한 행복의 진실이라면, 킹 목사의 꿈은 절망이다. 그러나 키에르케고르에 의하면 정반대로 루소의 행복이 절망이다. 왜냐하면 정이의 「안자호학론」은 우리의 본질로서 성인(聖人)의 진실을 이해하는 것인데, 이 이해가 곧 키에르케고르의 절망 극복의 정식(定式)이기 때문이다. 이 정식의 핵심은 자기 몸에 고유한 진실로서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이다. 이 진실이 우리 몸의 본질로 존재하며 동시에 감정의 진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인식하는 한에서 루소의 행복은 절망이며 킹의 행복은 영원의 진실이다.

이상의 논의에 근거하여 학문의 기초로서 학문의 즐거움을 회복하고 그것으로 자신의 학문을 보다 더 큰 행복으로 인도하는 방법은 자기 행복에 대한 이해로 세상의 행복을 최고의 행복으로 이해하며, 이 이해 안에서 학문을 연마하는 것이다. 이 이해를 상실하면 절망이고, 끝내는 헤겔과 마르크스의 전쟁이다. 이러한 논리적 귀결은 정이는 다음과 같이 확인한다.

(伊川先生曰:) 情既熾而益蕩, 其性鑿矣.

(정이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몸으로 생겨나 몸으로 놀이한다는 것은 몸이 느끼는 감정으로 살아가는 것을 뜻한다. 왜냐하면 몸-놀이가 실질적으로 감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감정은 ‘자기’ 몸에 ‘본래부터 고유한 본성의 필연성’(既)을 자기 본성으로 본래부터(既)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은 무한한 방식으로 무한하게 새롭게 생성한 것이다(熾: 마치 불이 활활 타오르는 것 같이). 그러나(而) 그에 비례하여(益) 생성한 감정을 느끼는 ‘나’는 감정의 무한 생성으로 인하여 그에 대한 타당한 인식을 결여할 수 있다(蕩). (왜냐하면 감정의 무한 생성 및 무한 변화를 겪는 ‘나’ 자신이 뜻밖에 그 무한성으로 인하여 감정에 대한 타당한 인식을 놓치는 것이다.) 그로 인하여 감정의 본성 및 사실상 그와 동일한 것으로서 몸 그 자체의 본성을 어기는 잘못을 하게 된다(蕩).<sup>107)</sup>

여기에서 성착(性鑿)은 자기 몸의 진실을 배우지 않은 결과 빠지게 되는 불행의 절망이다. 동시에 감정의 진실을 배우지 않은 결과 빠지게 되는 감정 오해의 비극이다. 이 비극으로부터 몸의 진실을 오해하는 비극이 필연적이다. 즉, 영원무한의 행복과 사랑을 자기 본성으로 가지고 있는 몸의 진실을 모르게 된다. ‘그로 인하여 감정의 본성 및 사실상 그와 동일한 것으로서 몸 그 자체의 본성을 어기는 잘못을

106) 성동권, 『서양 근대 18세기 감정과학의 위기』 (부크크, 2022), p. 108.

107) 『二程集』, 「顔子好學論」, 논자의 번역이다.

하게 된다(蕩)’라고 번역하였다.

몸의 진실을 모르면, 몸으로 살아가는 세상의 진실을 모르게 된다. 그런데 학문은 몸을 배우며 몸으로 살아가는 세상을 배우는 것이다. 천지만물의 몸을 배우는 것이 자연과학과 의학이라면, 이 진실 안에서 세상의 행복을 배우는 것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연구하는 인문과학이다. 결국 몸의 진실을 모르면 몸으로 존재하는 모든 것과 몸으로 살아가는 세상에 대해서 알 수 없게 된다. 오직 이 이유로 몸에 대한 참다운 인식을 신적 본성의 필연성으로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서양 근대 학문론으로서 베이컨의 학문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어느 누구도 부정적 의미의 질체에 입각하여 혹은 제한을 잘 못 적용하여, 어떤 인간이 하나님이 쓰신 말씀의 책이나 작품의 책, 즉 신학이나 철학을 너무 깊이 연구할 수 있다든지 너무 잘 연구할 수 있다는 식으로는 생각하거나 주장하지 말아야겠다는 것이다. 그 반대로 사람들은 신학과 철학의 끝없는 진보나 번영을 위해 헌신하여야겠다. 신학과 철학을 모두 자량이 아닌 사랑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것, 그렇지만 현명치 못하게도 신학과 철학을 뒤섞거나 합성하는 따위의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여야겠다.<sup>108)</sup>

신학을 철학에서 축출하는 것이 베이컨의 학문론이다. 즉, 몸-생김의 진실로 존재하는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을 배우지 않겠다는 결정이 베이컨의 학문론이다. 그러나 이 결정으로부터 어떤 비극이 발생하는지는 이미 감정과학의 논리에 근거하여 정리했다. 행복의 절망이며, 결국 전쟁과 폭력의 세상일 뿐이다. 이 비극이 정이의 성착(性鑿)이다.

(伊川先生曰:) 愚者不知制, 縱其情而至於邪僻, 梏其性而亡之.

(정이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감정이 영원한 무한한 생명과 사랑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감정을 제대로 알 수 없다. 자신의 감정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고, 감정이 본성을 따르는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감정이 외부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고 잘못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감정의 본성에서 벗어나 결국 비극으로 나아가게 된다. 그 결과 자기는 자기 몸에 고유한 본성을 잘못 이해하게 한다. 따라서 자신의 감정을 이해할 수 없다면, 자신이 영원 무한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없다.<sup>109)</sup>

“자기는 자기 몸에 고유한 본성을 잘못 이해하게 한다. 따라서 자신의 감정을 이

108) 성동권, 『서양 중세 말기의 감정과학』 (부크크, 2022), p. 320.

109) 『二程集』, 「顔子好學論」, 논자의 번역이다.

해할 수 없다면, 자신이 영원 무한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없다.”고 번역하였다. 베이컨의 학문론이 가져오는 결과이다. 이것이 과연 학문의 진보라고 할 수 있을까? 학문을 담당하는 학자 자신이 이미 자기 행복에 관하여 절망인데, 이 절망 속에서 학문이 발전하거나 진보한다는 것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 즉시 학문의 위기가 초래하지 않을 수 없다.

이상, 본 논문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결국 학문의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자기 본래의 진실을 이해하고 그것으로 세상 모든 몸과 세상 모든 몸이 살아가는 세상의 진실을 이해하는 것이다.

(伊川先生曰:) 然, 學之道必先明諸心, 知所往然後, 力行以求至.

(정이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하므로 학문의 방법은 반드시 자기 마음에 나아가 자기의 마음이 자기 안에서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배움으로써 자명하게 형성하는 ‘자기이해’를 분명히 이해해야 한다. 이러한 마음의 자기이해는 자기 몸이 느끼는 자기 감정에 나아가야 한다. 그러한 이후에 자기 감정이 자기 안에 본래부터 품고 있는 본성의 필연성을 자기이해의 자명함으로 열심히 생각하고 배움으로써 감정 그 자체의 본성으로 존재하는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을 명백하게 이해(至)하는 것이다.<sup>110)</sup>

자기 진실을 영원의 행복으로 이해하는 것이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을 명백하게 이해(至)하는 것”이다. 이 행복이 분명하지 않으면 즉시 불행이다.

不求諸己而求諸外, 以博聞強記, 巧文麗辭爲工, 榮華其言, 鮮有至於道者.

(학문의 진실은 자기 몸에 나아가 자기 몸-생김 그 자체의 진실을 이해하는 것이며, 이 이해에 근거하여 자기 몸-놀이인 감정 그 자체의 진실을 이해하는 것이다. 동시에 이 진실의 영원한 필연성 안에서 자기 몸-놀이인 감정에 나아가 그에 고유한 본성의 필연성을 이해하고(約其情), 그것으로 몸-생김 그 자체의 진실을 이해하는 것이다(養其性).<sup>111)</sup>

그렇기 때문에 학문의 방법을 상실한 결과, 사람은 자기 몸/감정에 나아가 자기 몸/감정의 진실을 이해하지 않고, 몸/감정의 감각적 현상만을 두고 몸/감정의 좋음(善)과 나쁨(惡)을 논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감각적 현상에 의존하여 그저 많이 보거나 듣는 것을 종합함으로써 암기하는데 급급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 그것으로 글을 꾸미거나 말을 그럴싸하게 다듬는 데에 몰입하게 되었다. 그 결과 몸/감정의 진실을 이해하는 사람이 극히 드물게 되었다.<sup>112)</sup>

110) 『二程集』, 「顔子好學論」, 논자의 번역이다.

111) 『二程集』, 「顔子好學論」, 논자의 번역이다.

112) 『二程集』, 「顔子好學論」, 논자의 번역이다.



그러므로 현대 중국의 학문이 처한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방법은 오직 정  
이의 감정과학에서 찾을 수 있다.

然, 聖人則不思而得, 不勉而中. 顏子則必思而後得, 必勉而後中. 其與聖人, 相去一息.

그러므로 성인(聖人)은 몸으로 생겨나 몸으로 놀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인은 자  
기 몸의 진실 안에서 자기 몸이 느끼는 감정의 진실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  
렇기 때문에 성인은 오직 감정의 진실인 감정의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으로 살아  
가는 사람이다. 이 진실은 감정 그 자체에 고유한 진실이며, 동시에 지금 몸이 느끼  
는 감정이다. 이 사실이 분명하기 때문에 聖人은 힘들이지 않아도 자기 감정의 진실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聖人則不思而得, 不勉而中]

이 사실이 분명하기 때문에 안연(‘나’ 자신)은 반드시 자기 감정에 나아가 자기 사  
유의 자명으로 자기 감정의 진실을 이해한다. 그렇기 때문에 안연(‘나’ 자신)은 반드시  
열심히 배움으로써 자기 감정에 고유한 본래의 진실을 이해한다. [顏子則必思而  
後得, 必勉而後中]

그러므로 안연(‘나’ 자신)과 성인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성인의 진실 안에서 안  
연(‘나’ 자신)이 자기 본래의 진실이 성인으로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其與聖人, 相去一息.]<sup>113)</sup>

---

113) 『二程集』, 「顏子好學論」, 논자의 번역이다.

## 제5장 결론

논자는 중국 현대학문 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문을 시도했다. 본 논문의 주제는 학문의 본질을 정확하게 정립함으로써 현대 중국 학문이 처한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논자는 감정과학을 학문론으로 정립한 공자와 안자의 학문론을 분석함으로써 학문의 본질이 무엇인지 밝히고, 그에 입각하여 학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고찰했다. 이 목적을 위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북송(北宋) 시대 성리학자 정이의 「안자호학론」을 감정과학으로 증명하였다. 그 결과 본 논문은 현대 중국이 처한 학문의 위기를 유교문화의 감정과학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

본 논문의 분석에 따르면, 현대 중국의 학문이 처한 위기는 근본적으로 학문의 본질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결여한 데에서 찾을 수 있다. 배운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배워서 안다고 할 때 무엇을 안다는 것인지, 이처럼 학문의 본질에 대한 성찰이 결여되어 있다. 그 결과 학문을 연마하는 학자들은 자신의 창의성과 원동력을 상실했다. 이것이 중국 현대의 문화와 정치 및 경제와 같은 사회 전반에 가져오는 파급효과는 실로 막대하다. 학문의 위기는 당연히 문명의 발전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문명을 살아가는 인간의 행복을 억누르게 된다.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은 감정과학을 연구의 방법으로 삼았다. 왜냐하면 학문의 위기를 비롯해서 모든 국가적 그리고 사회적 현상은 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진실이기 때문이다. 몸으로 생겨나 몸으로 살아가며 몸이 느끼는 감정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진실이다. 이 진실 안에서 국가 사이 그리고 사회 사이의 문화적 현상이 생겨난다. 이 현상 가운데 하나가 본 논문의 핵심 주제인 현대 중국의 학문 위기이다. 결국 학문론의 위기도 그 근본에는 몸으로 생겨나 놀이하듯 감정을 느끼는 인간의 진실 안에 있다.

다음으로 본 논문은 연구방법인 감정과학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하여 중국 고대의 공자에 의해서 정초된 유교문화의 학문론과 이 문화를 계승한 중국 중세의 북송 시대 정이의 성리학에 집중했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감정과학의 학문론이 중국과 한국이 공유한 학문의 진실임을 밝히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정이에 의해서 정립된 성리학을 감정과학으로 밝힘으로써 현대 중국이 겪고 있는 학문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이 두 가지 이유에 입각하여 본 논문은 ‘공자’와 공자를 계승한 ‘안연’을 중심으로 고대 중국의 유교문화 학문론이 감정과학이라는 사실을 밝혔다. 우선 본 논문은 공자와 안연의 생애를 감정과학에 근거하여 새롭게 정리했다. 감정과학의 진리 안에

서 이 두 철학자는 자기 몸의 본성인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 안에서 생겨나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으로 놀이했다는 사실을 정리했다. 이 사실에 기초하여 공자와 안연의 학문을 감정과학으로 증명했다. 공자와 안연의 학문은 호학(好學)으로 요약되는데, 그 이유는 오직 감정과학만이 우리 본래의 행복을 영원무한의 완전성으로 확인하기 때문이다.

3장은 중국의 중세시대에 해당하는 북송(北宋) 시기의 성리학자 정이(程頤)가 공자와 안연의 호학(好學)을 계승함과 동시에 그 본질을 감정과학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이를 위해 정이의 생애를 감정과학으로 정리하였으며, 특히 정이의 학문론을 압축하고 있는 「안자호학론」에 대한 번역을 공자와 안연의 감정과학에 기초하여 새롭게 시도했다. 다음으로 이 번역에 대한 자세한 설명으로 ‘「안자호학론」 번역에 대한 주석’을 최대한 자세하게 정리했다. 그 결과 본 논문은 정이의 약기정(約其情)으로 감정에 대한 참다운 이해가 마음과 몸에 대한 바른 이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학문은 개별과학이다. 학문은 저마다 자신만의 연구방향과 그를 위한 연구방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개별과학으로서 학문은 몸으로 생겨나 몸으로 놀이하며 몸이 느끼는 감정으로 살아가는 인간이 그 주체이다. 이 사실에 근거하면, 개별과학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논리는 인간의 몸, 그리고 인간의 몸이 느끼는 감정이다. 개별과학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진실이 존재한다면, 그 모든 개별과학의 본질을 구성하는 것은 당연히 그 단 하나의 진실이다. 이 진실이 몸이며 몸이 느끼는 감정이다. 이 진실을 향한 학문이 유교문화의 감정과학이며, 이 진실로 학문을 하자는 학문론이 정이의 학문론이다.

여기에서 핵심은 다음의 세 가지이다.

1) 학문의 진실은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 안에서 오직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만을 확인한다.

2) 학문은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에 대한 명석판명의 이해에 의해서 성립하기 때문에 개별과학은 자기만의 전문 연구 영역에서 명석판명의 이해를 추구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무한하게 진보하게 된다.

3) 개별 학문을 담당하는 학자들이 자기 연구에서 명석판명의 이해를 형성하면, 그 이해의 본성은 실질적으로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이기 때문에, 결국 학자는 자기 연구에서 최상의 행복을 누리게 된다.

이상, 세 가지 결론이 본 논문이 유교문화의 감정과학에 근거하여 밝히는 학문의 본질이다.

그러므로 이 본질에 근거하여 본 논문의 5장은 현대 중국이 처한 학문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였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연구자 자신의 행복을 자기 스스로 확인하는 것이다. 연구자는 구체적인 자신의 전문 연구를 실행하기 전에 자기 몸의 진실 그리고 이 진실로부터 필연적인 자기 감정의 진실을 명백하게 이해해야 한다. 이 이해의 명백성은 실질적으로 자기 연구의 전문 영역에서는 이해의 명백성으로 드러난다. 결과적으로 자기 연구는 발전하게 된다. 그리고 이 발전과 동시에 연구자는 행복을 느끼기 때문에 결국 연구와 행복 사이는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이것이 본 논문이 제시하는 학문위기의 극복 방법이다.

## 참고 문헌

### 1. 원전

『성학십도』  
『爾雅·釋言』  
『二程集』  
『周敦頤集』

### 2. 저서

성동권. 2018. 『유교(儒敎)의 반전평화 논리』. 서울: 부크크  
성동권. 2020. 『공자 유학의 사상적 기초로서 기하학적 사유』. 서울: 부크크  
성동권. 2021. 『감정과학의 논리 생각하며 배우기 1. 서양 고대 그리스 감정과학의 태동』. 서울: 부크크  
성동권. 2021. 『서양 고대 그리스 감정과학의 태동』. 서울: 부크크  
성동권. 2021. 『서양 중세 초기의 감정과학』. 서울: 부크크  
성동권. 2021. 『서양 고대 로마의 감정과학』. 서울: 부크크  
성동권. 2021. 『서양 중세 중기의 감정과학』. 서울: 부크크  
성동권. 2022. 『유교문화의 정초 논어의 감정과학』. 서울: 부크크  
성동권. 2022. 『유교문화의 정초 공자의 감정과학』. 서울: 부크크  
성동권. 2022. 『서양 근대 18세기 감정과학의 위기』. 서울: 부크크  
성동권. 2022. 『서양 근대 19세기 감정과학의 성공』. 서울: 부크크  
성동권. 2022. 『서양 현대 20세기 감정과학의 공효』. 서울: 부크크  
성동권. 2022. 『서양 중세 말기의 감정과학』. 서울: 부크크  
조중빈. 2016. 『안심논어』. 서울: 국민대학교 출판부  
馬一浮. 1996. 『馬一浮集』. 浙江: 浙江教育出版社

### 3. 번역서

안셀무스 저·박승찬 역. 2002. 『모놀로기온·프로슬로기온』. 서울: 아카넷.  
보이티우스 저·정의채 역. 2007. 『철학의 위안』. 서울: 바오로딸.  
스피노자 저·강영계 역. 2007. 『에티카』. 서울: 서광사.

플라톤 저·최현 역. 2008. 『파이돈』. 서울: 범우사.  
 마르크스 저·박광순 역. 2008. 『임금 노동과 자본』. 서울: 범우사.  
 헤겔 저·임석진 역. 2002. 『정신현상학2』. 서울: 한길사.

#### 4. 학회보, 월간지, 계간지 등의 논문이나 기명 기사

성동권. 2015. “退溪의 西銘考證講義에서 乾坤父母 研究,” 『퇴계학논집』  
 성동권. 2016. “기하학적 질서에 따라 증명된 퇴계 선생의 경(敬),” 『퇴계학논집』  
 성동권. 2019. 「성학십도 심통성정도의 중도의 장르분석」. 서울: 퇴계학연구원  
 성동권. 2021. “기하학적 질서에 따라 증명된 思學의 四端之情과 不思不學의 七者之情,” 『한국문화』 94.  
 葛金芳. 2005. “宋代經濟：從傳統向現代轉變的首次啓動.” 『中國經濟史研究』 제1기.  
 何俊. 2011. “以道爲學——《顏子所好何學論》發微.” 『哲學研究』 제6기.  
 魏紅梅. 2016. “現代學術危机与原因分析.” 『攀枝花學院學報』 제28기.  
 張福貴. 2011. “現代中國學問危机的三大主要症狀.” 『學術界』 제11기.  
 張斯珉. 2017. “學以致聖——程頤《顏子所好何學論》篇解析.” 『人文雜誌』 제1기.  
 曾昭禹. 2010. “學問危机最重要的問題在學者自身,” 『中國社會科學報』 제132기.

#### 5. 학위 논문

유영관. 2019. “‘自明코칭’의 원리와 『中庸』의 ‘性, 道, 教’에 대한 나의 이해.” 국  
 민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서울

#### 6. 인터넷 자료

論文网. 2016. “學問危机是不研究學問眞理反而追求外部利益.”  
<https://www.lunwendata.com/thesis/2016/86336.html>(검색일: 2016. 11. 10).  
 肖建華. 2021. “中年學術危机.” <https://mp.weixin.qq.com/>(검색일: 2021. 7. 23).  
 張祥龍. 2016. “中國傳統文化研究學者逐漸減少.”  
<https://www.docin.com/p-2787264486.html>(검색일: 2016. 2. 16).

## Abstract

### 논문 초록

*by Fu, Hong Li*

Department of Cross-Cultural Studies  
Graduate School, Kookmin University,  
Seoul, Korea

Since junior high school, I have been addicted to reading and have read all kinds of books. At that time, I didn't know why I liked reading. This problem continues until the university. When I was in college, I found that learning was to learn all kinds of knowledge, and finally I got to know myself better. In the year of graduation, academic fraud happened in the academic circles of China, which had a great influence on me at that time, and it was the first time that I associated my knowledge with myself. Learning is to know what you really are. After graduating from college, I temporarily stopped the habit of reading. I began to think about why I want to study. But I still don't understand the real me.

At the suggestion of my brother and sister, I started my master's course. The focus of the master's research is what my truth is, which is a journey to find myself. I combine my true knowledge with learning, with "YanYuan's Theory(顔子好學論)" as the main factor, which proves that real learning is the truth of our bodies. The research scope is "learning" in Confucianism, and the main research objects are Confucius "learning oneself(爲己之學)", Yan Yuan "good learning(好學)" and Cheng Yi(程頤) "YanYuan's Theory".

First of all, I studied Confucius. The Analects of Confucius(論語), as the representative of Confucius' learning, hopes to find out the view of Confucius'

“learning”. Confucius is the founder of Confucianism, and his understanding of “learning” must be correct. Study the Analects of Confucius and confirm the truth of learning. The “learning” of Confucius disciple Yan Yuan is found in The Analects of Confucius, which defines Yan Yuan’s learning by “correctly understanding feelings and inherent nature(不遷怒, 不貳過)”. This is consistent with “all good emotions and all good worlds” in emotional science. Adhering to Confucius’ thought, Yan Yuan took his feelings as the object of learning. In order to confirm this, I studied Cheng Yi’s “YanYuan’sTheory” in the Northern Song Dynasty(北宋), trying to prove that YanYuan’s knowledge correctly understood his emotions and knew the truth about his body.

Further research proves that it is inseparable to connect the three periods of Confucian “learning theory” and correctly understand one’s own feelings and the truth of the body. This is the knowledge to be learned, and it is the real knowledge. What I am looking for in the book is the truth of the body. By combining this truth with life and study, spreading and explaining it to more people, and knowing the truth of one’s own body, one can really learn real knowledge and solve the academic crisis smoothly.

The main content of this paper is mainly Confucian “learning theory”, which is described as follows:

First, to understand Confucius’s “learning oneself” with emotional science is to confirm a correct understanding of one’s own body and emotions, and to study knowledge with emotional science is the correct learning method.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body and emotion is the basis of this paper.

Secondly, through the translation and understanding of “YanYuan’sTheory” by Cheng Yi, a sexologist in the Northern Song Dynasty, it is proved that Cheng Yi’s learning theory is consistent with that of Confucius and Yan Yuan. To understand real learning is to know that you have eternal life and love.

Thirdly, by discussing the similarity between the academic crisis of the times and the academic crisis of modern China, it is confirmed that emotional



science is the way to overcome the academic crisis of modern China.

There are three research results, which are described as follows:

First, the truth of learning is eternal life and love.

Secondly, confirming the importance of body and emotion is the basis for exploring the truth of body and learning real knowledge.

Thirdly, academic researchers feel real happiness in their research according to their own nature. Studying knowledge from the necessity of discipline can make infinite progress forever.

Key words:

body, emotion, Analects of Confucius, YanYuan's Theory.